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내 마음은 원각…
마음 안에 세상 행복 담겨"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36호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열반경〉
선각자는 뱃사공과 같다
험난한 생사의 바다에서
언덕 너머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탑골 무료급식 원력 이어간다

원경 스님 원각사 인수… 4월 1일 급식 제개

22년째 이어온 원력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중단 위기에 처했던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은 이제 새 주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前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이 기꺼이 이 일을 맡았다. 심곡암 신도 강위동(72) 거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스님을 도와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3월 3일부로 중단되었던 급식은 4월 1일 재개된다. **〈본지 1035호 5 · 31면 보도〉**

이 소식을 가장 반기는 이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그동안 무료급식을 담당해왔던 보리 스님(원각사 주지)이 건강악화로 더 이상 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의 쾌차를 빌면서도 한 끼를 어디서 때워야하나 걱정하던 이들이었다. 황우식(76) 씨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다시 문을 열게 돼 다행 또 다행"이라며 "힘없고 배고픈 이들을 저버리지 않아줘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보리 스님 역시 "급식소를 찾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원경 스님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경 스님에게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을 제의했던 이는 다름 아닌 심곡사 신도 강위동 거사.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해왔던 그는 지난 1월 급식폐쇄 소식을 접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평소 적을 두고 다니던 심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이를 논의했다.

하지만 원경 스님이 선불리 강 씨 의견에 힘을 보태줄 수 없었던 것은 월 1천5백만원 가량의 운영비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22년 자비원력을 저버릴 수 없었다. 원경 스님은 탑골공원에 직접 '현장답사'를 나갔고 어떻게 해서든 원력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원경 스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은 사회가 복지의 덕성(德性)을 키움으로써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가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같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사진 오른쪽)과 신도 강위동 거사.

심곡암 신도 강위동 거사
주축으로 후원회 결성
"한끼 기다리는 어르신
외면할 수 없어 결심"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던 원각사 무료 급식소는 이미 다른 세 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원경 스님과 강 거사는 3월 3일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건물에 대한 계약을 새로 맺었다.

그동안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에서 공양을 대접했던 어르신은 하루 2백명 가량. 앞으로도 이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 스님과 신도 두 명으로 운영하기는 버거운 현실이다.

후원조직은 전혀 없는 상태지만 향후 봉사자들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후원처 등을 계속 발굴해갈 생각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 거사는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존 봉사자들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연락을 주고 있다. 불자 법조인 모임 서초반야회 역시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원각사를 찾을 예정이다.

무료급식소는 내부 정리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다시 문을 연다. 법당과 식당이 있던 2층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을 넓히고 조그만 불단을 놓는다. 또 급식이 없는 시간에는 문화 · 시민단체에 건물을 무료로 개방해 문화나눔공간으로 운영해갈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사회복지원각 006001-04-282872
문 의 : 010-3737-265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12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0여 명,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테이프 컷팅식 장면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아름 수습기자

해인총림 방장 선출 '산 넘어 산' 우려

산중총회서 원각 스님 추대… 구성원 자격 문제 제기 이어져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후보에 원각 스님이 3월 7일 산중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하지만 최종 인준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해인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방장 인준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인총림 12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선해 스님은 3월 11일 원각 스님에 대한 방장 인준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해인사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 17조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그 도제의 권리가 제한돼야 하지만 투표를 했으므로 7일 시행된 산중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 스님과 향록 스님 등은 "해인총림 산중총회는 40여 명이 넘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투표한 만큼 원천 무효"라며 12일 중앙종회 등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공 스님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미등록법인 임직원과 도제 40여 명이 선거(산중총회)에 참여했다"면서 "선학원 관련 인사와 도제는 종헌과 법인관리법에 의거해 빠졌다. 이는 특정 법인 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각 스님의 피선거권에서도 문제를 삼았다. 성공 스님은 "원각 스님이 이사로 있는 선원수좌복지회가"제기했다.

성공스님은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금강 등 해인사 스님들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법인 여러 곳이 2월 28일 전에 종단 등록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와 도제가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나 역시 운영하는 법인의 종단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투표에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인사 선관위
"미등록 법인 이사들
총회 참여, 원천 무효"

원각 스님 추천위
방장은 선거아닌 추대
"소청 대상되지 않아"

하지만 원각스님해인총림방장추천위원회는 "산중총회의 만장일치로 방장후보를 선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각스님추천위 공동대표 원학 스님은 중앙종회에 접수한 '반박의견서'를 통해 "해인사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종단절차는 '선거법'에 의한 투표로서 뽑는 것이 아니라 '산중총회법' 제8조 '방장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한다'는 회의절차를 통해 선출하므로 선거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성원명부는 중앙선관위가 3월 4일 확정했다"면서 "사전열람 기간에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다. 총무원에서 사전열람용 명부를 내려보내며 '법인법'에 의한 권리제한을 선학원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양측의 이의 신청 및 반박 의견을 보고 받고 15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17일 열리는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에서 해인총림 방장 인준의 건이 다뤄질지 여부는 16일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차주 상보〉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2015년 연등회, 광화문서 만나요

봉축위 일정 공개… 5월 15~18일 세계평화기원대회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은 광복 70년을 맞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봉축위)는 3월 11일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일정과 봉축표어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봉축행사에 앞서 4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봉은사와 우정공원, 청계천 일대에서 전통등전시회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번 봉축에는 세계평화 기원을 위해 세계 각국 고승 3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들은 연등회 전날인 15일 입국해 현충원 참배 등을 하며 16일 오후 2시에는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봉축행사는 1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의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흥인지문과 광화문까지의 제등행렬로 이어진다. 제등행렬에는 초청된 세계고승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며 대중들과 함께 행진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만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회향식을 겸해 열린다.

오후 7시부터 광화문 광장은 간화선 무차대회로 전환된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평화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조계사에서는 수륙재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출가 · 열반절 기획 – '수능엄경'에서 만난 25성자〈1〉 14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소통 · 화합 위해 노력해달라”

자승 스님, 9일 이완구 국무총리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3월 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늦게 나마 총리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취임사에서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며 주나라 주공의 ‘일목삼착(一沐三捉) 일반삼토(一飯三吐)’ 고사를 인용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소통과 통합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라며 “일목삼착 일반삼토의 부지런함을 먼저 보여준다면 소통과 화합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올해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 이후 만남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9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소통 ·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운사 새 주지에 경우 스님 선출

7일 산중총회서 82표 얻어… 도정 스님 26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신임 주지에 경우 스님이 당선됐다. 선운사는 3월 7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주지 선출에 앞서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직접 선거로 주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종회에서 경우 스님〈사진〉은 111명 중 8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 후보로 나온 도정 스님은 26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3표가 나왔다.

당선 직후 경우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우 스님은 “8년간 전임 주지 법만 스님이 본사를 잘 이끌어오셨다. 계승 발전할 부분은 발전시키고 진행됐던 불사는 잘 마무리하겠다”면서 “대중들의 뜻을 잘 받들어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우 스님은 전임 주지 스님인 법만 스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사중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경우 스님은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내놨다. 경우 스님은 공약으로 총림 지정을 비롯해 △문중과 세대를 잇는 원융화합 △본말사 균형발전 △노후 수행복지 △맞춤형 포교전략 수립 △수행문화 공동체 형성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공약 이행에 대해 경우 스님은 “총림 지정이나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수행마을 등 공약 사항은 취임 이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로 나온 도정 스님에게는 “사제 간 경쟁을 펼쳐 마음이 아프다. 함께 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입산해 같은 해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9년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장경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정적 시각 거두고 화합승가위해 노력”

조계종, 11일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



조계종 총무원은 3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단적 기구인 ‘선학원정상화를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월탄 스님, 혜성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는 1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종정 진제스님을 증명으로 원로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 및 총림 방장 스님 등 38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도위원에는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선원수좌, 중진 스님 등 26명이 참여한다.

추진위원장은 법등 스님이 맡았으며,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종무기관장, 전국비구니회,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직할교구상임위원 등 81인이 위촉됐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교시를 내리고 종단에 단일 승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교시에서 “종단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학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계종 단일승가 구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며 “선학원 집행부 또한 마음을 열어 일체의 불안과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부처님의 제일계인 화합대중으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 증명, 원로 고문
수좌 · 중진 등 140여명 참여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선학원은 근래에 설립정신을 잊은 채 무분별하게 사찰 등록을 받는 등 세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종단의 종도들은 선학원이 자기 정리를 통해 청정 비구승의 수행공동체를 회복해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은 조계종 승적의 선학원 창건주 및 분원장 스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인욕과 정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추진위원회는 종단 차원의 구성이기에 향후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는 종단을 대표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월탄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선학원은 오늘날 조계종이 있게 한 모체”라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을 절대 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해와 설득으로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추진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선학원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대규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그만큼 종단과의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종단 원로, 중진과 선학원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 분명히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선학원을 정상화시키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등록 법인 제재 7월까지 유예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앞두고 위원회 안건 논의 분주

산중종회법은 존치키로
진흥원 특위 명칭 개정도
17일 임시회 개원 5일간

3월 17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과 해인총림 방장 인준 등 종단의 첨예한 현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검토의 건’을 보고하고 제재 조치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 명본 스님은 “법인관리법에 따른 권리제한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가 원할한 협상을 위해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면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종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 스님들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선광 스님은 “법을 쉽게 성안하고 개정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조삼모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 조치를 유예하려면 앞서 법을 성안하고 제출했던 부서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상 스님도 “이미 유예 조치가 두 번이나 이뤄졌다”면서 “총무부가 7월 3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유예를 요청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열리는 제201차 종회에 제출할 종헌 및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상향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당초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승 및 거주승의 자격을 법계 대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다만 논의했던 대로 ‘총림법’ 개정은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림 방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하며, 방장은 임회 구성원 재적 3분의1 이상 혹은 주지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임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대한불교진흥원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11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놓고 내홍이 불거진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인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불기 2558(2014)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위한 제201차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는 3월 17일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중앙종회 결과 차주 상보〉

직능대표 보궐선거 화평 · 성화 스님 당선

조계종 직능선출위, 9일 회의서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화평 · 성화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3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지현 스님과 탄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능대표 종회의원에 화평 스님과 성화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금사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교무국장, 익산 심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과 나눔의 집 이사를 맡고 있다.

성화 스님은 정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솔종합복지관장,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산종합노인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附設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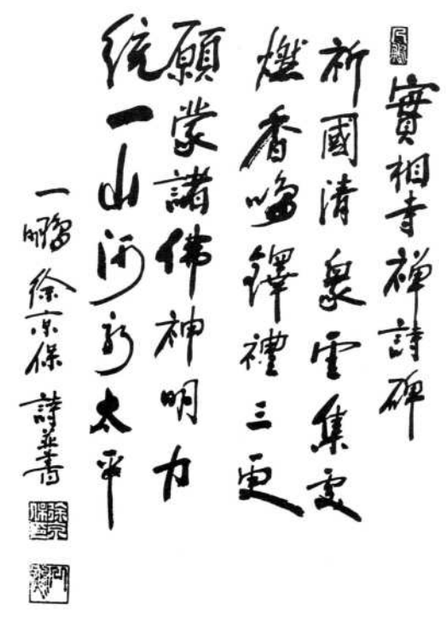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혜 : 1기생 교육비 무료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조계종 직할교구 포교 · 승려복지 확대

12일 종회… 예산 16억 확정

조계종 직할교구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6억3천여만 원과 특별회계 10억2천여만 원 등 총 16억5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2일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할교구는 수행과 포교를 통한 불법홍포에 진력해야 한다"며 "특히 종단 백년대계의 중심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있기에 미래세대를 희망과 용기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할교구는 올해 '포교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찰과의 연대강화' '직할교구 승려복지의 안정적 정착' 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구별조계종주지협의회 활성화, 서울시 포교 지표조사, 직할교구 공찰 사무장 회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3천여만 원이 증가된 6억3천여만 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2억4천여만 원 증가한 4억4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별회계에서는 말사 부동산 수익금을 적립하기 위해 '직할교구 부동산수익적립금 특별회계' 가 신설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사 고시 843명 합격 영예

윤탁수 · 김지현 공동 수석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 843명을 확정 발표했다.

포교원에 따르면 총 접수자는 1026명(불교대학 및 개인 접수자 959명, 추천 응시자 43명)으로, 이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1002명 가운데 결시자 61명을 제외한 941명이 응시해 843명이 합격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제20회 일반포교사 고시 접수자는 전년대비 6%가 증가했다.

이번 고시 응시자 중 최고 득점자는 영축불교대학에서 응시하신 윤탁수 씨와 봉선사에서 추천자 전형으로 응시한 김지현 씨가 공동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포교원은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제2차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실시하고, 7월까지 다양한 지역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평가를 통해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여 품수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내부 충실도 '빨간불'

조계종 불교사회硏,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사회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진 반면, 신뢰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교의 '종교적 충성도' 는 주요 종교 중 최하였다. 특히 불교의 내부적 충실도가 낮다는 결과는 최근 한국 갤럽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본지 1032호 1, 3면 보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대국민여론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2011년과 2014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진행된 면접조사의 추세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와 행복 △한국 종교의 현실과 과제 △불교에 대한 인식과 과제 △한국인의 종교생활 등 4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민들은 '빈부격차 해소' 를 꼽았다. 빈부격차 해소는 2011년 19.7%에서 2014년 22.3%로 증가했으며, 부정부패(12.6%), 정치불안정(12.1%), 범죄 · 일탈(11.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종교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2011년 개신교에서 2014년 가톨릭으로 변화했다.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5점 기준으로 가톨릭은 2011년 4.11점이었으나 2014년 3.39점으로 감소했고 불교는 4.05점에서 3.32점으로 떨어졌다. 개신교는 3.34점에서 2.92점으로 내려갔다.

'불교에 대한 인식' 에서는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활동 분야에 대해 '생명존중' 부문이 연속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2011년 '환경보호' 에서 2014년 '인권존중' 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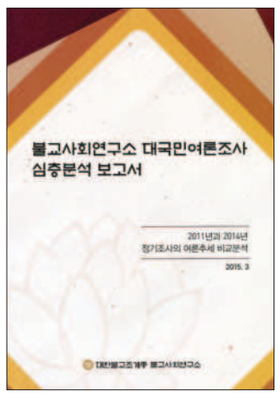
불교계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2.56점에서 2014년 2.39점으로 하락했다. 불교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2011년 2.79점에서 2014년 2.63점으로 감소했다.

명상, 기도, 경전 읽기 등 종교적 충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조사에서도 불교가 최하위로 나왔다. 이는 외형상 불교가 한국 제1종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연구소 기획위원)는 "불교는 종교행사 출석률, 신행활동률, 보시금 납부률 등에서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자정능력 제고, 재정투명성 확보 등 시대변화에 따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지는데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결과는 마음의 평화라는 종교의 본질적 기능보다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등 부수적인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불교 신도조직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1 · 14년 조사 비교 분석
종교 전반 신뢰도 감소 추세
'종교적 충성도' 불교 최하위
수행 · 기도 · 만족도 가장 낮아

새 법당서 불심 다져 상생정치를

국회 정각회, 3월 12일 법당 이전 및 개원법회 "정치는 국민 이롭게 하는 것"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가 국회 본관 지하에 새 법당을 마련하고 불심에 의한 상생정치를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는 3월 12일 국회 본관 지하 1층 새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정각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치는 여야와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생의정치를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새 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하고 타협해 우리사회가 화합을 이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창일 정각회장은 "정각선원이 그 동안 수행도량의 면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새 법당 불사에 힘써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원한 정각회 법당은 기존 법당보다 2배 가량 면적이 넓어졌다. 정각회는 기존 법당이 오래되고 장소가 좁아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올해초부터 법당 신축이전 불사를 추진해왔다. 법당 설계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을 설계한 이공건축 류춘수 회장이 맡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회 정각회는 3월 12일 국회 본관 1층 새법당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 다수의 원력 통하는 사회돼야"

박노자 교수, 11일 한반도불교통일기획단 토론회서

"한국은 격차사회의 극치다. 평등을 통한 이상적 사회를 강조한 〈아함경〉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곧 부의 재분배와 상통한다. 기업세를 비롯한 양도세, 종부세 등을 강화시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원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이 주최가 돼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불교계 통일역량 증대를 위한 토론회.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노자 교수(오슬로 국립대학)는 현 한국사회를 이같이 진단하며 불교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했다.

박 교수는 "국민 5명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진료를 포기하는 상황,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관료집단 마저 자본에 점령당한 현 상황에서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다수가 어떤 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도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와해돼가고 있는 증거다. 자본을 위시한 극소수의 지배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진정한 가능성은 박탈돼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박 교수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노동계급과 중산계층의 강력한 진보연대와 공동투쟁"을 내놓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압박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총체적 역할 분담, 국민의식 계몽 등의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노동계급과 중산계층의 '원력' 은 변혁을 이끌어내는 최초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생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의 원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KTX 대법 판결, 노동자 보호 역할 포기"

조계종 노동위, 11일 대법 판결 긴급토론회 개최

대법원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사법부가 노동법적 보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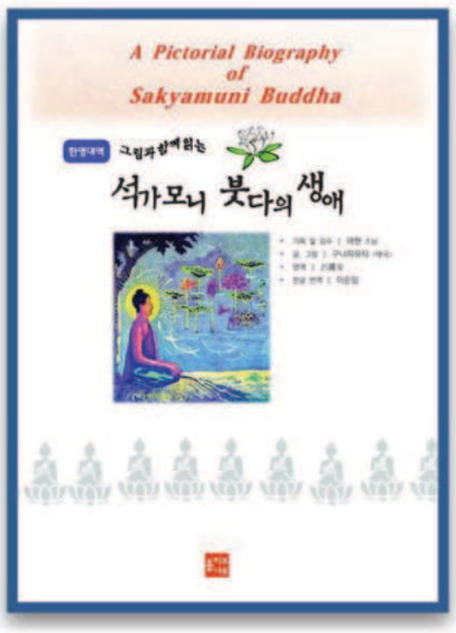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기독교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를 주제로 3월 11일 오후 2시 조계종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 문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가 'KTX 여승무원 왜 불법파견인가' 의 주제 발제를 맡았다.

김홍영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들은 안전 업무와는 상관없는 객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승무원들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대법관들이 여승무원들의 실제 노동 모습을 보려 노력하지 않고 문서로 나타난 자료 중심으로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철도공사가 여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위 소속 도철 스님은 "KTX 여승무원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 문제는 단편적인 토론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3월 11일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가장 행복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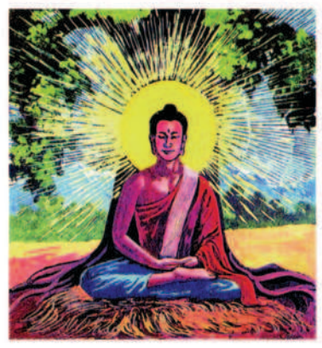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물음표와 느낌표!
218컷의 그림과 함께 음미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한영대역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글, 그림 ‖ 구나파유타 (태국)
* 영역 ‖ 呂繩安 (Z. A. Lu)
* 한글 번역 ‖ 이순임

119 고요한 삼매 속에서, 싯다르타는 자신의 삶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마음을 살피고 주시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전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오한 통찰을 통하여, 그는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존재들의 미래 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여 그는,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가 카르마*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윤회란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현현(顯現)임을 깨달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In the tranquillity of samādhi, Siddhārtha searched and observed mentally,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his own life. Thus he acquired the power of being aware of all his previous lives (Pūrvenivāsānusmṛti). Through further insight, he also acquired the divine vision (Divyacakṣus), the power to see all things and to know the future rebirths of all beings. He thus came to realize that the unceasing cycle of death and rebirth ef all beings is solely a manifestation of one's karma; that is, one's thoughts and deeds. Some people could be born to a better life than they presently enjoyed, encountering all sorts of happiness, because they had done good deeds. Some, on the other hand, could be born to a condition worse than their present ones and suffer very much because they had done bad deeds.

몇 년 전, 중국어와 영어로 된 이 책자를 보고는, 우리나라의 불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붓다의 일대기를 꼭 읽히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大玄 합장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55) 972-1109
010-9772-4588

오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일 주 문



삼국유사 목판사업 추진위원 위촉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2월 26일 경북도청 〈삼국유사〉 목판사업 출범식에서 대표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42대원 천수다라니기도 회향식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8일 6000여 명이 동참한 42대원 천수다라니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



111일 관음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27일 대웅전에서 '가족을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관음기도' 에 입재한다.



홍법사 108산사 순례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3월 29일 하동 쌍계사 및 산내암자 순례를 진행한다. (051)508-0345



불레협 연등회 율동리더 양성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혜만 스님은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5시 연등회를 이끌 율동리더 양성에 나선다. (02)738-7860



백제불교문화대 제14기 입학식

백제불교문화대학 학장 장곡 스님은 3월 10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제1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원장

효천 스님은 3월 9일 서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기 명상학교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4월 6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자비실에서 명상리더십센터 제1기 명상학교를 진행한다. (02)722-2101



병불련, 길상사 템플스테이

김진섭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3월 28~29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병불련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02)2011-1950



산청 보림선원 춘계 철야정진 법회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장은 3월 20~22일 춘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055)972-9555

"회원 종단간 소통에 주력할 것"

종단협 신임 사무총장 월도 스님
30년 만에 '교체', 조직 쇄신





월도 스님이 종단협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받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 30년 만에 교체됐다. 신임 사무총장은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무총장 월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월도 스님은 3월10일 열린 종단협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홍파 스님이 30년 동안 사무총장 소임을 맡아 종단협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종단의 불만도 있었다"며 "월도 스님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이러한 불만들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 소임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도 스님은 "그 동안 회장단과 이사들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장단을 잘 보필하는 한편 회장단과 이사들, 군소종단의 소통의 매개가 되겠다"며 "이와 함께 협의체에 머물러 있는 종단협의 역할이 대정부 창구까지 확대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 후 스님은 "홍파 스님이 사무총장직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온 결과 종단협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이사종단 사이의 종단협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도 스님은 연등회에 종단협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 간 갈등요소 중 하나인 연등회는 그동안 종단협이 주도해야 함에도 기획과 진행에 있어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며 "차후에 이뤄지는 종단협의 사업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하되, 이사종단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월도 스님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편, 이날 투표에서는 총 32명의 이사들이 참가해 후보로 나선 월도 스님이 20표,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12표를 얻었다.

이사회에서 종단협 전 사무총장인 홍파 스님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홍파 스님은 "그동안 종단협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무총장으로 원만히 일을 진행해 온 것은 회장단과 이사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다"며 "사무총장 소임 내려놓고 부회장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여연대 공동대표에 법인 스님



해남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사진〉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 법인 · 정강자 · 정현백)는 3월 7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스님과 정강자 교수(인하대 초빙교수)를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김균 교수(고려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참여연대는 올해 주요활동방향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참여 구조 확대 △권력 오 · 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 · 기억사업 활성화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 강화 △시민 참여 · 교육 · 문화 다양성 강화 △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등을 채택했다. 참여연대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지난 1994년 창립했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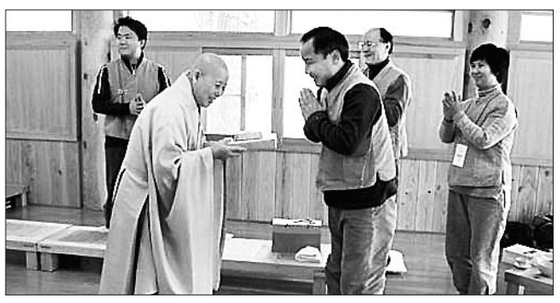
절약으로 모은 2억, 동국대 기부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3월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에 장학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스님을 위해 동국대 내 관음장학회를 설립해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스님은 겨울철 직접 나무를 때서 지낼 만큼 평소 근검절약을 실천해왔다. 스님은 2012년 준공한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부산 해동고와 구덕고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장학 후원을 해왔다.

노덕현 기자

서울시 문체위, 진관사 템플스테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 위원장 이상묵)는 3월 10~11일 1박2일에 걸쳐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진관사 템플스테이 첫날 일정은 진관사 역사와 템플스테이 소개, 타종, 예불체험으로 진행됐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예불과 108배, 참선, 포행, 다도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 한류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자"

중국 사비향납연맹의 총재 사비 박사 방한



"한류는 중국에서도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자인 저는 한류와 불교를 결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다큐 등을 제작해 불교의 한류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사비향납연맹의 총재 사비 박사(43)가 한국을 방문 한류 불교 콘텐츠의 제작의사를 밝혔다. BTN 불교TV 20주년 개국행사 기념공연에 참석한 천수관음무 팀의 후원인 자격으로 내한한 사비박사는 사비 '향납' 이라는 향을 개발 중국인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저희 사비향납연맹은 꿀 초목 등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향납을 개발, 부처님 수인과 향 호흡법을 결합한 의식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병을 개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를 통해 향납을 보급하고 있는 상하이 사무실에는 불상을 모시며 부처님의 뜻을 기리고 있죠. 많은 회원들이 향납을 통해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담아 향납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비 박사는 BTN 불교TV 20주년 개국 행사에 참석 후 봉은사 청계사 등 한국 사찰을 둘러보고 한류 불교 콘텐츠 제작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류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활용해 불교의 한류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승가교육 변화위한 연구에 매진"

조계종 교육원 신임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



조계종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 신임 소장에 보문 스님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3월 9일 2층 집무실에서 신임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보문 스님은 승가교육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보문 스님은 "아직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해 특별하게 추진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번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빨리 적응해서 종단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2009년 이후 한국불교 승가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이 체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대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무엇보다 승가교육 불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문 스님은 세영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제방선원에서 13안거를 성만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 영월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참 회 합 니 다

(사) 대승불교 조계종 여러 어른 스님들.

저는 2014년 10월 22일 제 4차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찰부장 소임을 받은
김 능일 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 불제자 신분으로 살면서 어떤 것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중죄를 지었습니다.
현 감찰소임 중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의 갈등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물이 양면이 있듯이 정.사양면을 두루 분별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총무원장 지시대로 개인 사병 노릇한 죄 참회합니다.

납골당 사업권의 우위를 차지 하려는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사이에
총무원장 편에서 일방적인 감찰 조사 하고 공포 한 죄 참회합니다.

종헌종법 한계를 넘어 사법으로 소송비용 3300만원 사비 쓰며
총무원장 옹위한 죄 참회 합니다.

종단 위해요인 찾아 밝히고 분열된 종단 봉합치 못한 죄 참회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종단발전 도모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감찰소임 수행중 저로 인해 깊은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 참회합니다.
이 기회에 소임을 사임하려 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7일

(사) 대승불교 조계종 감찰부장 김 능일



BTN불교TV는 3월 7일 서울 코엑스 오라토리엄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BTN은 4대전략목표를 발표하고, 새 이니셜을 소개해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사진은 기념행사 전경.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종단 지도자와 인사 등 사부대중 1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한마음어린이합창단은 'BTN을 빛낸 108명의 인연'을 공연했다.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은 영상포교발전에 함께 해온 사부대중에게 인사의 말을 전했다.



20년간 활동했던 27명의 출연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년 맞은 불교TV, 종합미디어 발돋움 '다짐'

3월 7일 개국 20주년 행사… 4대 비전 · 새 CI 발표

"지난 20년동안 이어진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BTN불교TV가 성년식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불자들의 진정한 대표방송, 행복중심채널로서 새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불교TV)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개국부터 지금까지 BTN과 인연을 이어 온 프로그램 출연자, 후원인 및 종단 지도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모듬북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의 인사말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회장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TV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으로서 지금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영상포교를 위한 스님들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교TV는 불자와 국민들의 방송이다. 앞으로도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전통문화, 정신문화를 전승 발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제 시청자들은 고도화된 방송 기술을 넘어 불교TV가 종합미디어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종단 지도자들은 축사를 통해 성년이 된 불교TV가 불교의 미래를 선도하는 매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불교TV가 오늘의 성년식을 계기로 앞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전법도량을 이끄는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향후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BTN불교TV의 앞날에 모든 불자님들이 수희 동참하고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구본일 대표이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TV의 미래비전 4대 전략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새롭게 정한 불교TV의 C.I.(Corporate Identity)도 함께 공개했다.

구 대표이사가 발표한 불교TV의 4대 미래비전은 △불교종합미디어로의 도약 △한국불교세계화에 앞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행문화 확립 △불자공동체로 웰라이프 실현 등이다.

불교종합미디어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불교TV는 지난 3월 1일 스마트 라디오 '울림'을 공식 개국했다. '울림'은 법문, 염불독경, 찬불가, 명상 등 총 4개의 전문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운영 당시에도 불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스마트 · HD방송 시대를 맞아 종교방송 최초로 모든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 방송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난해 완벽히 구축 완료했다. 이는 우수한 불교영상콘텐츠를 고화질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불교TV는 불교영어채널 설립을 비롯해 △ 불교문화유산 UHD 기록 보존 및 해외홍보 △세계주요국 불교TV 송출 확대 △세계불교국가 주요방송과 협력강화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불교영어채널 설립은 영어전문채널을 미국에 설립해 한국 선승들의 법문과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미국 · 캐나다 · 브라질 · 멕시코 · 뉴질랜드 · 중국 · 홍콩 등 12개국에서 시청 가능했던 방송을 앞으로는 모든 대륙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행문화 확립과 불자 웰라이프 실현 등은 시청자,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비젼들이다. 이를 위해 불교TV는 신행문화캠페인 전개와 명상센터 · 불교아카데미 건립들을 추진한다. 또한 불교TV 자회사 · 산하 기관인 (주)산사애 · (사)도시와 농어촌 ·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 · (사)불국토 상조를 통해 웰빙 · 웰페어 · 웰컬쳐 · 웰다잉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 대표이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TV가 20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도움이 컸다.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사부대중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삶의 매 순간을 부처님과 함께하도록 불교TV가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중국화진무용극단의 천수관음무를 비롯한 국악인 김영임 씨의 축하공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한 'BTN을 빛낸 108명의 인연'을 한마음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20년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미화 씨를 비롯한 27명의 불자 방송 연예인들에 대한 감사패와 7명의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도 함께 이뤄졌다.

신성민 · 정혜숙 기자

BTN Buddhist True Network

BTN 새 C.I 이니셜을 중심으로 한 워드마크 형태. 불교의식의 도구인 목탁, 합장하는 불자의 모습, 내면의 깨달음 등 불교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니셜 'B'의 형태는 목탁을 그래픽화해 시청자와 BTN, 부처님과 불자의 만남을 상징한다.

코엑스서 사부대중 1천명 운집
각계 "행복 전하는 매체돼 달라"
천수관음무 등 다채로운 공연도

미래 비전 · 15대 과제 제시하고
영어 채널 설립 등 세계화 앞장
불교공동체로 '웰-라이프' 실현

■ BTN의 4대전략목표와 실천과제

불교종합 미디어로의 도약	불교전문라디오 개국 스마트방송시대 선도 HD 영상포교시대 선도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	불교영어채널설립 불교문화유산 UHD 기록 보존 및 홍보 세계 주요국에 BTN방송 송출 확대 세계불교국가 방송과의 협력 강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행문화 확립	신행문화캠페인 전개 젊은 층 포교 선도 명상센터 건립 불교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불자공동체로 웰라이프 실현	(주)산사애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 실현 (사)도시와 농어촌을 통한 도-농 소셜 웰페어 실현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을 통한 웰컬쳐 실현 (사)불국토 상조 서비스를 통한 웰다잉 실현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지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겸
원로위원 석보행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충남종무원장 석청화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법계고시 및 수계산림
법계고시 및 비구계, 비구니계, 사미계, 사미니계, 보살계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법계고시 및 수계산림을 상기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참조하여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시 : 을미년 양력 3월 21일(토요일) 오후 2시
- ■ 지참물 : 가사,장삼 (준비관계로 수계자는 3월20일까지 접수바람)
- ■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파라미타 활동 생활기록부에 적용된다

파라미타와 21개 단체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선정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 단체로 선정돼 파라미타 청소년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미타는 "올해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선정됐다"며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파라미타의 등재는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청소년단체에 참여한 회원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16개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선정해 대상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회원들의 활동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고 있다.

2015년에 등재된 청소년 단체는 파라미타를 비롯해 기독교청소년협회(CYA),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21개 단체다.

등재단체의 자격요건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지 3년 이상 경과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전국단위의 조직(5개시 · 도 지역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활동이 활발한 단체 △자체법규집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30시간 이상 지도자 훈련과정 직무연수 운영해야한다 △최근 5년간 사교육 조장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함 등 6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파라미타는 "6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등재단체 유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자격유지를 위해 지역별 협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레협, 매주 수요일 정기문화강좌 마련

제27회 연꽃노래잔치 개최, 4월 18일 예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여, 이하 불레협)는 법회 프로그램 개발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정기문화강좌' 를 진행한다.

문화강좌는 주1회 법회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불레협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3월 25일-주의집중법과 새친구 인사놀이 △4월 1일- 부처님 X파일(법구경 전달법 연구) △4월 8일-8상성도 북아트 △4월 15일-의식곡 지도하기, 찬불동요 △4월 22일- 주의집중법, 친목과 단결놀이 등으로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burec@hanmail.net)또는 전화 접수 가능하다.

한편 불레협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찬불가경연대회인 '제27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를 개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꽃노래잔치는 독창과 중창, 합창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은 오는 4월18일, 본선은 5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노래잔치는 독창과 중창(15인 이내)은 자유곡(찬불가) 및 창작찬불가를, 합창(15~20명)은 지정곡과 자유곡 1곡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팀에게는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장상과 장학금, 트로피 등이 수여되는 등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이 수여된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불심 담은 사진 공모전 한번 도전 해볼까

불교사진협회 · 파라미타 · 봉축위,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개최

청소년들이 영상을 통해 불심을 키울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봉축위원회와 한국불교사진협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을 개최한다.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교생활 △사찰에서의 종교활동 및 법회모습 △불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 모습 △파라미타 수련생활 모습 △불교문화재적 가치를 표현한 이미지를 담은 사진을 4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1인 5점 이내로 접수 가능 하며 사진은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 파일 이미지에 한하며 규격미달 사진은 실격 처리한다. 사진 보정은 가능하나 합성사진은 불가하다. 한국불교사진협회(www.buddhaphoto.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4월 중 입상자를 발표하며 시상식은 5월 20일 한국불교사진협회 제20회 회원전 개막식서 시상한다. 시상내역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등 각 1명에게 장학금과 상품을 지원한다. (02) 2266-0302

이나은 기자

사찰도서관서 마음껏 책보고 놀아요

시흥 대각사, 3월 7 · 8일 어린이 '흥부네 책놀이터' 개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각사(주지 원돈)는 3월 7 · 8일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옥탑방과 대각사 경내에 '흥부네 책놀이터' 본점과 1호점 개원식을 가졌다.

산중 사찰이 도심으로 내려와 침체기에 있는 지역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각사(주지 원돈)는 3월 7 · 8일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옥탑방과 대각사 경내에 '흥부네 책놀이터' 본점과 1호점 개원식을 가졌다.

7일 개원식에는 대각사 주지 원돈 스님을 비롯해 부산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중앙승가대 재마 스님, 꿈이 있는 교회 김제언 목사, 시흥시 시의회 박선옥 부의장,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이규선 회장,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 김경숙 사무처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고불식과 함께 오프닝 연주, 경과보고 및 인사말,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원돈 스님은 "대각사는 산중에 위치해 기도 수행처로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오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며 "정왕동 다세대 주택 단지 내 옥탑방, 대각사 도량 내에 책놀이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요즘 '성장' 이라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에게는 성장을 위해 달리는 공간이 아닌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 원돈 스님이 마련한 책놀이터가 아이들과 지역민들에게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왕동 옥탑방 · 대각사 경내 개원
도서 2500권 보유, 봉사자 모집 중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것"

지난 해 9월 불자 박미경 씨로부터 정왕동 옥탑방을 소개받은 원돈 스님은 보리출판사 직원들과 의논 후 작은 도서관 마련을 발원했다. 이후 옥탑방을 계약한 스님은 어린이 도서관의 원만 개원을 발원하며 100일 동안 매일 300배 기도를 시작했다.

원돈 스님은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되길 발원하며 매일 기도를 했다. 덕분인지 보리출판사를 비롯해 소식을 들은 불자 개개인이 책을 기증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흥부네 책놀이터 1호점은 30평 규모로 어린이 도서 12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6시 이용 가능하며, 대각사 혜조 스님과 봉사자들이 상주할 계획이다. 대각사 내에 마련된 책놀이터 본점은 25평 규모의 공간에 13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된다.

원돈 스님은 "매일 아이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스님과 차도 마시는 상상을 한다"며 "흥부네 책 놀이터가 아이들이 자라 먼 훗날 행복한 추억 속 한 장면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 도서관 개원에는 이웃 종교의 격려가 이어져 종교가 화합된 모습으로 지역포교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흥 꿈이 있는 교회 김제언 목사는 7일 개원식에 참석해 직접 기타를 치며 축가를 불러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 목사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원하는 걸 챙겨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통이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원돈 스님이 마을로 내려온 것에 대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실 '흥부네 책놀이터' 에는 아직 그렇다할 계획이 없다. 원돈 스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꾸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원돈 스님은 "어린이들이 사랑방 같은 공간에 모여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게 뭐니' 라고 묻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나가고 싶다"며 "혜조 스님과 함께 정일품(정왕1동 정이 가는 마을 만들기)모임에 가입했다. 매주 모여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책 놀이터가 마을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498-607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불련, 새학기 신입 회원 모집 '박차'

3월 3일부터 한달간 전국 40여개 지회 홍보활동 전개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와 연합해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대불련)가 새학기 개강을 맞아 신입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와 연합해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번 동아리 홍보전을 위한 불교학생회 연합은 올해 대불련 53년차의 모토인 '꽃다발 든 대불련, 연합하는 대불련' 의 기치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대불련 이채은 회장은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이 침체돼 있다고들 하지만 이번 대불련 모토에 걸맞게 활동하기 위해 지난 2월 7~8일 캠퍼스 포교 워크샵을 시행했다"며 "홍보 기간 동안 신입회원들을 위한 포교물품으로 대불련 홍보 포스터와 대불련 활동이 들어간 노트, L자 파일, 체험형 포교물품(지화물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련 중앙회와 서울지부 소속 회원들은 '서강대 동아리 거리제' 에서 서강대 불교학생회(회장 김동현) '혜명' 홍보활동을 위해 부스에 찾아오는 신입생들에게 대불련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함께 단주를 나눠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혜명 전체 회원은 15명으로 다른 지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주 월요일 법회를 열며 연중행사로 템플스테이, 다과회, 등산, 불교산하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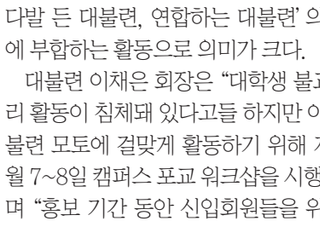
서강대 불교동아리 김동현 회장(서강대 중국문학과 11학번)은 "어제부터 동아리 홍보활동을 했는데, 오늘 서울지부 학생들이 연합해서 홍보를 도와주니 어제보다 홍보가 더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 산하에 있는 가톨릭대, 고려대, 광주대, 대전대, 동국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전국 40여개 지회는 3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캠퍼스 포교 ·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대불련은 3월20~22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내기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2015학번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 불교와 불교학생회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수계사로 한 수계법회를 비롯해 108배, 참선, 소리명상, 예불, 포행, 울력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신심을 키운다. 이나은 기자

공 고

사단법인 경제어산 전승보존회에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원명 큰스님께서 수륙재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에 수륙재를 공부하고자 하는 초학자와 영산을 배우신 스님들께서는 법석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1 초학자는 교육을 통하여 심화학습을 합니다.

2 영산재를 익힌 분들은 시연을 통한 재의식을 강의합니다.

※ 연락처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전화문의 : 02-2658-3100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사단법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원명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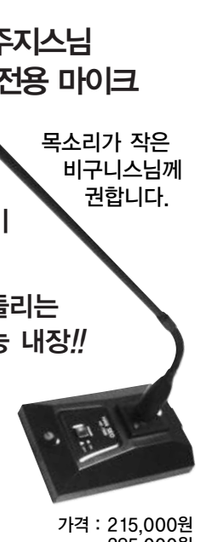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어르신 '경륜' 살려 지역사회 파수꾼 양성

2015 복지관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매월30~36시간 활동에 2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같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규모를 종전 28만명에서 34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참가자수도 늘었을 뿐 아니라 사업내용역시 재능나눔, 사회공헌형까지 풍성해졌다.

이에 따라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노노케어 참가자 5명에서 올해는 50명으로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관심이 필요한 홀몸노인, 경증치매노인, 조손가구 등 취약계층노인의 안부를 또래 어르신들이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50명의 어르신들은 각기 2인 1조로 구성돼 주당 2~3회씩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방문,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상태를 점검한다. 1조당 3~4명의 어르신들을 담당하게 된다. 일일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복지사들의 업무 한계도 메워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역시 자신을 보살펴주는 새 이웃이 생긴 것 같다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는 사업이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지난해 노인일자리참여자수가 300명 남짓이었지만 올해는 40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 있다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어르신들이 나서는 것.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내용을 변경했다. '시니어수호천사' 소속 어르신 20명은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학대 근절을 위한 서명 홍보활동 등을 하게 된다. 향후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대개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북한산둘레길지킴이 사업 참가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숲 생태체험을 나오면 일일 교사가 되기도 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1·3세대 통합프로그램으로도 자리매김중이다. 사진은 2011년 사업 당시 모습이다.

28만명→34만명으로 참가 인원 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문화재지킴이 등
사회공헌형·재능나눔형으로 확대

참여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그린라이프 퀵실버'는 70명의 어르신들이 천연비누, 수세미 등을 직접 제작해 복지관 토요 벼룩시장이 열릴 때마다 판매에 나선다. 판매 수익금은 전체 참가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나눈다. 지난해 한 분기 동안 올린 수익은 3백만원 가량. 보통 지역 단체 등에서 대량주문을 많이 한다. 올해 복지관은 판매처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수가 564명으로 지난해 527명보다 약 40명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부문은 북한산둘레길지킴이사업이었다. 산·자연과 친숙한 어르신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는, 부동의 근무 희망처 1순위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생태환경과 자연·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는 북한산둘레길지킴이 사업은 북한산 근처에 위치한 복지관의 이점을 살려 기획됐다. 지킴이 어르신들은 북한산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방안전교육, 북한산 해설, 생태환경 해설 등의 교육을 이수받고 탐방객들에게 이를 오롯이 전달해주며 북한산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또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교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일일 숲 유치원' 교사가 되는 등 아이들과 숲 생태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물 활용 놀이방법을 일러주기도 한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문선) 역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양팔경, 영춘향교, 수양개 등 문화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관광지에 대해 소개하며 직접 탐방객들을 이끄는 향토 역사가이드가 된다.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수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585명. 단양군 내 만 65~80세(6370명) 노인 10.8명 당 1명 수준이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의 고은영 사회복지사는 "지역실정에 맞는 단위사업 구성과 각 기관과의 연계협조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자존감 역시 높일 수 있다"고 사업의의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보육원 전전… 선천성 담도폐쇄증 앓는 이가온 군

생명나눔, 3월환자 선정… 탤런트 이세창씨 1천만원 기부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서는 3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이가온(남, 3세)〈사진〉 군을 선정했다. 이 군은 태어나자마자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열흘만에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진단받고 생후 4개월 되던 때 작은 몸으로 담도 복원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간기능 이상과 복수, 쓸개염, 비장종대 등의 증세로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통증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기적적으로 같은 나이의 뇌사자 아이에게 간을 이식받게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군은 현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각종 검진과 함께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의 병이 완치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 5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며 환아를 지속적으로 돌봐 줄 보육원이 없는 상태며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군은 힘든 치료를 받을 때도 숨죽여 눈물만 흘린다.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 오히려 눈물을 닦아준다.

생명나눔은 가온이가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고 힘들 때 소리내어 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이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후 원 계 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와 함께 지난 3월 10일 탤런트 이세창씨가 부대표로 있는 코스메틱 기업 뷰티시그널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천4백만원의 환자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씨는 직접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1월 치료비 지원환자로 선정됐던 김채연 양(18)에게 1천여만원의 지원금을 기부했다.

김 양은 4년 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백혈병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만 지내고 있다.

이 씨는 김 양의 사연을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의 모금서비스 '희망해'를 통해 접한 후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



이 씨는 "김채연 환자가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여느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치료비를 전달하러 오는 내내 흡족한 마음이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기후변화시대 대처 방법은?

ACCE, 3월 20일 기후변화회의 개최 앞두고 세미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로터스월드를 필두로 국내 종교·환경·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아시아시민사회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이하 ACCE 한국조직위)가 3월 20일 오후 7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1차 사전세미나를 개최한다.

ACCE 한국조직위는 오는 4월 국내에서의 아시아시민사회 간 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1차 사전세미나에서는 전환마을 은평활동가 소란 씨가 영국 토트네스와 서울 은평구를 사례로 들며 전환마을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6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전환마을 운동은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에 대한 공동체 대안을 함께 만들자는 삶의 전환운동이다.

이어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민경주 세계생태마을네트워크 한국대표가 선애빌 사례를 통해 생태마을공동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애빌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2011년부터 거주하는 생태마을공동체로 국내에는 충주, 보은, 고흥, 영암등 6개, 해외에는 미국과 남아공에 각각 1개가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 등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은 (사)푸른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CCE 한국조직위는 세계 종교간 기후와 생태네트워크의 한국 내 네트워크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피스빌리지네트워크 등 12개 단체다. (070)8798-7931

배현진 기자

아름다운동행, 평창 꿈나무에 1천만원 지원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스노보드 선수들에게 지원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권이준, 이민식, 정유림, 정해림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기금은 호산 스님이 8백만원과 아름다운동행이 2백만원을 지원해 조성됐으며, 향후 선수들 훈련비로 쓰일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희망을 갖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다"며 "스노우보드 선수들이 피나는 연습으로 정진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호산 스님 원력으로 시작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포교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스노보드 선수들에게 3월 9일 지원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배현진 기자

어르신 여가활동·건강관리는 탁구장서

은평노인복지관, 3월 10일 탁구장 신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에 탁구장이 신설됐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10일 복지관 신관에서 탁구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탁구장은 서울시 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자부담으로 2월말 신관에 완공됐다. 기존 복지관 탁구장에서 신관 신축 탁구장으로 이전되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탁구장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미여가 활동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3월 10일 은평노인복지관에서는 탁구장 준공기념 어르신 친선탁구대회가 열렸다.

한편 이날 열린 준공식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간 친선탁구대회(복식)도 열렸다. (02)385-1351

배현진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⑴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⑵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개강일시 : 2015년 4월 7일(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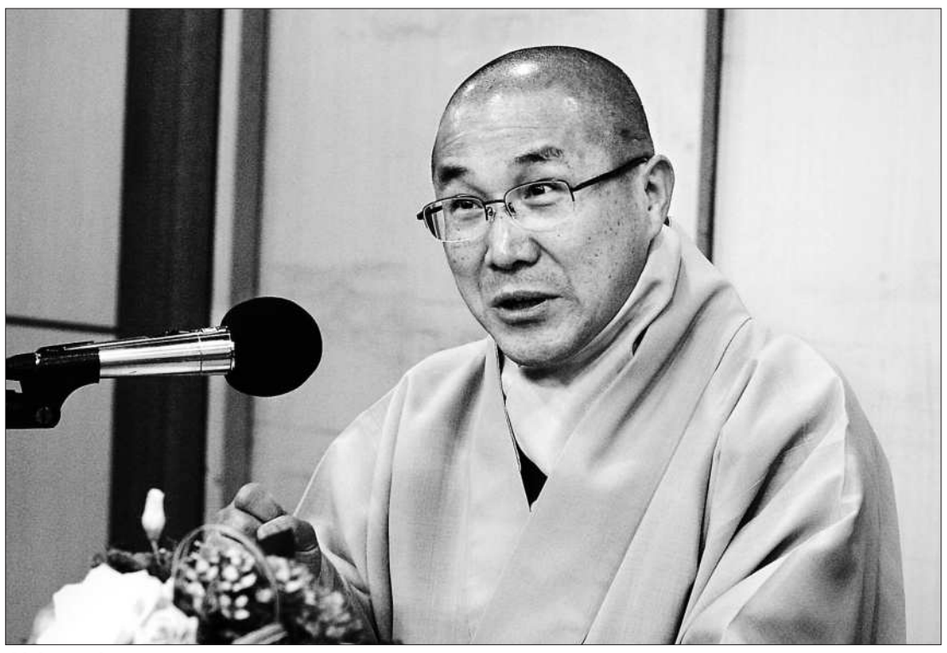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내 마음은 원각…마음 안에 세상 행복 담겨”

원각경 특강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원순 스님은 부산 묘광선원에서 ‘The 열린 불교 아카데미’를 4월 20일 개최하고 〈원각경〉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원순 스님은 3월 6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원각경 특강을 마련했다. 원순 스님은 원각경에 대해 화엄경의 축소판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이 모아진 수행 원리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보살의 명호에 따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학적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원순 스님은 …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서울 열린선원에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으며 스님들을 위한 공부모임인 경전연구회에서 ‘명추회요’ 강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을 바로 봅시다(명추회요)〉, 〈禪스승의 편지(대혜 서장)〉, 〈한글원각경〉, 〈선요〉, 〈도서〉, 〈연꽃법화경〉, 〈선가귀감〉, 〈금강경오가해설의 6권〉을 비롯해 선가귀감을 강설한 〈선 수행의 길잡이〉,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등이 있다.

〈원각경〉을 함허 스님(涵虛, 1376~1433)은 〈화엄경〉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각경〉이란 것이 선서입니다. 선서라 이야기 할 때 선이란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 원각(圓覺)이란 말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영원하고 행복한 마음이며 중생의 병을 치유하고자하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장엄하게 설명한 경전입니다. 함허 스님이 〈원각경〉을 읽어보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화엄경〉 80권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다. 〈화엄경〉과 다른 점은 간결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작지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행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요즘은 명상단체 및 수행 단체 간화선, 위빠사나, 혹은 자비수관 명상 등 다양한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의 종류가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수행의 원리를 알면 수행법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원리를 모르면 많은 수행법 중 인연 닿는대로 선택하게 되는데 인연이 잘 맞으면 괜찮으나 실패하면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원각경〉에는 그 많은 수행법을 정리해서 3가지 수행법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사마타, 위빠사나, 선나관입니다.

사마타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사념으로 봅니다. 위빠사나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원각경에서는 위빠사나를 삼바발제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통찰이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선나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위빠사나이냐 사마타냐 동시에 일어나는 선나관이냐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세 가지 관법을 적절히 섞어서 수행 방법을 늘리면 25가지의 수행법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수행은 모으게 되면 사마타와 위빠사나, 선나관으로 나뉘는데 선나관도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개로 이뤄지므로 수행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원각경〉의 원 제목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입니다.

〈원각경〉과 아울러 〈화엄경〉을 보면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합니다. ‘클 대(大)’ 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圓)이란 완성, 각(覺)은 깨달음입니다. 대방광(大方廣)은 원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원각은 부처님 마음이며 중생의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함허 스님은 30페이지에 걸쳐 제목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원각입니다. 원각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 설명 위해 12보살이 등장합니다.

1. 문수(文殊)보살장– 인지법행(因地法行)–대다라니문(大陀羅尼門)이 있어 원각(圓覺)이라 하니,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밀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문수보살이 등장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원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있으니 문수보살은 공부가 끝났으며 사실 깨달으신 분입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 원각임을 사실을 확신하고 올바른 선정에 들어가면 삼매에 들어간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2. 보현(普賢)보살장– 인지법행(因地法行) 그대로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환(幻)을 여의면 각(覺)으로서 수행점차가 없다

보현보살의 등장은 보현행, 곧 실천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행을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3. 보안(普眼)보살장– 환(幻) 같은 세상의 실상(實相)을 알고 환(幻)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여기서 부처님의 세상을 본다

보안이란 것은 온 세상을 두루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보안 보살은 이 세상을 두루 보고 알아 이 세상 모든 경계가 무상하다는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쉼 없이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집착은 사라집니다.

사실 문수보살장, 보현보살장에서 끝이 나도 됩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성불한 마음 자리에서 보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모든 중생이 성불이 있건만 자기 생각과 번뇌 망상에 덮여 그 근본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하니 여러분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와 닿지요? 중생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처님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중생은 듣고도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을 풀어줘야 합니다. 의심을 꺾어줘야 합니다.

4. 금강장(金剛藏)보살장– ‘여시아문(如是我聞)’ 여래의 인지법행(因地法行) 청정 원각을 문수장에서 드러내고, 인지법행의 수행점차를 보현장에서 이야기하며, 보안장에서는 세상을 환같이 보라. 그러나 중생은 자신이 원각(圓覺)이며 부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이 부처라면 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의심을 하며, 중생의 살림살이가 엄연한 현실인데도 세상을 환(幻)같이 보라고 하니 중생으로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원각인데도, 이를 모르고 의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 – 전의성신(轉疑成信)

〈원각경〉은 〈화엄경〉의 축소판
부처님 마음과 수행요지 설명
사마타 · 위빠사나 · 선나관 수행 정리
함허 스님 설명한 12보살행 실천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의심을 꺾어주기 위해 힘이 센 금강보살이 등장 합니다. 모든 것을 꺾어 낼 수 있는 보살님입니다. 의심을 타파해줍니다.

4장을 보게 되면 문수, 보현, 보안 보살장을 읽고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을 풀어줘도 중생심이 일어납니다. 중생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애욕이 있어서입니다.

5. 미륵(彌勒)보살장– 전애성자(轉愛成慈)

미륵보살은 애욕심으로 인해 중생이 윤회하는 근본을 자비로 끊어주는 일을 합니다. 미륵보살은 중생심을 바꾸어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6. 청정혜(淸淨慧)보살장– 이승성, 보살성, 불성, 부정성, 외도성– 전치성혜(轉癡成慧)

어리석은 중생의 중생심을 위해 등장하는 청정혜 보살입니다.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기 위해 그 힘을 가진 보살입니다. 청정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청정혜보살은 부처님의 화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비심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 성질이 납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마음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상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힘이 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수행입니다. 순간순간 쓰는 내 마음이 중생심인지 부처님 마음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7. 위덕자재(威德自在)보살장– 위엄과 덕은 지혜와 자비를 갖출 때 생겨나기에 사마타 정관(靜觀), 삼마발제 환관(幻觀), 정관과 환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나 적관(寂觀)의 힘을 갖추어야 한다– 전진성위(轉瞋成威)

깨어있기 위해서는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를 해야 합니다. 선나관을 해야 합니다. 간화선, 화두선도 사마타의 일종입니다. 위빠사나란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집중하고 그 흐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자체를 관찰하고 그 실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같은 것입니다. 원래 마음 수행이란 것을 할 때 분별심을 버리고 집중된 마음을 통해 있는 사물을 그대로 직시해서 아는 힘을 말합니다.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한 몸이었습니다. 사마타 수행이 더 훌륭하다 위빠사나 수행만 옳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함께 수행하는 것을 선나관이라 합니다. 수행자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면 됩니다. 침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니 위빠사나가 적절합니다. 사물을 보면 생각이 번잡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마음을 지그시 누르는 사마타가 어울립니다.

화가 나는 순간을 수행을 통해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엄과 덕을 함께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성내는 그 마음을 수행을 통해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화를 꺾으려면 마음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어있고 깨어있음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수행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장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8. 변음(辨音)보살장–수심결의 수상정혜는 변음보살장에서 삼관을 스물다섯 가지 수행법으로 나누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수행시키려는 의도와 같다

변음보살장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는 장입니다. 소리를 분별해서 중생의 인연에 따라 25가지 수행으로 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대체적으로 끝까지 처음 선택한 수행법을 진행하지 않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수행법이 무엇인지 모르니 더 많은 수행법을 벌여놓고 이 절 갔다 저 절에 갔다가 합니다. 헛생각과 망상이 많아서입니다. 확장해서 근기에 맞게 가르쳐 주는 보살이 변음보살장입니다.

9. 정제업장(淨諸業障)보살장– 미세한 업장을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라고 표현한다

공부가 완성이 되면 보살 중에 보살이 됩니다. 보살이 되었지만 아주 미세한 망념을 억제하고 떨구어 줘야 합니다. 정제업장보살은 모든 업을 소멸합니다.

10. 보각(普覺)보살장– 말세의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으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의 도움으로 중생이 작(作), 지(止), 임(任), 멸(滅)의 병을 벗어나게 한다

보각 보살장은 두루두루 모든 중생을 깨우쳐 주는 보살입니다. 보각 보살은 자기 수행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11. 원각(圓覺)보살장–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결단코 마지막 업장을 참회하고, 위덕 보살장에서 나온 삼관(三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마음을 참구하는 관법(觀法) 가운데에 나타나는 좋은 경계를 체득하라고 한다

원각 보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원각은 자기 수행과 일체중생의 성불이 완성된 자리를 말합니다. 자각각타(自覺覺他)가 완성되는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중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용맹정진하라고 이 장에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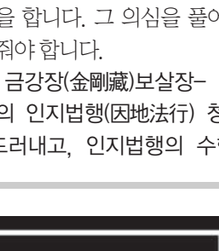
12. 현선수(賢善首)– 원각경이 화엄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골수는 바로 자기 마음이 원각(圓覺)이며, 이 원각의 세상에 행복한 이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 이를 세상에 앞장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질고 선하고 지혜로운 선한 마음을 가진 으뜸가는 보살, 현선수 보살이 마지막에 등장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화제의 책
神이 내려주신 선물
손과 얼굴보는 법

손과 얼굴은 운명을 결정 한다.
가장 쉽고 정통으로 알고 싶지 않은가?

♣ 타고난 인상이란 그 사람의 자체이며 정보가 된다. 그래서 손과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므로 현대인들에게 관상술은 성공의 비즈니스라 하였다.
♣ 리더는 반듯이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고, 상대방까지 알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먼저 좋아진다. 그래서 인상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다.
♣ 이 책은 손과 얼굴을 좀더 많이 알게 한다. 당신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 “손과 얼굴 보는 법”은 인상학을 정통으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손과 얼굴은 대박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사륙반판 / 양장본 / 312쪽 / 정가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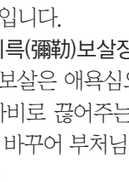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신록이 움트는 봄, 학술경연의 장 펼쳐진다

불교 역할과 미래 모색 · 승가복지 등 '다채'

추운 겨울이 가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왔다. 겨우내 움츠린 몸과 마음을 활짝 펴는 봄기운에 맞춰 불교학계도 차근히 준비해 온 학술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봄 학술세미나는 특히 학자들이 겨울방학동안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학계의 이슈가 되는 사안이 제기되곤 한다. 치열한 논쟁을 통한 불교학 발전의 한 면모를 엿볼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중 불교주요학회들은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불교 역할에 대한 학술의 장을 대거 마련했따.

먼저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5월 30일 여는 제10차 집중세미나 '불교의 전래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은 불교의 전래 이후 한국인들의 국가관, 윤리관, 생사관, 예술관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윤세원 인천대 윤리교육과 교수의 '불교가 한국인의 국가관에 미친 영향' △남무희 국민대 강사의 '윤리관에 미친 영향' △고영섭 소장의 '생사관에 끼친 영향'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교수의 '예술관에 끼친 영향' 등을 통해 이러한 불교관이 어떻게 기능해오고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지를 살피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지식인들의 활동을 살피는 자리도 열린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하는 '불교지성의 현대사회 위상 모색' 학술대회는 근현대사에서의 불교지식인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 역할을 주문하는 자리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불교 지성의 전통과 역사' 와 △안경식 부산대 교수의 '교육 공간과 지성의 모범으로서 사원과 고승' ,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 동아시아불교의 지상과 사회 개혁' △명법스님의 '불교지성의 시대적 과제와 현대적 모색' 등이 진행된다.

반야연구원 원장 지안 스님은 "불교계의 논란으로 그동안 지성의 산실이었던 불교의 위상이 흔들이는 모습이 안타깝게 생각해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인문학 분야까지 토론의 장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원탄준)도 백련문화재단과 함께 근대불교학의 수용과정에서 성철 스님의 역할과 근대불교학의 발전상을 살펴본다. 6월 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 최원섭 금강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교수, 박태원 울산대 교수, 성본 스님 등이 나서 세속사회에서 선사들의 모습과 불교발전방향을 논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매년 봄에 개최하는 봄논문발표회는 주로 소장학자들이 나서 학계에 새로운 시작이 섞인 신선한 불교학 이론과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곳이다. 3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관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재해석' 을 주제로 여는 이번 봄논문발표회에는 △이승혜 삼성리움박물관 학예사의 '고려 보협인다라니경의 수용과 함의' △김지연 동국대 박사의 '석마하연론의 성립시기에 대한 고찰'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관음현의의 여래성악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발표된다. 여기서 이승혜 학예사는 10세기경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다라니경전인 '보협인다라니경' 의 유통과정에 석인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학구조와 고려 특유의 다라니신앙을 조명한다.

근대 불교지식인 활동 재조명
불교학 발전에 선사들 기여 주목
승려복지체제 개선 위한 세미나도

선원 수좌 스님의 복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세미나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 불자들이 알지 못했던 선원수좌 스님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짚는 자리다.

선원수좌복지회는 2012년 법인 출범 이후 2014년 복지현황 조사자료를 공개하는 등 복지체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5월 9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수좌스님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복지체계' 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수좌 스님들의 삶과 복지체계의 회향' △박수호 지식문화연구소 소장의 '수좌스님들의 일상생활과 복지수요' △중앙승가대 혜도 스님의 '이웃종교 수행자들의 복지체계'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해외 승가 노후복지 사례연구'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계 상반기 학술행사 일정

단체명	주 제	일 시	장 소
한국미술사학회	제108회 월례학술발표회	3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보조사상연구원	110회 정기 월례발표회	3월 21일	서울 법련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3월 26~31일	부여 롯데리조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HK심포지엄 '테마로 본 한국불교문화'	3월 27일	건국대
고구려발해학회	북국 발해 인문과 기술의 만남	3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불교학연구회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재해석	3월 28일	동국대 만해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화엄사상과 현대예술	3월 28일	부산대 대강당
인도철학회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불광연구원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미래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신라사학회	144회 학술발표회 신라 왕경의 범위와 사부	4월 18일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
대각사상연구원	용성과 한암, 그 지성의 원류를 찾아서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선학회	춘계학술 선불교 총론 철학 문학 수행	4월 25일	연세대 외솔관 101호
중앙승가대 대학원	승가대 원우회 춘계학술특강	4월 중	장소 미정
불광연구원	공유사회와 불교의 역할	5월 2일	서울 잠실 불광교육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현대사회 불교지성	5월 3일	통도사 반야암
정토학회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생전예수재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선원수좌복지회	수좌스님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복지체계	5월 9일	동국대 중강당
일본불교문화학회	근대일본불교연구의 쟁점	5월 9일	원광대 교학대학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 · 박사 논문발표회	5월 18일	중앙승가대 세미나실
화엄사상연구원	화엄사상과 의상	5월 둘째주 토요일	영주 부석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 '불교와 뇌과학'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불교사연구소	불교의 전래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	5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한국불교학회	퇴옹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 한국사회	6월 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체제와 내용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천태불교문화연구원	3국 천태종 총본산 개산과 수행종풍	6월 19일	구인사 광명전
동악미술사학회	장충식 교수 10주기 추모학술대회	6월 2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불화와 불교의례	6월 20일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대승기신론관	6월 19~20일	장소 미정

〈한국불교학〉 74집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한국불교학〉 72집 게재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마감은 4월 15일까지로 학회지에 수록될 투고 논문은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지위, 연락처 등을 명기해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회(hanbulhak@ daum.net)로 보내면 된다.

〈불교학리뷰〉 17호 원고 모집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는 6월 30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리뷰〉 17집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논문(인도학 · 중국학 · 티벳학 등), 서평, 연구사 및 연구현황, 역주, 번역, 참관기로 미발표 원고에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5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경주 창림사지 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67호로 지정했다. 석탑이 위치한 창림사 통일신라 고찰로 추정된다. 석탑 조성시기는 추사 김정희의 '무구정탑원기(無垢淨塔願記)' 를 근거로 신라 문성왕 때(855년)로 보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

2015년 종립대학 상반기 박사 논문 살펴보니


지환 스님


미수 스님


정관 스님


태고 스님


사라라다나 스님


박기열


임병화


정진원


조법훈


조수연

2015년 상반기 불교박사들이 18명 탄생했다. 동국대가 7명의 불교관련 박사를 배출한데 이어 위덕대 6명, 중앙승가대 3명, 동방문화대학원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상반기에도 불교교리, 복지, 응용불교, 미술,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공개됐다.

가장 먼저 현실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 논문들이 대거 선보였다.

동국대 미수 스님의 '승려복지 행정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분석' 은 스님들이 노후복지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으로 스님은 세납 20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승려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수행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나가기 위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승가대 정관 스님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노년기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녹여낸 논문이다. 스님은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자아통합감이 높아지며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태고 스님 또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행복에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구조분석' 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활재활교사의 행복의 요인을 분석하고 교사들의 행복감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위덕대 김신곤 박사는 '유식의 심소대치와 인지치료의 상보성 연구' 를 통해 유식학의 인지치료 적용에 대해 유식 수행의 감정과 정서 기억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인지치료의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응용불교 분야에서의 논문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 정진원 박사는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연구' 를 통해 한류문화발전에 삼국유사가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동국대 조법훈 박사의 '업설에서의 행위와 동기-형법의 부작위와 과실을 중심으로' 는 과실로 인한 범법행위에서 업의 작용에 대해 해명하며 업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실었다.

위덕대 시라라다나 스님의 '팔리율장의 비구 십삽승잔법에 대한 연구' 는 승단 내 바라이죄 외 경범죄에 관한 율장의 참회법을 다뤘으며 참회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수행과 포교분야에서는 동국대 정완 스님의 '고승전의 신이담(神異譚) 연구' 가 있다. 스님은 중국 초기불교사 자료인 고승전에 '신이(神異)' 로 표현된 종교현상을 분석했다. 스님은 불교의 전개과정에서 기적같은 현상이 사람들을 불교로 이끈 중요한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위덕대 강대현 박사의 '안연의 〈실담장〉에 나타난 동아시아 불교가의 실담에 관한 연구' , 위덕대 홍승경 박사의 '유가행 전의의 전개와 수행오위 체계의 형성' , 위덕대 오태봉 박사의 '밀교 오불사상 형성과 실천수행법 연구' 등도 박사논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근현대 불교사연구와 인물연구도 활발히 이뤄졌다. 중앙승가대 지환 스님은 '운허용하의 탁상일기 연구' 를 통해 운허 스님의 삶을 드러냈다. 스님은 운허 스님의 모습을 승려와 교육자, 또 불교대중활동가로서 입체적으로 조명해냈다.

또 동방문화대학원대 임병화 박사는 '청담순호의 선사상 연구' 를 통해 청담 스님의 근현대불교 중흥의 모습을 담아냈다. 동국대 박기열 박사의 '지넨드라붓디의 현량론(現量論) 연구' 는 인도 불교인식논리학의 중요인물인 논사 지넨드라붓디에 대해 산스크리트 교정본인 PST 제1장 '현량' 에 나타난 지넨드라붓디의 주석을 기반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쿠마리 쁘리앙카 박사의 '현대 인도의 신불교 운동 연구' 는 인도의 암데드카르의 개종운동을 비롯한 불교부흥운동을 주목했다. 불교미술분야에서는 홍익대 이용윤 박사의 '조선후기 영남의 불화와 승려문중 연구' 와 위덕대 조금자 박사의 '연화좌의 상징유형과 대승신앙의 내재적 의미' , 동국대 조수연 박사의 '고려시대 수월관음보살도 도상 연구' 등이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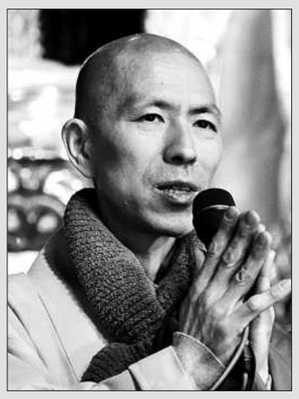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0년 쇠락 딛고 대표 포교도량 발돋움 한다

광주 관음사 신임 주지 소궁스님



한때 호남의 대표적 포교도량이었지만 90년대 이후 20년간 쇠락의 길을 걸었던 관음사가 주지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광주의 대표적 도심인 충장로에 위치한 관음사는 지난 3월 8일 주지 소궁 스님〈사진〉 취임 고불식을 갖고 옛 명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심향사 회주 성오 스님,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 녹야원 주지 효공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문도스님 20여명과 송인현 신도회장,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등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취임식은 난타, 판소리 축하공연에 이어 불교의례, 헌화 · 헌향, 고불문 낭독, 주지 직인 전달, 격려사, 축사, 취임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창건 100주년을 맞은 관음사는 지난 1916년 일본인 엔도신가이 스님이 광동사로 창건했다. 해방 후 관음사로 개명하고 석파 스님, 상인 스님이 주석하면서 호남의 대표적 포교와 신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1965년에 전국 최초의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 설립을 시작으로 광주불교청년회, 광주불교학생회, 대학부, 유마거사회 등이 지역 최초로 만들어져 호남지역 불교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1993년 일본식 법당이었던 건물을 오늘날의 4층 규모로 신축해 불교서점, 관음사신협, 유치원과 호남불교대학을 운영했다. 하지만 95년 이후 여러 이유로 사찰이 쇠락의 길을 걸으며, 최근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소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관음사가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고 계신다. 살아가면서 이 공덕을 반드시 갚겠다"며 "법회를 활성화시켜 관음사와 인연있는 불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음사는 교육과 전법, 자비봉사의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천 안은 △교육-백양사불교대학 개학 △기존 폐교된 보문유치원 자리에 평생교육원 유치 △지하 1층에 자비봉사단 설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과 봉사활동 진행 등이다.

스님은 "광주불교의 중심도량 명성을 되찾아 지역불교발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서 오는 3월 21일 개강하는 제1회 백양사광주불교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백양사 강사 스님들의 전문 강의와 수행을 진행하며, 매주 일요법회와 수요정진법회(다라니 33독) 등의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개천사,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로 훼손 우려



화순 개천사와 3월 7일 대웅전에서 '가동저수지 지표 보강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로 천년고찰 개천사와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천년고찰 개천사(주지 보원)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재섭 위원장)는 3월 7일 대웅전에서 신도와 주민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동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책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로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 숲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천사 인근 가동제에서 진행되는 둑 높이기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100억 원을 투입, 올해 4월 착공해 2020년까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둑 높이는 4m, 수위는 3m 높아지고 저수량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개천사 주변 11만8천㎡ 면적에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 천연기념물 제483호인 비자나무 300여주가 자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보원 스님은 "원안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인근 이양면의 쌍봉저수지 공사로 인해 천년 고찰인 쌍봉사 일대가 겪는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문화유산 훼손 사태가 개천사 일대서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천년 넘게 우리 선조들이 가꾸고 지켜온 개천사 일원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후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안이한 대처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치닫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강성준 지사장은 "사업의 목적이 하류지역에 있는 논들에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둑 높이를 낮춰버릴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동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변 문화재 관련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가 있는 500m이내'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전통사찰로 지정된 개천사가 인근에 있어 정확한 문화재보호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지난 11일 인근 문화재 보호와의 관련내용을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동화와 공예로 배우는 한국전통문화



(사)착한벗들이 3월 2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이해교실'을 열었다.

전북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이해교실'을 열었다.

3월 2일~28일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국전통문화를 함께 읽고 토론한 뒤 동화속 내용 중 일부를 소품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월 2일 진행된 첫 수업에는 2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에 대한 내용과 설빔 소품을 만들어보고 각자 자기 나라의 설 풍경을 소개하며 문화적 차이점 등을 함께 이야기 했다.

양은신 사업3팀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출신국가의 전통동화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오는 4월부터 '다꿈틔움 어린이. 청소년 지원센터(가칭)'에서 동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해 동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동화와 공예를 활용한 다문화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캠프 참가자 모집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 이하 '환경연대')가 올해 1박 2일 어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환경연대 부설기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은 오는 3월 23일까지 어린이생태학교 2회, 자따마따 1박2일 5차례 등 총 7차례에서 걸쳐 매회 42명의 전국 초등학생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어린이생태학교는 5월 2일과 7월에 진도 첨찰산 쌍계사, 여수 영취산 흥국사에서 진행하며, 자따마따(자연따라 마음따라)는 3월 28일, 4월 11일, 6월 13일, 9월 19일, 10월 3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실상사, 미황사, 대원사, 쌍계사, 홍법사에서 진행된다. 참가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5만원이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그동안 어린이생태학교 16차례, 자따마따 1박2일 18차례, 해외탐방 프로그램인 선재역사문화탐방 6차례, 리더쉽 함양을 위한 청소년리더쉽캠프 2차례, 지리산을 걷고 지리산을 느끼고 깨닫는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3차례 등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거쳐간 학생은 연간 550여 명에 이른다. 올해는 '새롭게 두발로 가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청소년자전거캠프도 열린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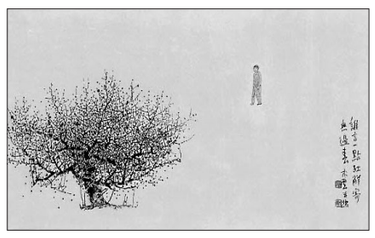
로터스 갤러리 3인 작가 초대전 개최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주지 청학)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이남의 기획〈봄날을 부탁해요〉' 오견규, 한희원, 박태우 3인 초대展을 개최한다.

'봄날을 부탁해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 작가들은 봄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화폭에 담아 선보인다.

3인 작가 중 오견규 작가는 송광사성보박물관등 개인전 7회에 걸친 작가로 동신대 및 남부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한희원 작가는 대동미술상, 전남연극제무대미술상, 원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광주, 전주 등에서 개인전 33회를 진행한 중견작가이다.

박태후 작가는 담양 죽설헌에서 40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그림과 자연을 더불어 살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이남 씨의는 "겨우내 얼어붙은 하얀 캔버스와 매서운 바람에 떨었던 가녀린 화선지에 봄 기운 가득한 작품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정기총회 성료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 오종근, 유지원)는 3월8일 전북생명평화센터법당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 '운영위원회'를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설 사업단체이 확대 · 증설되어 각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논의 틀을 확보,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2014년 사업결산 및 2015년 사업추인의 건이 다뤄졌다. 올해 주력사업으로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후원이사회, 생명평화청년회, 생명평화대학생회 등의 사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한 자연음식문화원과 대안학교 등의 부설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뒤에는 '붓다로 살자 전북모임'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초청해 승묵스님, 운묵 스님 등과 함께 포살법회를 열고 붓다로 살 것을 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스님들에게 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자 법보신문에 향운(김 윤철)스님이 대법원 판결(2011다101155종회의원 선거 무효확인등)에 의하여 종회가 무효이므로 구 종헌종법체제에 의하여 임시종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도들을 현혹하여 분열을 조장하므로 진실를 알려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대법원판결(2011다101155) 2015년 2월 16일자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윤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피고 김윤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김윤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김윤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피고 김윤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91.7.12.선고91다12905판결,대법원2011.2.10.선고2006다65774판결 등 참조

2.종회의원 선출 무효 확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회의원 선출이 무효로 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피고 원효종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 중 안건 통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 7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그 선출에 관한 회의 목적사항을 알려 이 사건 종회에의 참석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및 그 찬반의사 등에 관한 의견을 미리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 그런데 이 사건 종회는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고 안건 결의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에도 종회의원들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 김윤철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선출 결의는 종회의 소집절차 내지 선출절차가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총회 절차에 관한 일반 법리 및 종회법 제17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며, 그 선출에 터잡아 이루어진 총무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론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종회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2009.4. 13.자 종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구 종헌종법상 대표권없는 총무원장)은 무효이며 그 다음 종회에서 종단의 대표권자로 11대 종정 해봉스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임시종정의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봉스님이 종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거나 종회에서의 총무원장중심제로의 종헌종법 개정이 무효라며 향운스님이 여전히 본인이 임시종정이라고까지 주장한다면, 모든 종도가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서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것입니다.

더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되었을 뿐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임시종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종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종회의원 선거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시종정 단독으로는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운스님의 법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이제는 모든 종도를 무시하고서 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우려스러움과 동시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종도여러분께서는 대중의 스승으로서의 스님이 개인적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디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금번 향운스님의 모습을 보시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어 현혹되거나 동조하시는 등 더 이상 향운스님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판결문 전문을 원하시면 총무원으로 연락바람)

공 고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일 시 : **2559(2015)년 5월 16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주시 용담로 79-48 (경주실내 체육관)
◆ 지참물 : 가사 장삼
◆ 문 의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총무원 054)743-0700

2015년 3월 12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 석

출가 의미 되새겨… 정진, 운동, 여행 등

3월 27일~4월 3일 출가 · 열반재일 행사 풍성

3월 27일 출가재일과 4월 3일 열반재일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 각 사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에도 기도 정진 · 법회, 소외이웃을 위한 힐링 여행, 청소년 포교를 위한 유발상좌 수계식, 축구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3월 27일~4월 3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기도를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강경 독송과 108배 기도는 물론 특별 법문도 마련된다. 법문은 △3월 27일 원산 스님(도솔래의상) △3월 28일 성림 스님(비람강생상) △3월 29일 영랑 스님(사문유관상) △3월 30일 우진 스님(유성출가상) △3월 31일 현진 스님(설산수도상) △4월 1일 도문 스님(수하항마상) △4월 2일 법산 스님(녹원전법상) △4월 3일 혜남 스님(쌍림열반상) 등이 강사로 나선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3월 27일 기념법회와 함께 금강경 기도 및 사경을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사시예불에 맞추어 금강경을 독송하며 회향일인 4월 2일에는 완성한 금강경 사경을 점검받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청소년 포교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도 마련된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출가재일을 맞아 강원도 강릉 정동진으로 떠나는 '힐링 기차 여행'을 3월 26일~27일 마련한다. 해돋이와 소망풍선 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저소득문화소외계층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주지 무원 스님은 "나눔으로 출가재일의 뜻을 기리고 해돋이를 보며 부처님 깨달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해 정동진과 무릉계곡 삼화사를 돌아오는 일정으로 무박 2일로 진행된다.

부처님의 출가재일을 축제의 날로 받아들이는 화합의 한마당도 마련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에 마련한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조직위는 3월 29일 부산정보고 운동장에서 '제1회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를 마련한다.

참가팀은 미타선원, 원오사, 감인선원, 불국정사 등이 연합으로 소속되어 있는 축구사랑팀, 삼광사, 사회복지법인불국토,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등이다.

특히 축구사랑팀을 이끌고 있는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그동안 축구사랑팀은 매달 모여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시간은 신심단련뿐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의미를 더욱 강조했으며 더 많은 사찰이 참가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조직위는 부산 불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석 할 수 있는 리그전 경기를 올해 가을시즌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3월 27일 혜원정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한다.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모두 참석 가능하며 이날 참가자들은 법명을 받고 혜원정사 어린이회 및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홍법사**는 출가재일을 맞아 4월 2일 수계식을 봉행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계식은 출가재일의 의미를 강조하며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 각 지역 사찰 및 단체들이 출가 · 열반 재일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출가열반재일 통도사 금강경 독송 장면.

통도사, 금강경 독송 108배 기도

부산불교연합, 불자 친선축구대회

삼광사, 소외이웃 위한 힐링기차여행

출가열반재일 부산경남 행사 (가나다순)

주 최	내 용	전화번호
미타선원	금강경 기도 및 사경	(051)253-8687
부산불교연합회	제1회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051)867-0501
삼광사	소외이웃 위한 힐링 기차 여행	(051)808-7111
통도사	금강경 독송, 108배 기도, 특별법문	(055)382-7182
홍법사	수계식 봉행	(051)508-0345
혜원정사	유발상좌 수계식	(051)866-7771

호국영령 위로하며 국태민안 발원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 제1회 수륙대재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제1회 국태민안 · 영도구민 행복기원 수륙대재'를 3월 11일 국립해양박물관 잔디밭에서 봉행했다. 1부에서는 오륙도가 보이는 바다 앞을 돌며 시련 의식을 행한 후 육법공양 및 개식 선언,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호법 스님의 대재사,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의 봉행사, 정각 스님의 격려사, 내빈들의 축사 및 영도 태종사 도성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2부에서는 혜각 스님과 대범 스님이 집전한 수륙재가 봉행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범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어윤태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범산 스님은 "나라를 편안케 하고 해양사업에 종사하는 영도구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 부산불교의 모든 사부대중들과 함께해 기쁜 마음으로 치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호법 스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산화한 호국 영령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또한 인간의 실수로 참혹하게 숨진 넋들의 억울함을 부처님의 가피로 풀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륙대재를 봉행한 뜻을 밝혔다.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은 "수륙대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평성대와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며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영도구불교연합회는 매년마다 수륙대재를 봉행, 국태민안과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는 '제1회 국태민안 · 영도구민 행복기원 수륙대재'를 3월 11일 국립해양박물관 잔디밭에서 봉행했다. 사진은 시련 의식 장면.

김해불교단체연합 · 자비암 등 호국 위령제

시대의 희생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위령제가 김해불교단체연합과 자비암 등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김해불교단체연합회(회장 조유식) (사)김해남산위령대제봉행위원회는 4월 5일 김해 시청 앞 주차장 광장에서 '제3회 김해남산합동위령대제'를 봉행한다.

1부 제례의식, 살풀이, 바라춤 등 다양한 의식이 준비되며 2부 봉행의식 3부 색소폰 연주, 민요 공연, 대중 가요 등으로 문화공연을 마련한다. 4부 특별 출연 5부 회향 의례 망자해원 의식으로 마무리 된다.

회장 조유식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김해양민 1,226명과 사라진 김해남산공동묘지 500여 넋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김해시, 김해시의회가 위령탑 및 추모공원을 조성 명예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동래 자비암(주지 자관)도 4월 10일 위령대제에 이어 지역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갖는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에서 희생된 3000여명을 위로하는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는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대학부 지역 아동 학습 돕는다

부산 홍법사 대학생회가 지역 초·중등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멘토링사업에 나선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두 번에 나눠 수업을 진행하며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및 한국사다.

이번 사업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지도교사로 나서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한다. 홍법사 대학생부 조은아 총무는 " 참가 학생들 모두 불교와 친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과외 교사로 나선 대부분의 멘토교사들은 과외 활동 경력이 있어 학생들 지도에는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학습지도는 물론 고민상담 진행, 영화 및 공연 관람, 소풍 등 야외문화체험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 11주년 기념 법회

창립기념 법회 및 김순희 6대 회장 이취임식

재난 재해 지역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는 3월 10일 부산적십자회관 8층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법회 및 김순희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창립 11 주년 기념법회에는 대광명사 목종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및 박추자 고문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목종 스님은 "회원들은 마음을 더 크게 가져 모든 아귀계, 지옥계 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비 보살들이 되어 자비행을 실천해야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박추자 고문의 경과 보고, 배운자 5대 회장 공로패 수여, 전옥자 회원 표창장 수여식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 회기를 전달 받은 6대 김순희 회장은 "젊은 회원 유치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고운사 화엄승가대 현판식 및 개원식

3월 9일 사부대중 300여 명 참석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현판 제막식 및 개원식이 3월 9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각성 스님, 회주 혜승 스님, 주지 호성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경상북도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호성 스님은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강원 터에 화엄승가대학원 개원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승가대학원이 운수암이라는 현판을 걸고 의상대사 화엄사상의 맥을 이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개원을 발판 삼아 고운사가 총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원사를 전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다. 선체험관 법성게 목판,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원조도서관, 화엄전, 비로전, 보현전, 문수전 등의 현판 글씨를 제작한 이승호 교수와 서각을 맡은 김기철 작가 등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고운사는 3월 9일~13일 화엄승가대대학원장 각성 스님 초청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현판 제막식



禪
한국불교
선원 70년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아이콘'

한국불교에서 '선(禪)'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크다. 특히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선종(禪宗)'을 표방하며 종지 역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으로 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선법이 전해진 것은 도의선사가 821년(신라 헌덕왕 13년) 중국 선종 제6조 조계혜능의 선을 계승한 서당지장(738~817)의 인가를 받아 오면서 각 지역에 선문(禪門) 개설되고 그 뿌리를 내리게 됐다. 고려시대에는 지눌 스님(1158~1210)이 대혜 스님(1089~1163)이 제창한 간화선을 도입하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정혜결사를 전개하면서 간화선을 수행체계로 삼았다. 이후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 수행과 문화의 전통은 한국불교의 '아이콘'으로 오롯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월정사 만월선원에 동안거 방부를 들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다. 안거 수행이라는 불교 전통을 한국불교는 오롯이 지켜내고 있다.

격량의 근현대… 선원의 중흥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 안에서도 간화선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다만, 당시 선원의 수행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선원에서 수좌들이 정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근대 자료를 통해 선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1935년 〈선원〉지에는 22곳의 선원에서 368명의 수좌가 정진했고, 1942년에는 68곳의 선원에서 하안거 대중이 505명, 동안거 대중이 340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해방 공간부터 1960년대까지 불교는 6.25 한국전쟁과 정화운동이라는 시대의 격랑을 맞이하게 된다. 6.25 한국전쟁으로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찰 경제에는 피폐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작된 정화불사는 불교계는 비구-대처 갈등으로 접어들었다. 선원의 기록인 '방함록'도 제대로 발간되지 못했다.

하지만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승려교육을 통한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히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 선림회의 발족이다. 〈대한불교〉1967년 4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선림회는 4월 1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선림회는 총림 운영, 선풍 진작, 조직 운영에 대한 건을 논의했고, 초대회장으로 석암 스님을 추대했다. 또한 선림회는 '순수한 선객들의 모임으로 선사상이 철저한 본분납자로 20~60세의 비구 · 비구니'를 회원 자격으로 뒀다.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선 사상을 배양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납자의 단합을 촉구와 반성, 근신으로 상좌에게 순응하면서 자기 수행을 착실하게 하고 중도적인 길에서 총림을 실현시키자"고 선언하기도 했다.

선림회는 선풍진작을 위해 총림 개설을 추진해 해인총림의 조속한 운영을 주장했고 송광사의 조계총림, 용주사의 중앙 선원의 설립을 추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1967년 동안거부터 수행에 참여한 대중의 명단을 취합해 전국적인 방함록을 발간해 배포했다.(김광식, '방함록에 나타난 근현대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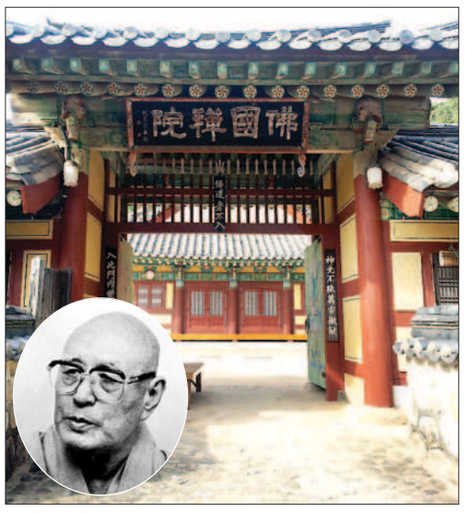
1970년부터는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에서 전국 선원 자료를 모아 방함록을 발행했으며, 1994년 종단 개혁과정에서 전국 수좌회가 결성되면서부터는 수좌회가 방함록 발간을 1996년부터 책임지고 있다.

방함록은 한국 선종사의 단면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이 2000년 발간한 〈선원총람〉과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함록〉 등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현재까지의 안거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선원과 수행의 외연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짐작케 한다.

실제 1980년대는 방내 대중이 700~800명 선이었지만, 1990년대로 넘어가면 방내 정진 대중 수는 1000명을 넘어가며 1990년대 후반에는 1600명 수준에 이른다. 안거 대중 수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1900~2200명이 매년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2014년 동안거에는 2196명이 참여해 겨울 한철을 정진했다.

선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방함록에 나타난 근현대 선원'에 따르면

정화운동 이후 통합종단 출범하며
무문관 개원 등 선수행 열기 확산
불교 전통 안거 문화 그대로 계승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방부 늘어
간화선 대중화 위한 노력도 이어져



불국사 불국선원 입구. 현재 사격은 선원 조실이자 前조계종 총무원장 월산 스님(둥근 사진)에 의해 완성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운문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행 납자가 게으름을 보이자 선원 유나 스님이 장군죽비로 경책하고 있다.

1969년 안거 수행에 임원 선원은 39곳이었고, 1970년대에는 16개 선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전국적으로 42~52개소에 달하기도 했다. 1980년대 선원 추이는 〈선원총람〉를 보면 알 수 있다. 1983년 하안거에는 32곳의 선원에서 정진을 했지만 1990년 하안거에는 선원 56곳에서 정진에 들어갔다. 2000년 무렵에는 70여 곳의 선원에서 안거 정진이 이뤄졌고, 현재는 전국 98개 선원에서 납자들이 안거마다 정진하고 있다.

선원 증가와 불교 발전

근대선원의 최초는 해인사 퇴설선원으로 1899년 11월 동안거에 경허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7명의 정진대중으로 개설됐다. 이후 경허 스님은 바로 범어사를 들려 다시 통도사 백운선원으로 가서 1900년 보광선원을 개설했다. 경허 스님을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해방 직후 한국불교의 선풍진작을 위한 대표적 사건은 봉암사 결사의 시작이다.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은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공주(共住)규약'을 정하고 이를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만 방부를 같이 정진했다. 처음은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청담 스님으로 시작해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스님 등 20여 명으로 늘었고, 비구니 묘엄, 묘찬, 지영, 재영 스님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1950년 6 · 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됐지만 그 후 1970년 초부터 다시 수좌들이 봉암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봉암사 희양선원은 1972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납자가 정진했다. 이후 1974년에 서옹 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향곡스님이 줄곧 조실 역할을 하면서 납자를 제접했다. 1982년 6월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 수도원으로 지정하여 성역화 의지를 표명했고 1984년에는 종립 특별선원으로 지정했다. 봉암사 결사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산문을 절대 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정화불사가 마무리되는 1960년대 이후에는 선원들의 중창과 개설이 많이 이뤄졌다. 불국사 불국선원은 1974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대중안거에 들어갔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산 스님이 공사비 1억 원을 들여 1976년 불사를 진행해 현재의 사격을 완성했다. 불국선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범룡, 송담, 일타, 법달, 정일, 혜정 스님 등 명안종사가 선풍을 드날렸다.

현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금오선원을 1975년 개설했다. 해운정사 선원은 상선원과 하선원, 시민선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모선원 큰방인 상선원은 수좌 스님들이 새벽 2시 30분 기상해 참선에 들어가 11시간 가행정진 중에 있으며, 하선원은 재가선원으로 재가자들이 납자들과 마찬가지로 안거에 들어 8시간 정진한다. 시민선방은 사찰 내 원통보전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일반 불자들이 철야 정진을 해오고 있다.

만공 스님의 제자 혜월 스님의 법을 이은 전강 스님의 유지를 이은 선원은 용주사 중앙선원과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이다. 용주사 중앙선원은 1969년 동안거 결제를 가지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전강 스님 제자 송담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용화사 법보선원은 1963년 전강 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비구 선원, 보살 선원, 시민 선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이 1957년 창건한 석남사 정수선원도 한국 선원 발전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1957년 개설된 석남사 정수선원은 1963년부터 3년 결사를 진행했으며, 1999년 조계종립 비구니 특별선원으로 지정됐다.

봉암사와 마찬가지로 산문을 폐쇄하고 정진하는 비구니 선원도 있다. 영화 〈길위에서〉로 알려진 은해사 산내 암자 백흥암이다. 백흥암은 1981년 도감 육문 스님과 영운 스님이 폐사 직전의 백흥암을 맡으면서 불사를 진행해 당해 동안거부터 대중을 받았다. 언제나 비구니 스님 수십 명이 방부를 들고 노동과 수행을 병행하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과 백중을 제외하고는 산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지)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9,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禪
한국불교
선원 70년

오늘도 화두 들고 은산철벽 부수기


계룡산 대자암의 무문관 '삼매당'의 전경. 1993년 문을 연 대자암은 천축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무문관이다.



한국 선불교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일조한 학회지와 저술들

'문없는 문' 무문관 수행

무문관(無門關)은 한국불교 활발발한 선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전통이다. 무문관은 아무나 들 수 없는 곳으로 법랍이 높은 스님들이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을 얻고자 문을 닫아걸고 용맹정진한다.

현대불교사에서 무문관을 처음 개설한 곳은 서울 도봉산 천축사다. 1964년 당시 주지였던 정영 스님은 선객들이 참선도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무문관의 필요성을 절감, 처음으로 천축사에 공식적인 무문관을 개설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6년 결제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19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였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아 2회만에 중단됐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 · 관응 · 구암 · 제선 · 현구 · 지효 · 경산 · 도천 · 관묵 · 천장 · 도영 · 석영 · 무불 · 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만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이들 중 6년 기한을 채운 스님은 3명에 불과다. 1회 때는 관응, 제선 스님이, 2회 때는 구암 스님이 원만회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에는 계룡산 대자암에 무문관 선원 '삼매당'이 개설됐다.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했다. 1994년에는 제주도 남국선원에 무문관이 개설됐다. 이곳의 수행자 법랍은 평균 20년이상으로, 정진력을 검증받지 않고는 입방이 힘들다.

1998년 여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금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비구계를 수지하고 10안거 이상을 지낸 스님만이 들어갈 수 있다. 2000년 4월부터 3년 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의 스님이 정진결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조실인 설악무산 스님이 직접 무문관에 입방해 동안거 기간동안 정진했다. 또한 백담사 무금선원은 종립 기본선원으로 신참 납자들이 방부를 들고 안거 정진한다.

2002년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재 방부를 받았다.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무문관(만덕선원)은 건평 40평에 5개의 독방이 갖추어져 있으며, 욕실과 철저한 방음시설 등을 갖춰 오랜 기간의 무문관 수행에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대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에도 무문관이 개설됐으며, 현재 회주 우학 스님이 무문관 정진 중이다.

한국 선불교 세계화위한 선원

한국불교의 간화선의 선풍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시도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승보사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방장이었던 구산 스님은 1973년 하안거부터 한국 최초의 국제선원인 '불일국제선원'을 개원해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과 해외 스님들에게 한국 선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앞장섰다.

외국인으로써 송광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사람 중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교수 로버트 버스웰(법명 혜명)이 유명하다. 이후 버스웰 교수는 보조국사의 영문 법어집을 비롯해 최근에는 불교영어사전을 펴내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은 1989년 기공식을 열고 1992년 3월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두였던 숭산 스님이 개원했다. 이후 국제선원은 외국인 스님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면서 선 중심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에는 외국인 행자교육원이 개원됐다.

2000년 3월에는 계룡사 무상사 국제선원가 창건됐다. 무상사는 매년 최소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무상사 국제선원을 찾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의 불교단체와 100여개 이상의 세계각지의 젠 센터에서 무상사를 찾아와 수행하고 있다.

강화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 불자를 위한 전문 선원으로 1997년 9월 28일 성철 스님의 ┬ 제자 故 원명 스님이 개원했다. 1980년도 초에 스리랑카와 영국에서 유학한 원명 스님은 유럽에 한국불교가 거의 전무한 사실을 알고 국제포교의 서원을 세웠다. 이후 국제포교를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불교 기초교리 강좌, 영어로 불교 경전 공부하기, 참선강좌, 한국문화 배우기 등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원을 건립하게 됐다.

이밖에도 인도의 룸비니 석가선원, 하와이 대원사 선원, 신원사 국제선원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알리기 위한 선원들이 창건돼 활동해 오고 있다.

禪 전문연구 '활성화'

한국불교 선 수행은 더 이상 사찰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재가 선원이나 시민선방은 1990년대 이후 많이 대중화됐으며, 전문적 학문 연구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前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은 자신이 설립한 한국선문화연구원을 통해 선 관련 학술서와 대중서를 비롯해 대승경전과 어록, 선학, 선문학, 선문화, 선과 다도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정식으로 창립됐다. 앞서 열린 2월 열린 발기인 모임에는 현각 스님, 법산 스님, 종범 스님, 성본 스님, 권기종, 이평래 등이 참석해 창립을 논의했다. 발기인들은 당시 "선은 한국의 전통이자 고유사상이지만 깊이 있는 연구나 체계적 이론정립, 현대화, 생활화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서 "한국선학회를 창립해 한국선 전반에 대한 연구, 선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정리, 간화선 및 위빠사나와 여타 명상법 등 수행방법에 대한 고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 교육 등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선적 해법의 모색, 이들을 종합한 선의 생활화, 나아가 한국선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연구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학회는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매년 3회에 걸쳐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선학회 학회지는 2009년 12월 학술등재지로 승격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원 안거 문화 엿보기

말도 잠도 없이 오로지 참선 정진



월정사 만월선원의 용상방. 모든 구성원이 소임을 보는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다.

한국불교의 선원은 납자들의 수행처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여름과 겨울 안거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

안거에 든 수좌 스님의 마음 가짐은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성철 스님이 생전 해인사 수좌 스님들에게 강조했던 '수좌 5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한 수좌 5계는 △잠을 적게 잔다 △간식을 탐하지 않는다 △경전을 보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등이다.

성철 스님의 '수좌 5계'는 매일 새벽 2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수좌 스님들의 일상 생활을 짐작케 한다. 음력 10월 15일부터 3개월간 계속되는 동안 수좌 스님들은 산문을 나서지 않을뿐더러 안거 기간 동안 책을 전혀 보지 않는다. 각자의 화두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할 뿐 '삿된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데 진력한다.

수좌 스님 10명에 달하는 작은 선방이나 40여명 이상의 큰 선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선원의 공통점으로는 수좌 스님들 모두가 '소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입재 하루 전 선방에는 소임을 기록한 '용상방'이 붙는다.

선방의 가장 큰 어른인 방장 스님을 비롯해 계율과 방사의 전체적인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입승'이 있는가 하면 수좌 스님들이 마실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수두'라는 소임도 있다. 대개 법랍이 적은 스님들은 청소를 담당하는 '정통'(淨桶)이나 '고두'(庫頭)라는 소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각자의 소임에 관한 사항은 안거 입제 2~3일 전에 대중공사를 열어 결정한다.

선방의 의결구조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선방 곳곳의 청소가 잘 되고 있지 않다거나 입선이나 방선 등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 방사 운용에 관한 세세한 일은 발우 공양 후 대중공사 시간에 각자 생각을 담은 의견을 제시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수좌 스님들은 매월 두 차례 삭발한다. 매월 14일과 말일에 삭발하면서 용맹정진 발원을 되새긴다. 법의를 손질하거나 세탁하는 것은 오전 오후 방선 시간을 활용한다. 입선 50분에 포행 10분을 기본으로 하는 수좌 스님들의 하루 수행은 밤 10시면 소등과 함께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등 이후에도 대다수 스님들이 입선한 채 밤을 지샌다.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선원 문화의 단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1973년 〈신동아〉에 연재됐던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는 1970년대를 전후한 선원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생사의 관문을 돌파해야 하는 치열한 수행처인 '무문관'에 대한 기록들도 상당 수 있다. 월정사로 출가해 2002년 백련사 무문관에서 수행했던 동은 스님은 2011년 발간한 저서 〈무문관 일기〉

새벽 2시 일과 시작해
밤 10시 마쳐도 '수행'
모든 수좌가 소임 맡고
민주적으로 문제 풀어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신비롭고 비밀스럽게만 여겨지는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 일상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는 행동하는 양심이 부처임을 강조한 삼성 스님의 자서전으로 스님은 2004년 4월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 입관해 수행하다가 2005년 3월 무상의 꽃 한 송이를 그려놓고 열반에 들었다. 책은 스님의 치열한 치열한 삶과 수행을 전하고 있다.

정수웅 PD가 발표한 '비구니의 세계 석남사(1979)'는 당시에는 낯설었던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문화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BTN불교TV도 2008년 무문관 수행을 조명한 다큐 〈무문관〉을 DVD로 발매하기도 했다.

백흥암 비구니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던 이창재 감독의 영화 〈길위에서〉는 불교계를 비롯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성민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무엇으로 통달법을 삼아 삼마지에 들었느냐”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1〉 육진원통(六塵圓通)

오는 3월 27일(음 2.8)은 부처님 출가절이며 4월 3일(음 2.15)은 부처님 열반절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이 있어 오늘 우리 삶의 지남이 되고있다. 경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가운데 〈능엄경〉은 수행하는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꼭 읽어야 할 경전이다. 그 이유는 수능엄경 권5에서 25성자가 6진, 6근, 6식, 7대를 의지하여 통달에 이른 원통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 · 열반절을 앞두고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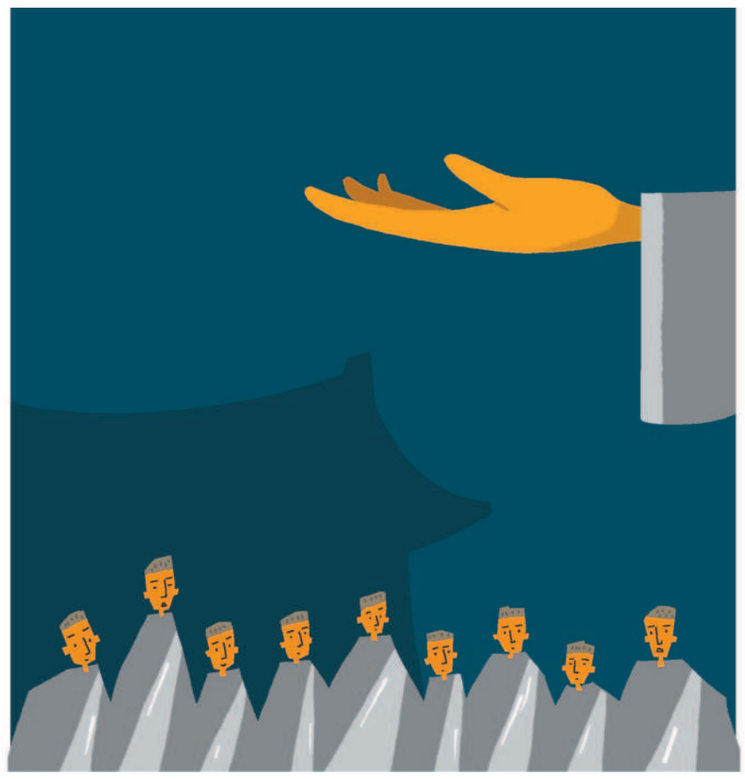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섯 비구 “음성의 경계 관찰 증득”
우바니사타 “색상관찰, 空色二無 증득”
향엄동자 “향의 장엄법으로 무루도 밝혀”
약왕, 약상 “맛의 원인 분별 환히 깨달아”
발타바라 “촉감의 경계 관찰 무학 성취”
마하가섭 “공적한 법으로 멸진정 닦아”

아난과 대중:

어느날 아난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깨달음이 뚜렷이 통하여 의혹이 없어지자, 일시에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두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阿難及諸大眾 蒙佛開示 慧覺圓通
得無疑惑 一時合掌 頂禮雙足 而白佛言

저희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환하게 걸림이 없는 경계를 얻었으며, 또 하나와 여섯이 없는 이치를 알았사오나, 아직도 오히려 원만하게 통달하는 근본의 근을 알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기회에 도를 이루고 얻은 바 비밀한 말씀이 본래의 앎과 같다면, 듣지 못한 것과 차별이 없을 것이옵니다. 부디 대비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비밀스럽고 엄정한 불법을 베푸시어 여래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옵소서.

부처님: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은 불법 가운데 나서 무학을 이뤘으니,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묻겠노라. 최초에 발심하여 18계를 깨달았을 때, 무엇으로 원만한 통달법을 삼았으며, 어떤 방편으로 삼마지에 들었느냐?

교진나 등 다섯비구:

교진나 등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驕陳那 五比丘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희들은 녹야원에 있을 때 계원(鷄園)으로 가서, 여래께서 성도(成道)하신 초기에 여래를 뵙고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 4제諦를 깨달아 밝혔사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시자, 제가 처음 ‘안다’ 고 답했더니, 여래께서는 저를 인가하시고 ‘아야다’ 란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니다. 미묘한 소리가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거기서 저는 음성으로 아라한을 성취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음성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在鹿苑 及於 園 觀見如來
最初成道 於佛音聲 悟明四諦
佛問比丘 我初稱解 如來印我
名阿若多 妙音密圓 我於音聲
得阿羅漢 佛問圓通 如我所證 音聲為上

우바니사타:

우바니사타가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 사뢰었다.

優波尼沙陀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 역시 여래께서 성도하신 최초에 여래를 뵙고 부정상(不淨相)을 관찰하다가 크게 싫어하여 벗어날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온갖 색의 성질은 깨끗하지 못하여 백골과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돌아가고, 공과 색이 모두 없음을 깨달아 무학도를 이루자, 여래께서는 저를 인가하시고 니사타란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니다. 먼지 묻은 색이 이미 다 사라져서 묘한 색이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저는 색상으로부터 아라한을 이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색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亦觀佛 最初成道 觀不淨相
生大厭離 悟諸色性 以從不淨
白骨微塵 歸於虛空 空色二無
成無學道 如來印我 名尼沙陀
塵色— 盡 妙色密圓 我從色相
得阿羅漢 佛問圓通 如我所證
色因為上

향엄 동자:

향엄 동자는 저는 여래로부터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현상(諸有爲相)을 자세히 관찰하라’ 는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곁을 떠나 맑고 고요한 방에서 사유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침수향(沈水香)을 태우는 비구들이 보였으며, 향기가 조용히 콧속으로 들어왔사옵니다. 제가 그 향기를 관찰해 보니, 나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연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가도 머무를 곳이 없고 와도 온 곳이 없었사옵니다. 이를 계기로 뜻이 사라져서 무루도를 밝히게 되자, 여래께서는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香嚴)이란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니다. 여기에 나쁜 향기가 문득 사라지고 미묘한 향기가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저는 향의 장엄법으로 아라한을 이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향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香嚴童子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我聞如來 教我諦觀
諸有為相 我時辭佛 宴晦 齋
見諸比丘 燒沈水香 香氣寂然
來入鼻中 我觀此氣 非木非空
非煙非火 去無所著 來無所從
由是意銷 發明無漏 如來印我
得香嚴號 塵氣倏滅 妙香密圓
我從香嚴 得阿羅漢 佛問圓通
如我所證 香嚴為上

약왕, 약상:

약왕, 약상의 두 법왕자가 법회 가운데 5백 범천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藥王藥上 二法王子 在會中 五百梵天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희들은 한량없는 오랜 겁 동안 세상의 좋은 의사가 되어, 입으로 이 사바세계의 풀과 나무와 금과 돌을 맛보았사옵니다. 그 이름의 수가 10만 8천 가지였나이다. 이와 같이 맛을 보고, 그 맛이 신지 짠지 담담한지 단지 매운지, 또 여럿이 어울린 맛인지 그대로 타고난 맛인지 변하여 달라진 맛인지를 알았으며, 또 찬 성질인지 더운 성질인지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를 두루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런 가운데 여래를 받들어 모신 뒤에는 맛의 성질이 공도 아니고 있지도 않으며, 몸과 마음과 일치하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떠나지도 않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맛의 원인을 분별하여 환히 깨닫게 되자 여래께서는 저희 형제를 인가하시어 약왕보살, 약상보살이란 칭호를 내려주셨사옵니다. 지금은 이 법회 가운데서 법왕자가 되었으며, 맛으로 인한 깨달음이 밝다고 하여 보살자리에 올랐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맛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無始劫 為世良醫 口中嘗此
娑婆世界 草木金石 名數凡有
十萬八千 如是悉知 苦醋鹹淡
甘辛等味 諸和合 俱生變異
是冷是熱 有毒無毒 悉能遍知
承事如來 了知味性 非空非有
非ß身心 非離身心 分別味因
從是開悟 蒙佛如來 印我昆季
藥王藥上 二菩薩名 今於會中
為法王子 因味覺明 位登菩薩
佛問圓通 如我所證 味因為上

발타바라:

발타바라가 동반한 16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跋陀婆羅 其同伴 十六開士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희들은 이전에 위음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스님들이 목욕할 때 차례를 따라 욕실에 들어갔다가, 홀연히 물의 원인은 이미 때[塵]를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중간이 편안하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들었사옵니다. 과거에 닦은 습성을 잊지 않은 가운데, 금생에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이제 무학을 성취하였사오며, 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발타바라라는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니다. 그 결과 묘한 촉감이 뚜렷이 밝아져서 불자가 되어 불법을 지키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닿음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等先於 威音王佛[佛所]
聞法出家 於浴[沐]僧時 隨例入室
忽悟水因 ß不洗塵 亦不洗體
中間安然 得無所有 宿習無忘
乃至今時 從佛出家 今得無學
彼[被]佛名我 跋陀婆羅 妙觸
宣明 成佛子住 佛問圓通 如我所證 觸因為上

마하가섭

마하가섭과 자금광(紫金光)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摩訶迦葉 及紫金光 比丘尼等
ß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지난 겁에 이 세계에 일월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저는 직접 가까이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였사오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며 등불로 어둠을 계속 밝히면서 자주빛 황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도금하였사옵니다. 그 뒤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몸에는 언제나 자주색 황금빛이 가득 찼으며, 이 자금광 비구니들도 저의 권속으로서 동시에 발심하였사옵니다. 저는 세상의 여섯 경계는 변하여 허물어지는 법임을 관찰하고, 오직 공적한 법으로 멸진정만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잠깐 사이에 백천 겁을 뛰어 넘을 수 있었사옵니다. 이렇게 제가 공한 법으로 아라한을 성취하자, 세존께서는 저를 인가하시어 두 타행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시니, 묘한 법이 밝게 열리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 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법의 경계를 관찰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於往劫 於[在]此界中 有佛出世
名日月燈 我得親近 聞法
修學[習] 佛滅度後 供養舍利
然燈續明 以紫光[檀]金 塗佛
形像 自爾已來 世世生生 身常圓滿
紫金光聚 此紫金光 比丘
尼者[等] ß我眷屬 同時發心
我觀世間 六塵變壞 唯以空寂
修(於)滅盡[定] 身心乃能 度百千劫
猶如彈指 我以空法 成
阿羅漢 世尊說我 頭陀為最
妙法開明 銷滅諸漏 佛問圓通 如
我所證 法因為上

정리=노덕현 기자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열반,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점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1. 인간의 이상적상태 ㊤



열반은 탐진치가 괴멸된 궁극의 상태로서 불교의 종착역 이다. 사진은 영천 만불사에 조성된 부처님 열반상.

불법의 궁극적 목표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불교인은 이같이 생각하며 이같이 행함으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혹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근본설법에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안(眼)을 생기게 하며, 지(智)를 생기게 하며, 적정(寂靜), 증지(證智), 등각(等覺), 열반(涅槃)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행한다. 그것을 석존은 중도(中道)라고 하셨다. 이 길을 따름으로써 사람은 능히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거기에 붓다 가르침의 구극(究極)의 목표가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理想)의 상태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면서 품고 있다. 금전을 저축하여 노후(老後)의 풍성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권세(權勢)를 누리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많은 지식이 있는 학자로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神)의 가르침을 지키며 내세(來世)에는 천국에 가서 태어나기를 염원(念願)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는 이상의 상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붓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붓다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구극이상(究極理想)의 상태는 '열반(涅槃)'이라고 불리는 그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붓다는 열반을 궁극적 이상의 상태라고 하며, 또 불교인은 이 스승을 따라서 열반에 이르기를 염원하는가. 그것은 벌써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며 의지(意志)의 문제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철학의 체계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들어가 보면 그 최후의 바닥에는 언제나 의지(意志)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모든 종교의 체계에 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 어떤 이유,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인격을 다하여 소원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의지(意志)라고 말한다면 모든 철학의 체계도 종교의 이상(理想)도 이 의지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들은 또한 무엇 때문에 열반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열반을 소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으로서는 너무 과도(過度)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묻는데 있어서 제한(際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궁극적 상태는 어떠한 경지(境地)일까. 그러한 경지라며 나도 또한 소망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경지를 소망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리고 이러한 궁극의 소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결국 불교인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는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여하간 먼저 '열반'이란 어떠한 이상(理想)의 상태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샤알리푸트라(사리불)여, 열반,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열반일까요?"

붓다의 뛰어난 제자 샤알리푸트라는, 어느 때 잠부가타가(염부차, 闍浮車)라는 외도(外道)의 수행자(修行者)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또 어느 때는 사만다가라는 같은 외도(外道)의 수행자로부터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모두 "벗이여, 대개 탐욕(貪慾)의 괴멸(壞滅), 진에(瞋恚)의 괴멸(壞滅), 우치(愚痴)의 괴멸(壞滅), 이것을 말하여 열반(涅槃)이라고 말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답은 더 계속되며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실천하는 길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샤알리푸트라는 "벗이여, 이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이야말로 이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답은 매우 명쾌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우리들은 열반이란 번뇌(煩惱) 즉 욕망의 좋지 못한 생각과 행위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길은 저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聖八正道)로써 뿌리를 삼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열반이란 산스크릿트어 니르바나의 음사(音寫)이며,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붓다는 자주 불 또는 불꽃으로서 번뇌를 비유하였다. 욕망의 과도(過度)한 작용을 불꽃이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붓다가 추구한 자유스러우며 평안한 인간의 이상적 상태는 그러한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였다.

이 말을 처음 만든 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붓다도 또한 이 말로써 이 길에 있어서의 인간의 궁극적 이상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또 자주 이 비유로써 그 상태를 설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차구다화유경(婆蹉儞多火喩經)〉이라는 경전이다.

여기에서도 또 부처님은 밧짜(파차)라는 외도(外道) 행자(行者)의 방문(訪問)을 받으면서 문답을 전개한다. 외도의 행자는 먼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문제에 관해서 붓다에게 묻는다. 붓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물리친다.

"세존이여, 그러면 해탈한 자는 어디로 가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밧짜여,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적당하지 않다."

해탈하여 열반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붓다가 그리는 이상의 상태인데도 이 외도의 행자는 여전히 죽어서 제천(諸天, 천=deva=신)이 있는 곳에 상생(上生)한다는 낡은 이상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문답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밧짜여, 그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이 교법은 심히 깊고 알기 어려우며, 미묘하여, 지자(智者)만이 알 수 있느니라. 다른 견(見)에 따르면, 다른 행(行)을 수행 하는 자는 도저히 알기 어려우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다시 또 그대를 위해서 설명하겠노라. 밧짜여, 만일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면, 그대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땔나무가 있기 때문에 탄다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세존이여, 그 물음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불은 땔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탄 것이며 땔 나무가 다하였기 때문에 불은 꺼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붓다가 설명하며 가르친 것은 명백해진다. 사람들에게 괴로운 불안의 생활이 있는 것은 번뇌 즉 욕망의 악한 생각과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악한 것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의 불안하며 괴로운 생활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 변화는, 가서 생겨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변화가 없었다는 뜻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며 가르쳤을 때 그 외도의 행자는 활연(豁然)히 깨달으며 평생을 재가(在家)의 신자(信者)로서 붓다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 길에 의해서 갖게 된 인간의 이상적 상태가 어떻게 하여 얻어지며 또 어떠한 것인가를 매우 구상적(具象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이 천년 뒤에 전해진 까닭 ㊦

황제가 칙명으로 10개 대가람을 조성하니 백성이 전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했다

답 영평 십오 년 사월 오일에 저선신 등이 표를 상덕전(象德殿)에 받드니,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복과 이익을 구함이 금일에 존사(尊師)께서 사(邪)사(師)라 부를 줄은 생각지 못했노라. 짐이 불 · 도(佛 · 道) 이교(二敎)로써 한 처소에 모여 그 우열을 관찰하리니 사등은 각각 훌륭한 술법으로 그 승부를 결정하라. 이에 관할할 유사(有司)에게 성지(聖旨)를 내리노니 백마사(白馬寺)에 제연을 포설(鋪設)하라. 짐이 직접 임(臨)해 보고 두 교를 시험하고 비교하리라.

유사가 칙명을 받들어 백마사 앞을 정결하게 닦고 세소(洗掃)하여 도량을 배열해 세우고 삼(三壇)을 나누어 시설하였다.

황제께서는 공봉관(供奉官)에게 명령하여 도 · 불(道 · 佛) 이교(二敎)를 취하여 중단(中壇)에 모우고 향나무의 모든 섶을 그 위에 쌓고 불을 놓아 태우게 하였다.

잠깐 사이에 도 · 유(道 · 儒) 이교(二敎) 다 타버리고, 삼부(三部)의 불경(佛經)은 완연히 갖추어 있으며 열두 길의 광명을 놓았는데, 도사 등은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모여서 구경하는 대중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였다.

이때에 등 · 난 두 스님이 곧 단상에 올라가 불경을 받들어 황제께 헌납하니, 황제께서 통사사인(通事舍人)인 송상(宋庠)에게 명령하여 저선신 등에게 물어 말하게 하였다.

"도사 등은 표(表)를 진상하고 불교로 더불어 승부를 다투었으나 금일 도전(道典)은 다 분소(焚燒)를 당했으니 다시 할 말이 있는가."

황제가 칙명으로 열 개의 대가람(大伽藍)을 낙양성 안에 조성하고 일곱 가람은 비구 스님을 두고, 세 가람은 비구니를 두었으며, 금구(金口)의 진전을 집집마다 전념(轉念)하고, 여래의 성교(聖敎)를 낱낱이 따라 행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 법이 흥기함은 반드시 명수(冥數)를 의지하는 것이며 우연이 아니다.

대체로 또 선법(禪法)이라는 것은 교(敎) 밖에 따로 행하는 최상의 종지(宗旨)이다. 부처님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대범천왕(大梵天王)이 금색(金色)의 파라화(波羅花)를 드리고 몸으로 상좌(床座)가 되어 부처님께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기를 청하니 부처님께서 자리에 올라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인간 · 천상 백만이 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오직 가섭만이 파안미소(破顔微笑)하므로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안장 · 열반묘심 · 실상무상이 있는데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로부터 서로 번갈아 전수(傳受)하여 이십 팔대(二十八代) 달마대사(達磨大師)에게 이르러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유촉(遺囑)을 받고 동쪽으로 이 땅에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하였다(見性成佛).

28의 숫자는 하늘의 경(天經)이다. 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십 팔대 이전에는 그 법이 이르지 않았다. 경이 갖추어진 이후에 위(緯)가 나는 것이니, 위는 서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에 이르러 동쪽으로 와 초조(初祖)가 되었으며, 장사지낸 뒤 삼년에 한쪽 신을 이끌고 다시 서토(西土)로 돌아갔는데, 바로 복덕뇌고(福德牢固)의 시기에 해당하며, 달마이후에 부처님의 의발(衣鉢)을 전한 자가 오대(五代)에 그치니, 이는 오성(五星)으로 땅의 위(地緯)가 된다.

또 복덕뇌고의 시대에는 세상의 무리가 복을 지음을 일삼아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첩경(捷徑)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문(多聞)으로써 미친 지혜에 치빙(馳騁-부산히 돌아다님)하며, 복을 닦음으로써 인천(人天)의 상(相)에 주착(住着)하는데, 또한 부처를 배우는 커다란 흠집인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가 서쪽에서 오시어 낱낱이 살펴보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니, 이것이 그 선법(禪法)이 되는 까닭일 것이다.

달마가 바로 갈대를 꺾어 타고 양자강(楊子江)을 건넜는데, 말후(末後)에 만일 신광(神光)의 과량(過量)한 기틀을 갖춘 자가 없었다면 조사(祖師)의 심인(心印)을 누가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불조(佛祖)의 들어 잡은 처소가 폄도 있고 나아감도 있으며, 한 번 누르고 한번 드날림이 중생을 위하여 불지(佛智)를 성취시키는 방편 아님이 없는 것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봉 합장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뜩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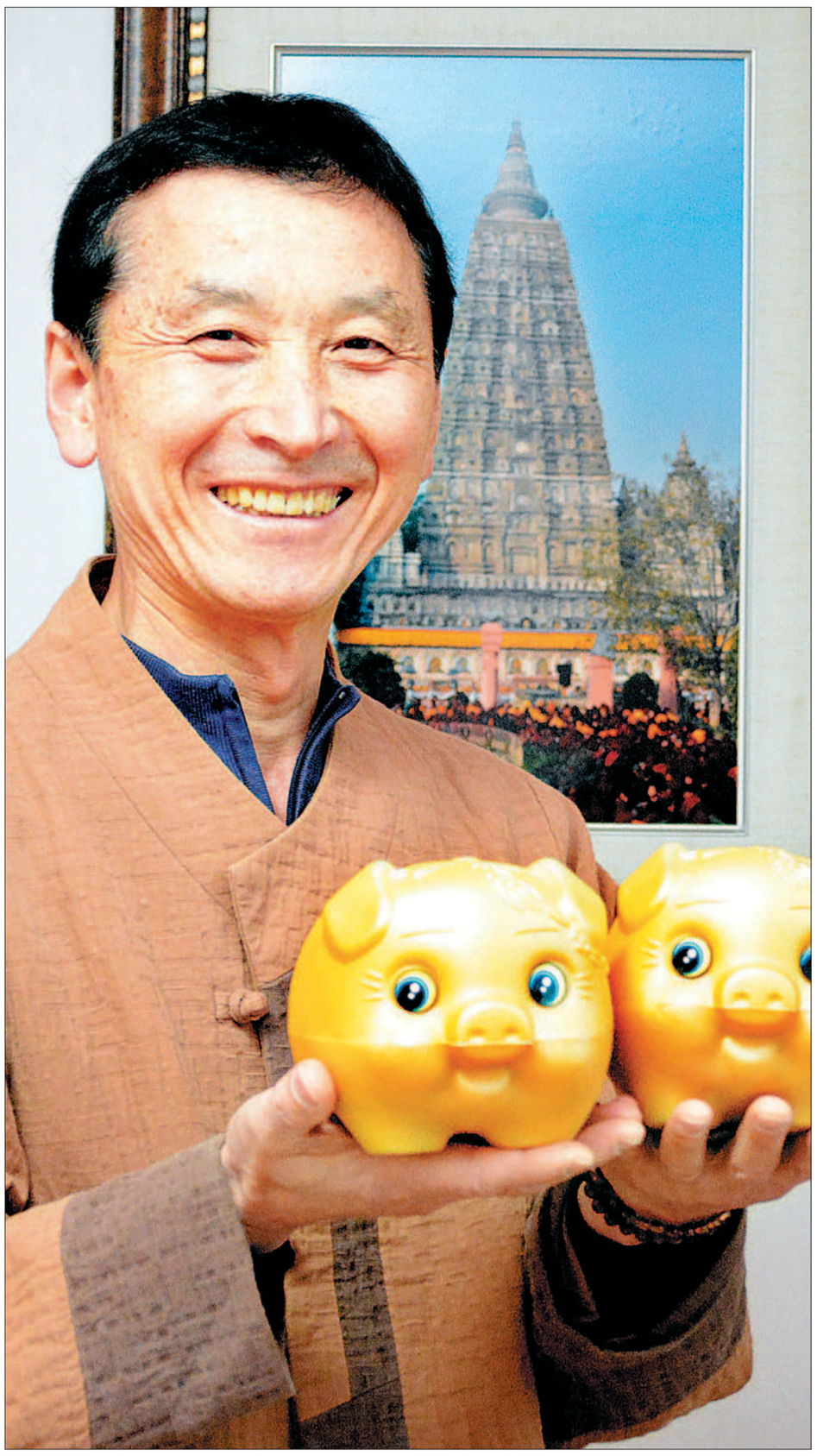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처명)

“나눔과 봉사엔 끝이 없죠”…

이광배 회장 (제주섬 꼬라 순례회)



이광배 회장은 … 1999년 관음불교학교를 수료하고 2002년부터 매월 제주양로원 · 제주요양원 어르신 초청 공양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제주불교문화대학(20기)을 졸업했고 동문모임 무우수(無憂樹)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패 수상(2010년), 분다클럽이 주관한 분다대상(효행부문) 수상(2013년) 등을 했으며 현재 제주섬 꼬라 순례 회장과 제주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엔 ‘절오백 당오백’ 이란 말이 있다. 제주가 불심이 강한 불국토 섬임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제주인구 60만 가운데 ‘30만’ 정도가 불자라 한다. 물론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다. 그만큼 타지방 못지않은 강한 불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지방 불교와 다른점이 있다면 토속신앙과 융합된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불자를 찾기가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참 불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 어머니나 할머니가 절에 다녔고 그로 인해 불교에 친근감이 있다면 과연 불자일까.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서 연등을 달면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불자라면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겉으로는 불자라고 내세우더라도 정작 삶에 묻어나는 행동이 비불자적인 요소가 많다면 참불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불자’ 인 사람이 있다. 바로 제주섬 꼬라(티베트어로 탑돌이) 순례회를 이끄는 이광배(59) 회장이 주인공이다. 이 회장은 특히 웃어른에 대한 남다른 공경으로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이 회장은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 어르신들을 초청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잔치’ 를 벌인다. 어르신들은 나들이를 겸해 맛난 음식에 따스한 정까지 맛보는 이 특별한 날을 한 달에 한번씩 손꼽아 기다린다. 이 회장은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제주서 명문고인 오현고를 졸업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가정형편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죠. 7년여 객지생활서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이 사회 어디를 던져 놓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단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줬죠.” 역시 종교는 인생의 힘든 계기가 있어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회장의 어렵고 힘든 객지 생활은 불심에 불을 지피게 만들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 회장에게 서울서 같은 집에 함께 살던 고모부 내외가 매일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고모부 내외가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하고, 108배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회장 마음속에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얼마 뒤 이 회장도 몸이 아플 때나, 고향이 그리울 때면 조계사를 찾아가 기도하며 시름을 달래기 시작했다.

“고되고 낯선 서울 생활에 만일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하루를 멘토로 의지처로 생각하고 정진하다보니 마음속에서 법열감과 자신감이 솟아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불심이 돈독해져갈 시기에 이 회장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왔다. 오자마자 이 회장은 당시 제주도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신행단체인 제주불교법우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고향인근 사찰인 법화사에 조상님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불자로서의 싹을 틔워나갔다.

이 무렵 1989년 이 회장은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 식당을 개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단칸방에 부모님과 아이 둘까지 살아야 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다. 치열한 생존 경쟁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치열한 노력끝에 1년여 만에 차츰 생활도 안정이 돼갔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 회장에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갈증이 커져갔다. 그래서 1999년 조계종 제 23교구 관음사서 운영한 3개월 과정의 관음불교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한 딸을 위해 아버지의 간절한 합격 발원기도를 아침마다 시작했다. 예불문을 시작으로 천수경, 108배를 번갈아 가며 했다.

“처음에는 초심자들이 다 그렇듯이 딸의 합격과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 했죠. 하지만 기도를 매일 하다보니 생각이 변했습니다. 나를 깨우기 위한 참회 정진의 108배로부터 범위가 넓혀져 이웃에 대한 감사 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가족만 감싸던 마음이 점차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웃에 대한 감사 발원으로 바뀌더군요.

나눔은 타인 아닌 내가 행복한 일

13년간 월 셋째주 목요일 어르신 초청 잔치

최근 백혈병 및 소아암 가족들도 함께 초대

2010년 ‘무우수회 창립’ … 도반들과 봉사행

2013년 분다대상 효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

제주섬 꼬라 순례 모임을 이끌다

순례 후 사찰서 기도… 모금 활동도 전개

3월 회향 후 4월부터 제4차 순례 다시 시작

내 가족이 아닌 주변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제 가족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며 발전해 가더군요”

큰 딸은 사법고시 도전 3년 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금은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둘째 아들도 사춘기에는 방황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의 길을 찾아나서 지금은 한의사가 됐다. 나름 주변에선 판사 아버지라 추켜 세우지만 이 회장은 늦은 밤, 배달 전화벨이 울리면 습관처럼 안전모를 쓰고 오토바이 배달을 나간다. 이런 모습에 지인들은 “판사, 한의사 아버지가 이제 배달은 그만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핀잔을 준다. 하지만 이 회장은 “판사는 내가 아니라 내 딸일 뿐”이라며 “자식들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배달이 지금 나를 있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애들을 성장시켰다”며 지금도 밤늦은 자정까지 배달을 위해 어디든 달려간다.

이런 근면 성실함 덕분에 12년 만에 임대건물을 청산하고 이 회장은 3층 건물을 짓고 가게를 다시 열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굳게 다짐한 게 한가지가 있다. 자신에게 새 삶을 열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회향하고 싶다는 발원이었다. 그 원력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관음사서 운영 중인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서 매월 맛난 공양 한 끼 올린다는 작은 실천이었다. 그것이 벌써 어느덧 13년 째를 맞고 있다. 공양보시행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백혈병 및 소아암가족들에게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회장은 제주양로원처럼 정기적이진 않지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 부모회와 아이들을 초청해 똑같이 보시행을 펼친다.

봉사현장서 만난 강용주 백혈병소아암 직전 부모회장은 “예전에 비해 사회가 팍팍해진 가운데도 선뜻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선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데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누구나 봉사를 하고 싶어하지만 이 회장처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회장은 이런 봉사행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수행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이 회장은 “태어나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큰 병으로 고통받는데 작은 공양이나마 정성껏 마련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며 “지금은 병으로 인해 가족과 아이들이 고통 받지만 이웃끼리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다보면 슬픔이 격감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이 회장에게 나눔이 이렇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객지 생활에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서다.

그런 작은 나눔과 위로들이 이 회장 자신이 자수성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믿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회향의 마음을 냈고, 어르신들이, 백별형 소아암 가족들이 그리고 가게를 찾는 모든이들이 이 회장을 있게 한 스승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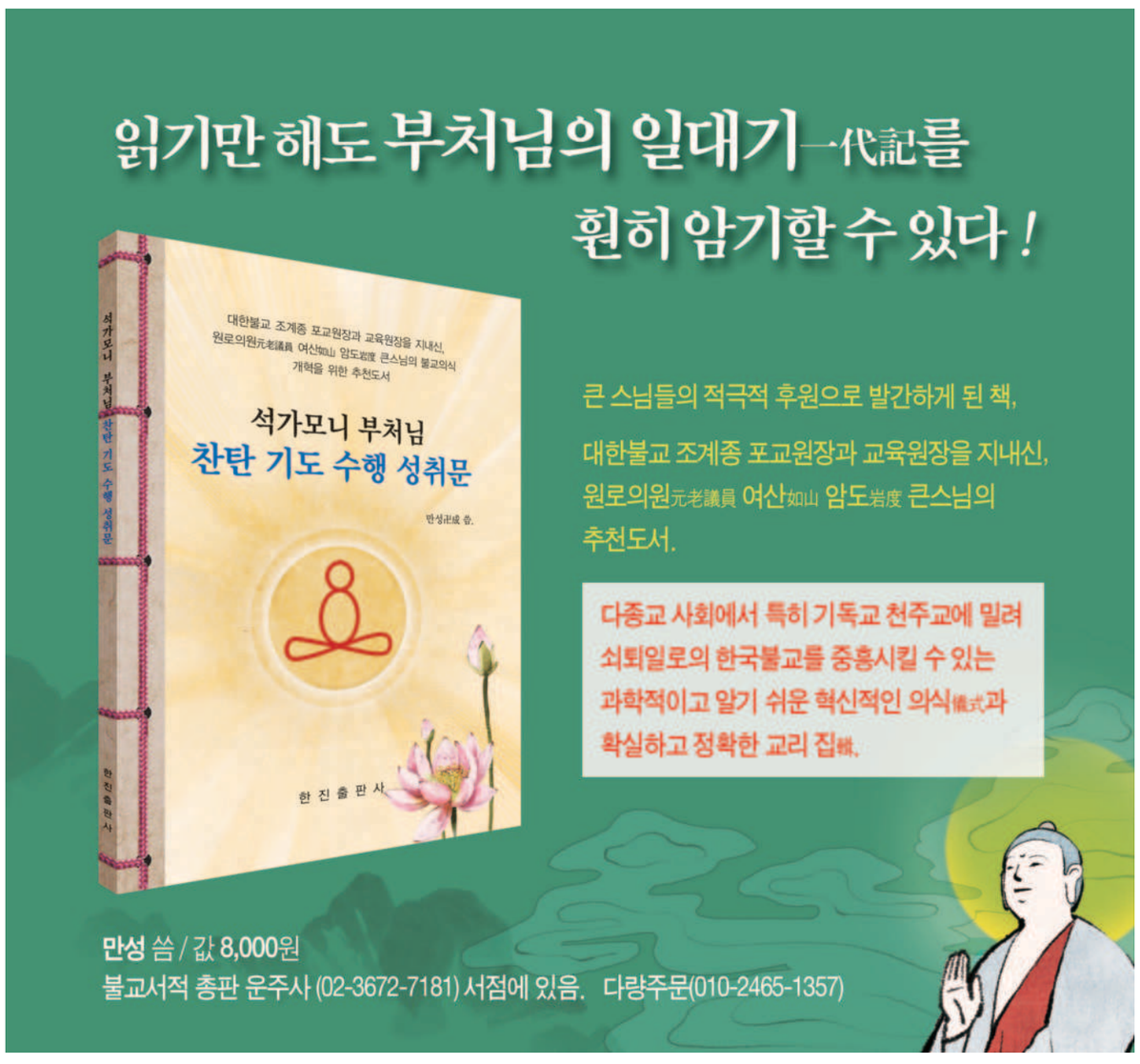
이 회장은 “주변의 말씀을 경책 삼아 바른 삶을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다보니 큰 인연으로 돌아왔다”며 “이 귀중한 진리는 모두다 부처님에게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봉사행 뿐만 아니라 교리 공부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봉사행의 근본 원천은 부처님 가르침이며, 또한 그 원동력은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공부나 교리공부에도 나온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결심이 서자 1년 과정의 제주불교문화대학문을 다시 두드렸고, 지난 2010년 2월에는 졸업 후 동문모임인 무우수(無憂樹)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도반들과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 회장과 회원들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제주양로원 재가자를 위한 반찬 배달을 보조하는데 팔을 걷어 부쳤다. 또한 이 회장 개인적으로는 초록우산을 통해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7년 째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 회장의 삶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덧칠해져 수행과 일, 그리고 나눔 실천을 위한 봉사행이 연속선상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월 공양을 대접해온 자신의 식당은 2011년 ‘자비의 집’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내 부모님같은 마음으로 비록 한끼지만 정성껏 준비해 모시고 있다”며 “오히려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었다며 ‘장사 잘 돼라’ 는 덕담 한마디가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용기를 얻고 희망찬





매월 장애인·어르신 대상 잔치 열어


이광배 회장은 매일 아침 집에서 108배를 한 뒤 소외 이웃들을 위해 쓰일 돈을 저금통에 보시한다.


제주시 외도동 광제사에서 순례 후 기도정진을 하고 있는 이광배 회장과 1백여 꼬라순례 회원들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붇다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광배 회장(왼쪽서 세번째)


어르신들에게 매월 공양을 대접한 자신의 식당이 2011년 '자비의 집' 으로 지정됐다. 현판식 장면. 맨 오른쪽이 이광배 회장.

삶을 살고 열심히 장사도 하게 되니 내가 어르신들에게 받는게 오히려 더 많다"고 보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런 다양한 봉사행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붇다클럽이 주관한 붇다대상(효행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봉사왕답게 수상금 전액을 제주양로원 · 제주요양원에 다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변에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제주양로원에 성금을 전달하며 "이 상금은 어르신들 덕택에 받은 것이기에 원래 주인인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지는 게 맞다"며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작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겸손해 했다.

최근 이 회장이 봉사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제주섬 꼬라 순례(지도법사 제량 스님, 조천 고관사 주지)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제주섬꼬라 순례 모임 창립부터 함께 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회장직도 맡고 있다.

제주섬 꼬라 순례는 제주를 '석탑을 고요히 품은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절집' 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꼬라'는 탑이나 절을 시계바늘 방향으로 도는 성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티베트어를 말한다. 한라산 역시 오백나한의 섬 제주 불자들이 숭배하는 탑과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걸어서 또는 오체투지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람따라, 길따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제주섬 꼬라 순례는 3월 22일 조천읍 조천리 고관사에서 세 번째 회향법회를 갖는다. 7년 동안 세 차례 회향을 맞은 꼬라 순례는 회향 때마다 백혈병소아암 가족들도 초청해 꺼져가는 새생명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순례 때마다 조금씩 모은 성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이 회장은 출발에 앞서 순례자들에게 의미를 하나 더 덧붙인다. 자신의 원력을 담은 순례길이기에 순례자마다 돼지 저금통(?)을 한 마리씩 사자는 것이다. 매월 순례하는 날마다 보시금을 돼지저금통에 넣고 회향날 돼지 저금통을 털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자는 의미다.

제주섬 꼬라 순례가 단순히 걷기 순례의 차원을 뛰어넘어 불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순례자들은 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수행 방편을 통해 행복의 원력을 쌓고 있다고 이 회장은 생각한다.

"매일같이 108배로 하루를 열지만 순례날 만큼은 좀 더 특별한 원력을 세웁니다. 생명체가 없는 사물 하나하나도 순례를 다니다보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며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타인을 위할 줄 모른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나마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월 셋째 주 제주섬 꼬라 순례 동참날에 1만 원씩을 적립하기로 한 것이죠. 그 원력이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게 회향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넘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매일 아침 기도 때마다 그 이웃들을 생각하며 돼지 저금통에 보시금을 넣다보니, 3차 회향 때에는 통통하게 살이오른(?) 2마리의 돼지 저금통을 보시하게 됐다.

그동안 꼬라 순례자들은 특별한 원력도 세웠다. 더 넓은 세상을 통해 혜안을 넓히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차례 서울 북한산 내 사찰을 참배하는 둘레길 걷기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 2013년 만 2년여 만에 도봉산지구와 연결된 총 20코스, 70km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길도 완주했다.

"꼬라 순례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고향인 제주지역의 사찰을 답사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면 사찰서 스님 법문을 듣고, 느린 걸음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무한한 외경심이 우러나와요. 풀 한 포기의 소중함, 그 자연의 일부가 바로 나임을 느낀 순간이죠. 걸으며 덥고 춥다고 느낀다는 그것조차 한 찰나일 뿐, 그것이 있기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도보 순례를 다니는 것도 수행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 회장은 "눈비가 내려도 순례는 멈추질 않습니다. 비바람을 헤치고 걷다보면 결국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낱 왜소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심하게 되고 다른이들과 갈등도 없어지게 되더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다툼 원인이 작은 감정싸움서 번지잖아요. 그 마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동업중생과 자리이타의 정신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처럼 제주섬 꼬라길 순례를 통해 이 회장의 영혼은 깊어진 듯하다. 순례 여정은 이 회장 말대로 구도여정과 같아 크고 작은 깨달음도 그곳에서 주어졌다고 했다.

이제 다시 이 회장은 4월부터 4차 꼬라섬순례를 시작한다. "지난 1차~3차 순례 동안 안가본 해안가사찰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역시 절에서 절로 이어지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1백여 안팎의 회원들이 매 순례 마다 참가하지만, 좀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순례에 동참해 수행과 봉사행을 함께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비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글=김주일 ·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신도 행복이 바로 사찰의 행복

서울 도심사찰 주지로 처음 부임해 현재까지 원각사 변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마음으로 지원 해주시는 조력자가 내 옆에 한 분 계신다. 바로 원각사 신도회장이다.

처음 주지로 부임했을 때에는 앞선 여러 사정으로 신도회장은 회장직을 고사했었다. 도리어 나에게 하소연을 했었다.

"제가 원각사 발전을 위해 지역 포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게 존경받는 우수한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신도회장에게 간청하고 갈음하기를 수차례. 결국 신도회장은 "알았습니다"고 승낙했다. 이후 나는 사찰 사무장과 기도법사 스님과 모여 신도회장을 위한 조촐한 이벤트를 구상했다.

7월 18일은 원각사 신도회장의 생일이다. 사찰 사정으로 전년도 생일을 챙겨드리지 못했으니 올해에는 신도회장에게 이벤트를 통한 추억을 안겨드리자는 게 사중의 공의였다.

전날 푸짐한 과일 바구니, 케익, 장미꽃,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 금일봉까지 단단히 준비를 했다.

D데이. 새벽녘에 신도회장의 집을 찾아갔다. 기도법사 스님과 나는 숨어있었고, 사무장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신도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 택배왔습니다"라고 개구지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도회장이 나오자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내밀고 "생신 축하합니다"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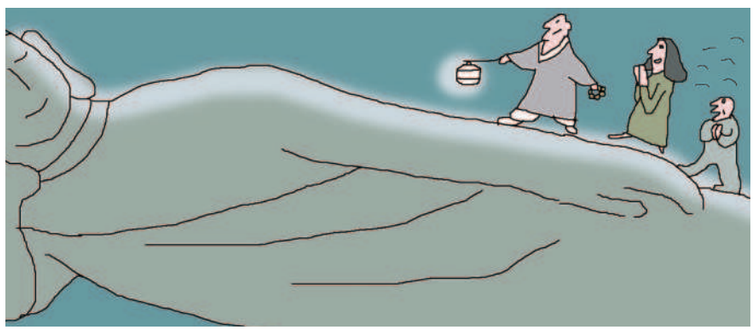
처음에는 당황하던 신도회장은 이내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며 수줍어했다. 그런 신도회장을 보며 나 또한 큰 보람을 느꼈다.

처음 주지로 부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맞춤형으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대부분 절에 찾아오시는 신도님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 인생사 고달픈 이야기, 대부분 하소연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다.

10년 전만 해도 신도와 일반인, 관광객들은 다실(茶室)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스님들과 신도들 사이가 좋아보이는가, 나빠보이는가. 아니면 그저 그러한가?

스님과 종무원들, 신도회 임원, 각 신행단체 재가자, 봉사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린 불교인가? 닫힌 불교인가?

앞으로 한국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님들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행자 시절 부처님께 발원하고 맹세했던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를 내려놓는 마음에서 남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이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원융화합은 그리 멀리 있지가 않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법당으로 받아 드린다면 곧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림 · 박구원

원각사의 다실에는 언제든지 신도들이 쉽게 찾아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턱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요즘 나의 고민은 "신도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해 드릴 수 있을까"이다. 그러면서 "원각사 대웅전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만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부처님과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감사하는 참나를 찾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자들 곁에 머물도록 오늘도 힘차게 목탁소리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새내기 주지 티는 좀 벗어났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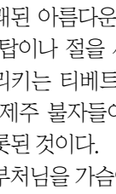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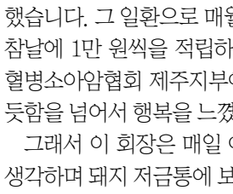
행복이 가득한 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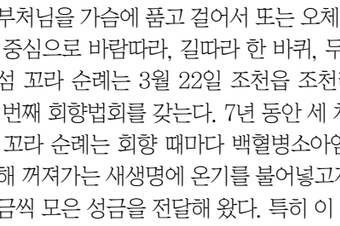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 15g의 기적
• 면역력 업그레이드
• 세계 최초 씹어먹는 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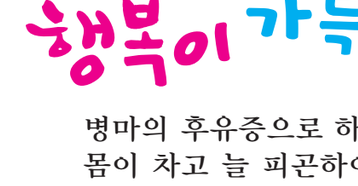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온 몸이 따뜻해지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치 효소환 15g×90환. 60만원

※ 식품법 제11조에 의하여
탁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루스 오제키, 서구 선(禪)문학 작가로 주목

2년 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알려진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했던 소설가 루스 오제키(Ruth Ozeki)의 문학적 배경이 '선(禪)사상'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BC News〉는 "오제키는 선사상으로 엮어낸 스토리텔링으로 동시대를 일깨우고 있는 작가"라며 "그가 '포틀랜드(Portland) 문학 · 예술계'의 후원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 대중 강연장의 모습은 마치 선사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대중법회와도 같다"고 전했다.

〈ABC News〉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틀랜드 그랜드 알린 슈나이처(Grand Arlene Schnitzer) 콘서트홀에서 열린 '오제키 작가 초청 강연회'에는 2300여 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오제키 작가는 '하루에 64억 9만 9980번의 순간이 있고, 우리는 한 순간에 손가락을 한번정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도겐 스님의 선구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이 선구에서 나는 '손에 대한 스님의 수사적 속임수'를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순간을 헤아리는 것은 물을 한 움큼 쥐는 것과 같다"고 전제한 오제키 작가는 "도겐 스님은 이 선구를 통해 사람들이 한순간 내려놓고, 맹목적인 자세로 내달리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매 순간을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BC News〉에 따르면, 오제키 작가의 사상적 배경에는 도겐(Dogen, 1200~1253, 일본) 스님이 있다.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 스님은 1227년 송나라에 들어가 중국 조동종의 장옹여정의 법을 이어 묵조선을 계승하였고, 1129년 귀국하여 일본에 조동종을 전파했다.



2013년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한 루스 오제키(사진 왼쪽) 작가는 문단에서 '선(禪)문학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근 섬에서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포틀랜드 문학 · 예술계 후원으로 매주 포틀랜드를 방문, 대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서구 비평가들의 호평 쏟아져
작품에 선사상 담은 스토리텔링 전개
독자와 만날 때 마다 명상 알려

오제키 작가는 "도겐 스님의 선구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탁월한 식견에 항상 감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느림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시간은 항상 충분하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BC News〉는 "오제키 작가가 독자들에게 펼친 선사상은 자신의 영적이고 창조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제키 작가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코네티컷에서 자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낯선 기억은 3살 무렵 처음 만난 외조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A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3살배기인 내가 조부모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두 분이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기억을 더듬은 오제키 작가는 "그 전까지 나는 어른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조부모가 내 눈높이에 눈을 맞춘 채 명상을 하고 있었다"며 "선불교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미스대학(Smith College)을 졸업한 오제키 작가가 스스럼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여자대학(Nara Women's University)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하며, 노(Noh) 드라마에 푹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오제키 작가가 교토에서 뉴욕을 둥지를 옮긴 것은 1985년이다. 이곳에서 영화 제작사의 소품 · 세트 담당자로 시작해 1990년대부터 대본 작가로 나섰고, 자서전적 영화 〈Halving the Bones〉라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오제키 작가는 초기 작품인 〈My Year of Meats〉(1998), 〈All Over Creation〉(2003) 등을 통해 미국의 반(反)환경적인 식품제조 방식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선사상을 기본 가치로 삼은 작품 〈A Tale For The Time Being〉(2013)을 내놓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출간된 해에 '맨부커(Man Booker)' 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잡았다. 오제키 작가는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근 작은 섬에 살고 있다.

〈ABC News〉는 비평가의 말을 빌려, "오제키 작가의 작품은 한마디로 선의 문학"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가에게 문학적 기법이란 독자의 상상력 안에서 시공의 흔들어 새로운 관점, 즉 부처님 가르침을 갖도록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한 〈ABC News〉는 "불교적 가르침이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것도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으로, 오제키 작가는 이를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오제키 작가의 작품을 접한 독자들은 텍스트를 읽는 동안은 탁월한 명상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을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그가 2010년 수계를 받은 법사이고, 지난해 가을에는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은사 스님과 함께 두 달간 집중명상을 실시했다는 점으로 비평가의 평가에 힘을 실을 수 있다.

현재 '포틀랜드 문학 · 예술계'의 후원으로 매주 '소설 글쓰기', '명상과 상상'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하고 있는 오제키 작가는 매 강연의 마무리는 명상을 소개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미시간대 '상좌부불교 연구과정' 개설

아무에이 비라반 태국 전 부수상, 200만 달러 후원

미국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이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을 개설한다.

〈MLive Media〉는 "미시간대학이 태국의 아무에이 비라반(Amnuay Viravan) 전 부수상의 기부금 2백만 달러를 받아, 그 기금으로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을 개설한다"며 "미국 내에서 상좌부불교 관련 최대 규모의 연구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상좌부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불교도의 수는 1억 5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살고 있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상좌부 연구과정'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문학 · 과학 · 예술대학' 산하 '아시아 언어 · 문화' 학과 부설 과정으로 개설될 방침이다. '상좌부 연구과정'에 참여할 교수진은 세계 각국의 관련 학계를 통해 물색하고 있다.

〈MLive Media〉는 미시간대학의 말을 인용, "이번 연구과정의 성과물들은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들과 자유롭게 공유될 것"이라며 "이는 상좌부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목했다.



태국 전 부수상인 아무에이 비라반은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이 개설되는 미국 미시간대에 2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시간대학의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의 단초를 마련한 태국의 아무에이 비라반(Amnuay Viravan) 전 부수상은 1950년대에 미시간대학에서 유학, 두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태국 내 미시간대학 동문회를 이끌고 있다.

아무에이 비라반 전 부수상은 "내 인생에서 성공은 미시간대학의 배움이 바탕이 되었다"며 "상좌부불교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모교의 학풍도 진작하는 데 일조한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원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돼지 '화제'

농장탈출한 돼지 사원 앞에서 절해…스님이 불경 읊어줘



중국의 한 사원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의 돼지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 사원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의 돼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전강만보(錢江晩報)는 2월 25일(현지시간) "전날 절강성 온주시의 한 사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사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등 화제가 됐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진은 중국의 SNS 웨이보 등에 게재되며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 돼지가 무릎을 꿇고 얼마 후, 사원의 여러 승려들은 돼지 앞에서 불경을 읊어줬다. 그러자 돼지는 일어나 유유히 떠났다.

이에 대해 한 중국 양돈업계 관계자는 "돼지가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이 결코 신기한 일은 아니다"라며 "드물지만 가끔 볼 수 있는 일"이라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돼지가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비타민E가 부족하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는 사원 근처의 현지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기사를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돼지가 감지 능력이 뛰어나 부처님을 감지할 수 있었다" "평소 비타민 섭취가 부족했던 돼지가 바닥에 우연히 무릎을 꿇은 것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인도서 '中 반대' 시위 티베트인 100명 체포

3월 5일 티페트 여성 분신자살… 올해 들어 처음

인도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3월 10일 '반(反) 중국 항쟁일' 56주년을 맞아 뉴델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다가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 현지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티베트인들은 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해방' 등을 외치며 '인간띠 잇기'를 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 자치구)에서는 1959년 3월 10일 중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해 티베트 임시 정부 추산 8만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후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임시 정부 관리들과 추종자 1천여 명을 이끌고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고, 세계 각지의 티베트인들은 이후 매년 3월 10일을 '반 중국 항쟁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5일 티베트에서는 한 여성이 중국 통치에 항의해 분신자살 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티베트족 여성 노르추크(47)가 중국의 탄압 통치에 항의해 분신자살 했다"며 "이 여성은 6일, 은가바 군 트로추크 마을에서 분신 자살했으며,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당국이 시신을 거둬가서 화장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한 티베트인 분신 사건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2월에는 1주일에 3명이 분신 자살하기도 했다.

현지 소식통은 당시 분신한 3명 가운데 한 명은 칼상 예시란 이름의 승려였으며, 중국 쓰촨 성의 사원 밖에 있는 경비 초소에서 티베트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소리 높여 촉구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전했다.

이 승려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경찰 당국이 시신을 거둬갔다.

당시 중국 경찰이 분신 자살한 승려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고, 가족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현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승려가 숨진 뒤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34살 남성과 20살 여성이 연이어 분신 자살했다.

이나은 기자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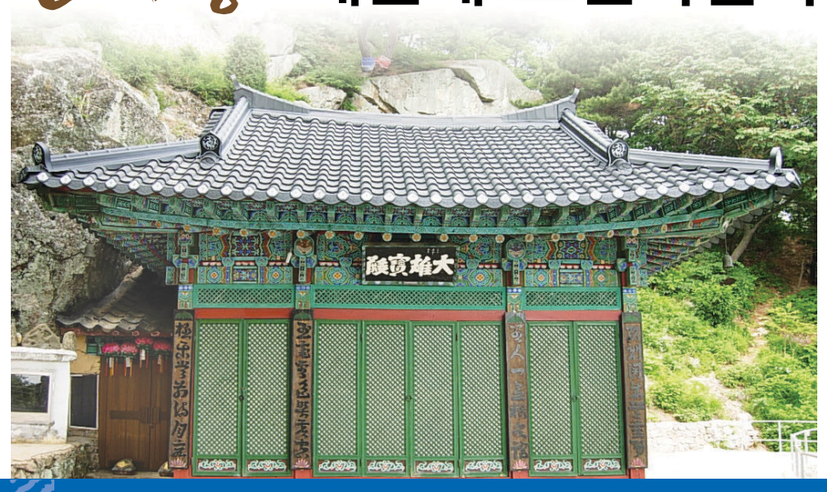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대만 "공승제"

● 출발일 : 9월 2일 5일 요금문의

대룡훼리 산동성 5일
〈출발 매주 화 · 목〉 요금문의

위동훼리 태항산 핵심일주 6일
〈출발 매주 목 · 토〉 요금문의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요금문의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요금문의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요금문의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요금문의

'꽃보다 할배' 이번엔 그리스 문화탐방 완전일주 9일
산토리니, 루이스쿠르즈 탑승. 중간항공 2회 요금문의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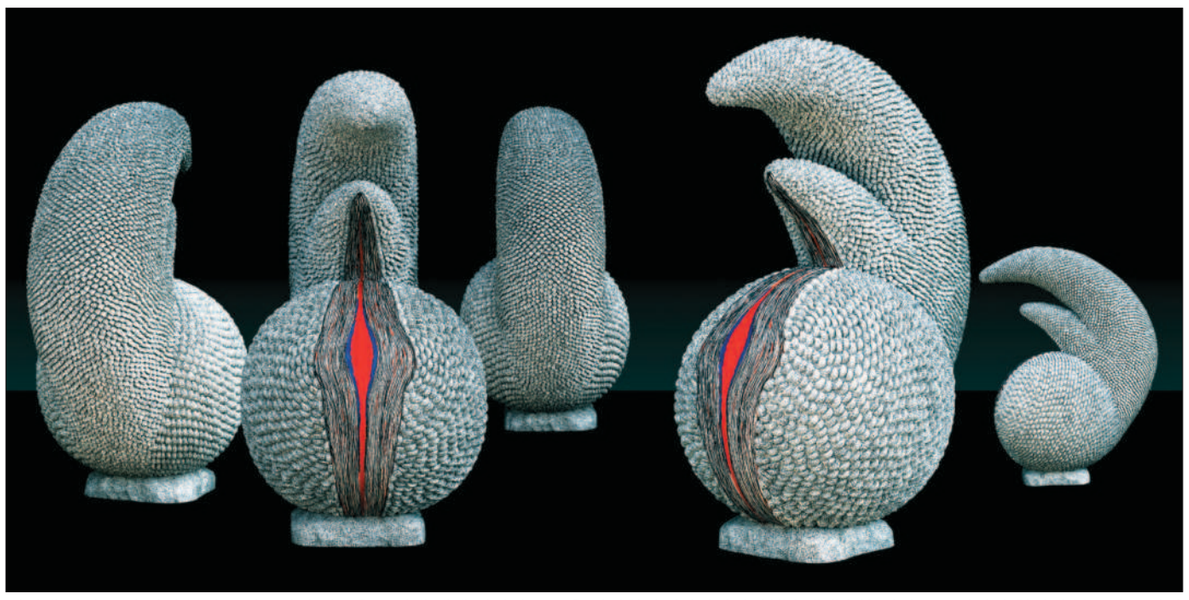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만다라에 담긴 '空' … 단 한 번 붓질로 역동감

허회태 개인전 3월 19일~27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서



허회태 작가는 한 번의 붓질로 역동적인 작품을 표현해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 시리즈는 만다라 형식에 불교의 공사상을 담아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시간의 그물로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들의 착각이다. 어느 누구에게는 순간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영원이다."

'감정'(emotion)과 '서'(calligrahy)를 합성해 서예와 그림을 융합한 독특한 장르인 이모그래피(emography)를 만든 허회태 작가는 한 번의 붓질로 역동적인 작품을 표현해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국내는 물론 스웨덴,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호평받는 허회태 작가가 개인전을 갖는다. 3월 19일~27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설치 등 10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작품으로 표현한 신작 회화와 조각설치 작품은 서예, 이모그래피 등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 시리즈는 만다라 형식에 불교의 공사상을 담아냈다.

특히, 연꽃 형상을 본뜬 작품은 우주와 생명 탄생의 연관성을 만다라 형식으로 승화시켰다고 작가는 말한다. "환희의 절정을 연꽃이 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우주의 형상이 분해되어 무한 공간의 우주로 에너지와 생명이 확산되는 기운을 표현한 작품이죠.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땅속의 마그마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인간의 탄생은 어머니의 태반으로부터 시작되죠. 군상들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다시 모여 천지 창조를 꿈꾸는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탄생의 순간이 곧 작가의 깊은 사유와 철학을 바탕으로 빚어낸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이다. 작가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제목은 불교의 공사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금강경의 공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불교철학에 심취하면서 매일 아침을 반야심경을 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이렇다보니 작품의 방향도 불교의 공사상을 담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적 형식은 만다라에서 빌려왔는데 만다라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空 사상 담은 '비상비비상' 시리즈
3D 작품 신작회화 등 101점 선봬
서예 · 그림 융합 '이모그래피' 개척

호기(浩氣), 일유(逸遊), 균협(均浹), 비움 등의 이모그래피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비움'은 'ㅂ'을 그릇 모양으로 표현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작가는 "'비움'의 글자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치 좌우로 서있는 사람이 빈 그릇을 향해 서있는 모습에 의미를 부여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불필요함을 버리고 비움의 이치와 지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먹선의 강한 터치와 우연의 효과를 보여주는 균협(均浹)은 마음과 붓이 하나됨을 보여준다.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형상의 속박을 떨쳐 버리면 물상의 본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종종 나는 듯 뛰는 듯, 소리를 지르는 듯, 바람이 스치는 듯, 마음에 떠오르는 미묘하고 다양한 심상의 찰나를 폭발적인 동적 미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 · 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논문 및 저서로는, '안진경 서예술의 소고', '전각 예술의 생명이 의미하는 표현형식', '書에 근원을 둔 회화의 현대적 표현연구', 이모그래피와 전각 작품집인 '반야심경', '명언 명시집' 등이 있다. (02)588-332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비움'은 'ㅂ'을 그릇 모양으로 표현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말한다.

양산시립박물관 12월까지 이달의 전시

3월 첫 전시로 지역 출토 유물 금동반가사유상 공개

금동반가사유상 등 문화재를 매달 새롭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3월~12월 10개월 동안 매달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급 유물과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체 전시하는 '이달의 전시'를 시행한다.

양산시립박물관은 "소장품 중 역사적 · 예술적 가치가 우수하고 지역역사 문화를 대변하는 엄선된 작품들을 박물관 로비에 전시, 관람객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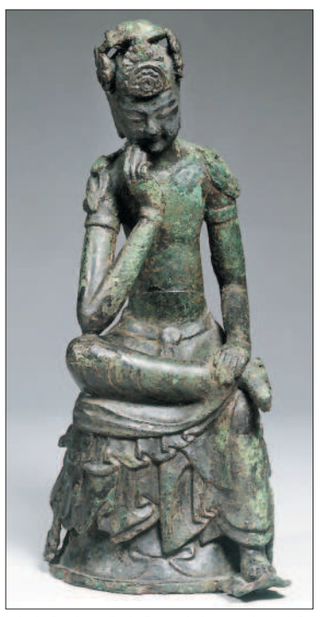
특히 이달의 전시는 양산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피 위크엔드(Happy Weekend) 사업과 연계해 작은음악회, 가족영화상영 등이 함께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장으로부터 직접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첫 시행되는 이달에는 비교적 국내외에 잘 알려진 양산 유산동에서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을 테마로 전시한다. 이 작품은 7세기 삼국시대 조각의 백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물급 문화재로, 양산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 설명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가사유상의 발견 경위와 에피소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국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세계 만방에 양산을 알린 금동반가사유상의 위상, 작품과 연관된 삼국시대 미륵신앙 등 다양한 문화사적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055)392-3322

정혜숙 기자



양산 유산동에서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

예술세계의 근원과 이상향 나무 속에 투영

장욱진의 '나무전' 4월 12일까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불자 서양화가 故장욱진 화백(1917~1990)의 나무전이 4월 12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다. 장욱진 화백은 박수근과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의 근 ·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채색화, 판화, 판화 원판 등 나무를 모티브로 한 장욱진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에게 있어 나무는 원초적 자연이자, 예술세계의 근원이 되는 이상향 이다.

특히 1983년작 나무(Trees)는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바람을 받아 왼쪽으로 휘어진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완전한 좌우대칭으로 서있고, 중앙의 축으로는 사람과 개, 집, 해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나무 위에 앉은 까치만이 완전한 좌우대칭에서 작은 변화를 준다. 두 그루의 나무는 큰 동양화 붓으로 한 번에 그린 듯한 즉흥성과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1983년 작품 '나무'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한편, 장욱진 화백은 아내의 법명을 붙인 '진진묘(眞眞妙)'라는 작품을 통해 독실한 불자인 아내의 모습을 표현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달마상' '팔상도' '사찰' '미륵존여래불' 등 다양한 불교작품을 남겼다. (031)8082-4241

정혜숙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토요 인문학 강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3월부터 '박물관 토요 인문학 강좌'를 연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신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신라 왕의 무덤', '불교조각', '금석문', '석탑' 등을 주제로 현직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강사로 나선다.

3월 '고분 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삶과 죽음'을 시작으로 △4월 금석문으로 본 신라 역사 △5월 신라 왕의 무덤 △6월 신라석탑의 기원과 발전 △7월 영혼의 전달자, 오리모양토기 △8월 청자의 시작과 발전 △9월 중국의 토용 문화 △10월 신라의 불교조각 △11월 청동기 시대 고인돌 등이 진행된다.

참여 접수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참가신청)'에서 진행일 2주 전부터 예약접수가 시작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054)740-7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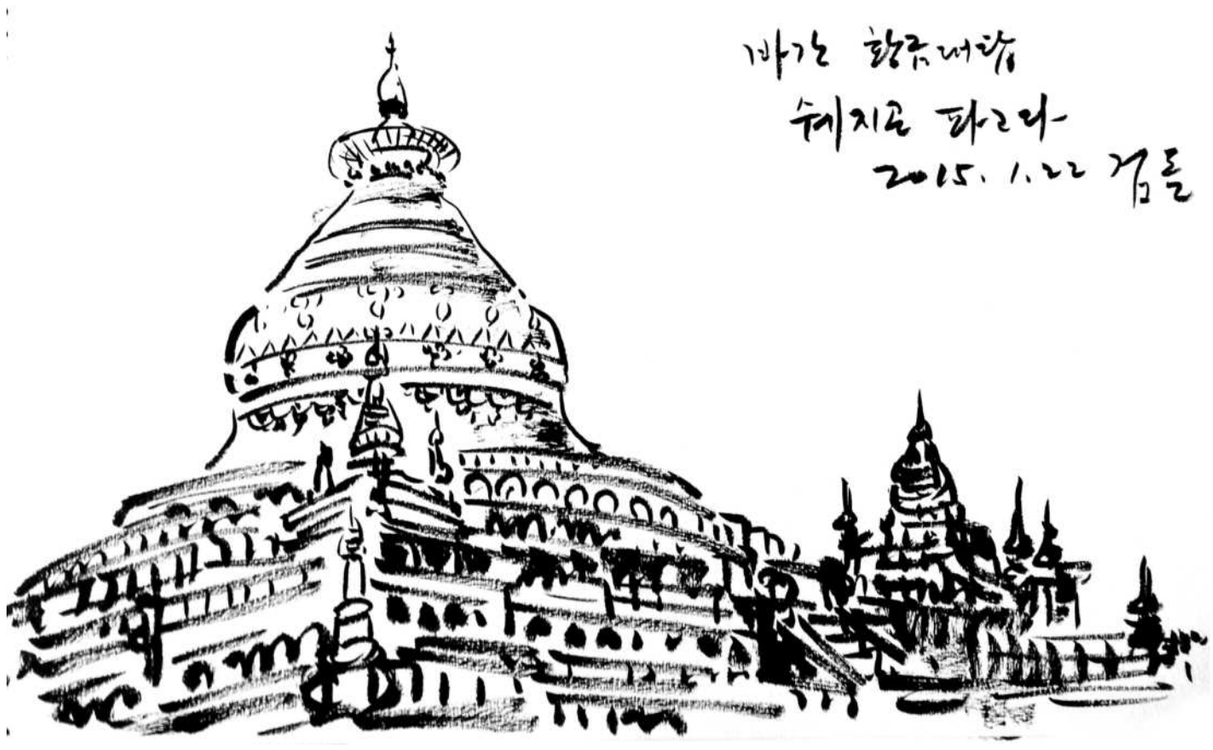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①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불탑이 지친 마음 위로… 영혼은 빛을 얻네



쉐지곤 파고다는 부처님의 앞머리뼈와 모조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거대한 황금빛 사원이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다.

작가는 끝까지 현역이어야 한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숨결만이 깊은 호흡이 된다. 시간의 궤적을 따라 아로새겨지는 정신의 무늬를 탐조할 때 영혼은 빛을 얻고 길은 미래로 향한다. 여러 해 지리산에서 시인과 화가가 만나 순례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이미 세계의 수많은 불교유적을 찾아서 각 나라를 탐방하여 천불만다라를 완성한 이호신 화백과 이종성 시인이 1월 21~26일까지 4박 6일 동안 여행한 미얀마의 숨결과 정신을 4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만남과 성찰의 길에 오르다

새로운 시작은 떠남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매듭짓고 난 후이거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올린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은 종종 나를 가두는 감옥일 때가 많다. 그 감옥을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여행이다.

김해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한 시간 반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북경공항에 도착한다. 다시 미얀마로 가기 위해 환승수속을 밟는다. 출발할 때부터 발부된 티켓을 소지하고 줄을 선다. 줄이 길다. 절차가 까다롭고, 전반적으로 출입국관리(immigration)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저녁을 먹고 나니 출발시간이 가까워졌다. 출국 게이트로 향한다. 떠날 곳에서 떠난 곳을 본다. 경유지에서 또 떠나는 곳을 본다. 여행은 낯선 길 위에서 그렇게 이어진다.

이륙한 비행기는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순항에 들어간다. 비몽사몽,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현지 시간 22시 50분(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20분) 미얀마 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현지 가이드가 반겨 맞는다. 잠시 차를 타고 숙소인 호텔로 간다. 바뀐 환경, 소형 냉장고 소리, 놓친 취침 시간 등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불토의 첫 아침 붉은 미소로 동트다

새벽 4시 모닝콜이 울린다. 바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간다. 공항의 모습은 우리나라 칠십 년대의 풍경 그대로다. 새벽시간에 처음으로 만나보는 미얀마의 사람들, 순박하고 조용하고 꾸밈이 없다. 순일 무잡한 흰 꽃 '스페'를 들고 '원 달러'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여인들이 보인다. 저 꽃의 용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꽃 이름은 이후 방문한 사원에서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알게 되었다. 인동의 향기가 맑게 배었다. 간단한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올 때 호텔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한 아침을 먹는다. 포토 그래퍼 전윤호 선생님의 0교시 수업 '색시와 아주머니의 어원과 음운론'이 여행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비행기는 제트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소형 비행기다. 여행의 고전적 기대감이 더해진다. 미지의 땅, 황금의 나라, 불토(佛土)로 가는 첫 일정이다. 승객들을 맞는 스튜어디스의 미소가 붉다.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아침의 노을빛 색조와 닮았다. 여명이다. 저 붉은 미소 속에서 부처의 미소가 보인다. 아내의 미소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륙한 비행기가 바간을 향하여 날아간다. 오전 6시 38분 기내의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른다. 바야흐로 이 불국토의 땅에 동이 트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최대성지 바간… 2700여기 불탑 산재

성인식, 마을 잔치 이후 절에서 삭발의식

황금탑 '쉐지곤 파고다' … 맨발 입장 인상적

아난다사원, 동서남북 9.5m 목조불상



높이 9.5미터에 달하는 아난다 사원 목조 불상

마을의 축제 진기한 성인식을 보다

바간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이동한다. 바간은 미얀마가 가장 강성했던 아뇨라타왕 때 통일왕국의 수도였고, 약 오천여 기가 넘는 탑과 사원을 건축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1287년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한 멸망과 그 이후 대지진 등으로 상당수가 파괴되고 남은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간은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자 황금 불탑의 도시로 대략 2700여 기의 불탑이 산재해 있고,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얀마 전통시장을 보러 시내로 향한다. 목적지 근처에 이른다. 차와 사람의 물결이 온통 거리를 메웠고, 흥겨운 노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풍경이 벌어졌다. 색색의 미얀마 전통 의상 론지(남자는 빠쏘, 여자는 타메인)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행렬이 장관이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이자 천연화장품이라고 하는 '따나까'로 분장을 하였다. 선두 차량은 온통 악기들로 꾸며져 있고, 하늘과 땅과 영혼을 두드리는 울림이 생생히 전해진다. 그 뒤를 따라 코끼리, 물소, 말 등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아이들과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 진기한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진을 찍거나 캠코더로 촬영에 바쁘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성인식'이라고 한다. 그동안 넉넉지 못한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치르지 못했던 그 의식을 이날 모두 모여 한꺼번에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마침 그날 우리 일행이 도착하여 보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성인식 다음날에는 마을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후에 절에 가서 삭발을 한다고 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치르는 일생일대의 성대한 행사로 그 의미가 진중하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전의 부처를 살고자 하는 미얀마인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자기 문화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뿜어내는 바래지 않는 영혼의 색채요 풍경이다.

행렬에서 나와 전래시장으로 향한다. 아보카도, 두리안, 파파야, 망고 등 이름이 생소한 열대과일들이 지천이다.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며 장사하는 아낙네며, 고산지의 생산물을 팔고 있는 처녀들이며 시장은 활기가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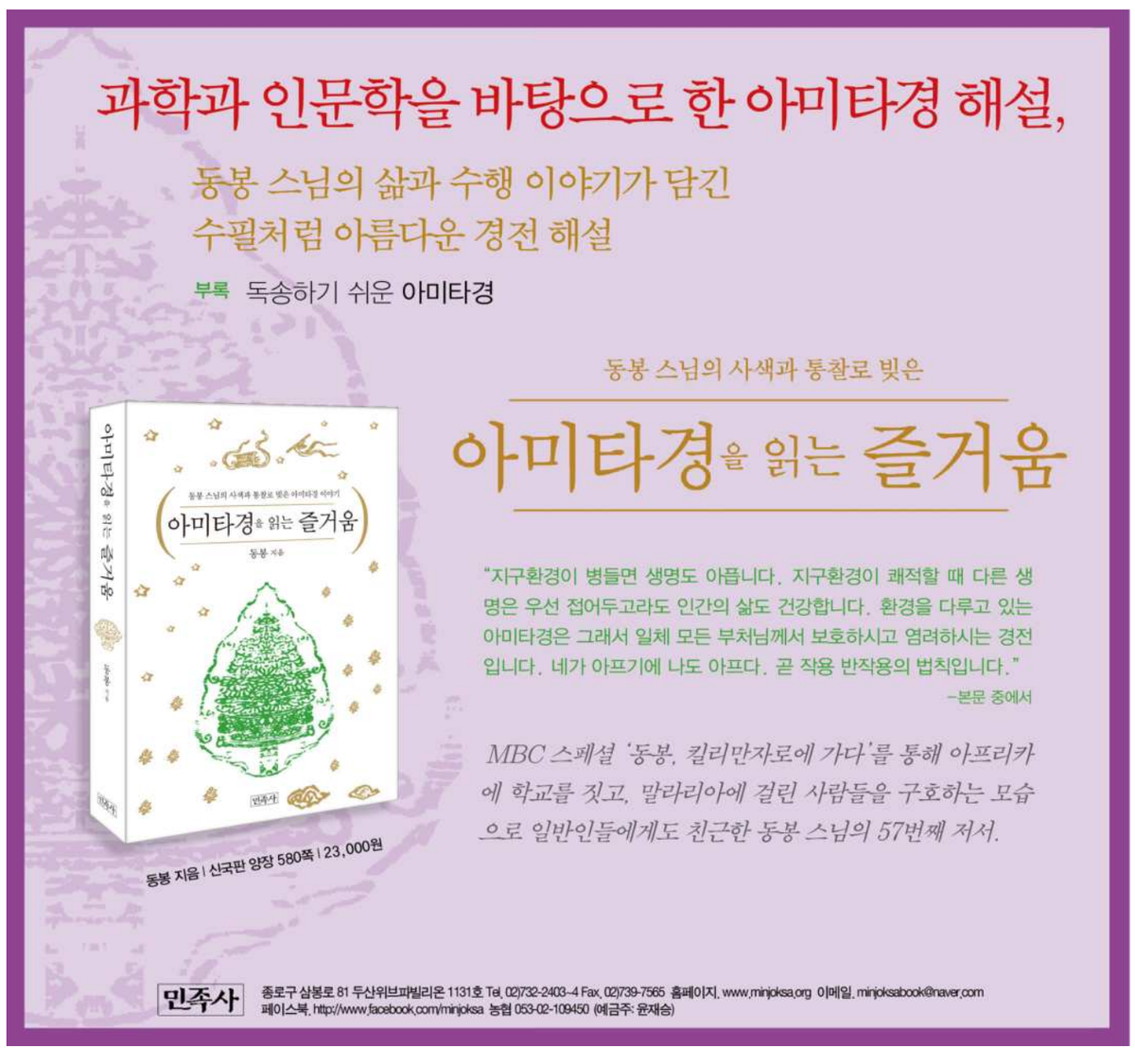
황금사원의 빛에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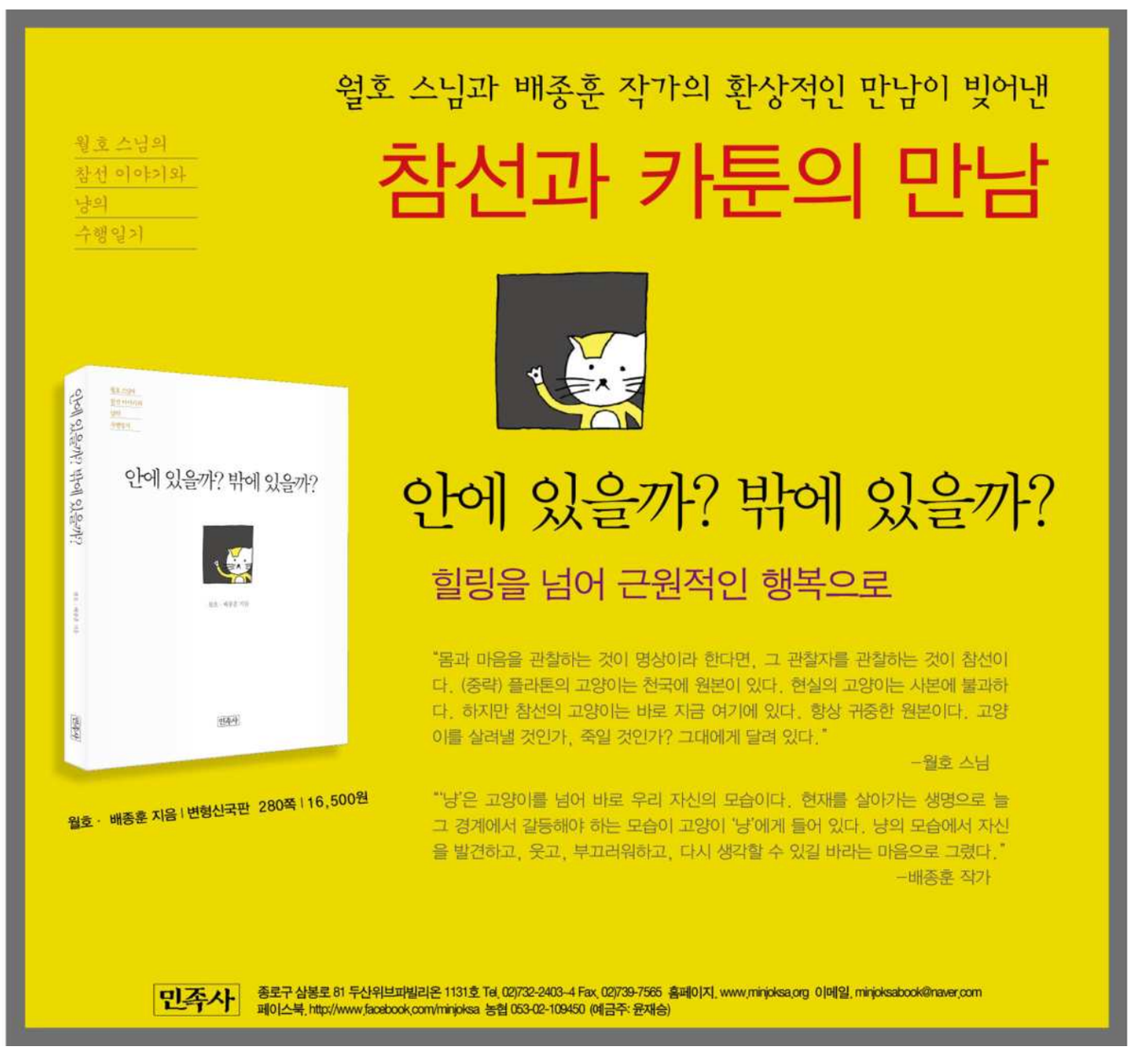
황금 대탑 '쉐지곤 파고다'에 도착한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입장한다. 맨발! 참 좋다. 시원하다. 아플 때도 있지만 맨발로 오는 것들을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슬, 눈물, 꽃, 슬픔, 기쁨, 해, 달, 별, 사랑, 아기 등 모두가 맨발이다. 맨발은 하심(下心)이다. 하심 없는 걸음이란 구경일 뿐이다. 대상에 깃든 의미의 빛, 삶의 빛 그 자체를 보는 관광(觀光)이어야 한다고 벗는 신발이 귀띔해준다.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벗고 입장했던 기억의 장소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오랜만에 맨발로 걷는 걸음이 홀가분하다.

쉐지곤 파고다는 부처님의 앞머리뼈와 모조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거대한 황금빛 사원이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다. 미얀마 전체 탑의 원형 격이며 '불탑의 어머니'라고 불려진다. 기원전 1059년 아뇨라타왕 때 짓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쟌시타왕이 1085년에 완공한 탑이다. '쉐(shwe)'는 금을 의미하고, 지곤(zigon)은 모래언덕이라는 설명이다. 높이는 대략 50미터에 달하고 정방형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커다란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미얀마의 탑은 크게 두 가지로 형태로 나뉜다. 탑의 내부에 공간이 없이 메워진 밀폐된 형태의 '제디' 양식이 있고, 그에 반하여 탑의 내부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 기도 공간이 있는 '파토' 양식의 탑이 있다. 이 쉐지곤 파고다는 제디 형식이다. 미얀마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탑의 보통 명칭으로 ' 파야(Phaya) ' 란 용어를 쓰고 있다. 사원은 먼저 옻칠을 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작업을 개금이라 한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유럽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원의 건축 재료는 돌을 벽돌 크기의 형태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단의 일부 아랫부분이 마감 재료를 대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난다 사원, 극치에 이른 순일한 조형미 일품

이어 아난다 사원으로 이동한다. 1091년경 쟌시티왕이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사원이다. 동서남북 네 군데에 높이 9.5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목조 불상을 모셨다. 남쪽과 북쪽의 불상은 당대의 것이고, 동쪽과 서쪽의 불상은 화재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극치에 이른 순일한 황금빛 조형미가 아름답고 화려하다. 사원의 내부는 동서남북으로 돌 수 있는 회랑이 3개가 있다. 가장 안쪽은 왕이 다니는 통로이고, 중간은 귀족들이 다니고, 가장 바깥쪽은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통로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안쪽 가까이 올수록 부처님의 얼굴이 매우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이고, 서민들이 다니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환한 미소로 보인다는 점이다. 권위가 높고 가진 자에게는 엄하여 평정심을 잃지 마라는 메시지요, 서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온후하여 희망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고자 했던 부처의 마음이었으리라. 극적의 경지에 이른 예술미와 구도 정신의 조화가 이룬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을 것이다. 그밖에도 내벽의 수많은 감실에 작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 ~ 3/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3	밥값 했는가	도원스님 외	불광출판사
4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최인호	여백
5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6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7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10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해인사	해인사출판부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퇴계 학문은 불교 선지식과 교유통해 완성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퇴계의 학문은 서산 대사를 비롯한 불교 선지식들과의 교유를 통해 완성됐다.'

〈십우도〉 〈탄트라〉 등으로 불교문학의 정점을 보여준 백금남 작가(사진)가 새로 펴낸 소설 〈퇴계〉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

얼핏 보면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퇴계와 스님들과의 학문 교류가 당시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에서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지만, 백 작가에 따르면 퇴계는 불교를 바탕으로 주자학서 독립된 우리만의 새 학문을 정립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소설의 설정도 퇴계 선생이 서당 운영을 스님에게 맡긴 부분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픽션이다. 이 책은 명성에 비해 행적이 덜 알려진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세계와 일상적인 삶, 사랑 이야기 등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냄으로써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였던 퇴계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살인사건을 추적해가는 추리 소설의 형식을 통해 흥미진진하고 속도감 있는 흐름 속에서 퇴계의 학문과 인생의 속살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백 작가는 이번 책을 위해 수년간의 자료 조사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3년여에 걸쳐 유학을 공부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소설은 서울 마포나루 인근 초막서 발견된 변사체를 율곡이 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체는 다름아닌 신선공부를 하는 '도적' 이란 이였다.

특이한 것은 시체가 단 아래서 부처처럼 가부좌를 튼 채 눈 감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임금의 명을 받고 조사에 나선 율곡은 퇴계 선생이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에 퇴계의 누명을 벗기고자 봉화 도산서당으로 찾아간다.

이 과정서 조선시대 학문의 전성기를 연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율곡 이이의 사상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서른네 살의 패기만만한 율곡과 예순아홉 살의 퇴계, 그리고 이미 팔십여 년 전에 죽은 조광조의 사상이 한 공간서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이 책의 백미이다.

퇴계의 사상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서 재조명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최고 석학들이 퇴계 사상을 신봉하고, 유럽 각지의 저명한 동양학자들이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퇴계1·2

백금남 지음 | 골레마 펴냄 | 각 권 1만 4천원

퇴계의 삶, 사상, 정신세계 소설로
살인사건 추적해가는 추리소설 형식
소설의 큰 줄기는 만년의 3년간 다뤄
퇴계의 사랑도 한축… 독서 미각 돋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퇴계 선생의 업적이 점점 묻혀버리고 있다. 퇴계의 학문이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 퇴계의 삶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려는 태도 때문에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외면당하는 것이다.

백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퇴계의 궤적을 쫓아 씨름하던 지난 6년여의 시간은 고행의 연속이었다"며 "이 시대에 왜 퇴계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세상 인심이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조촐한 인격을 지켜나간 대장부의 삶, 그것이 내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또한 백 작가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퇴계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인격을 완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이를 배운대로 실천에 옮기는 인격수양에 더 치중한 이유입니다"라고 그동안 연구한 퇴계의 사상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백 작가는 퇴계의 이런 업적에 천착해 글감으로 사용했다. 140여 차례나 벼슬을 고사하고 평생 마음공부에 정진해온 참 선비, 치열하고 집요한 연구로 조선 성리학을 활짝 꽃피운 사상가, 직접 교육 사업을 일궈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실천적 철학자, 기녀 두향과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노학자 등등이다. 이 책에 담긴 퇴계는 대학자이기 이전에 정신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 고결한 인격자로 조명돼 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 좀더 소설 〈퇴계〉를 살펴보면 임금의 명을 받은 율곡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퇴계를 추적하는 추리소설 형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의 큰 줄기는 퇴계의 만년 3년간을 다룬다. 그러나 퇴계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서 퇴계의 소년기, 결혼할 당시 모습, 관직 생활 하던 시기 등으로 여러 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자연스럽게 인간 퇴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로써 퇴계가 어떤 인물이며, 그가 평생 갈고닦은 학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책은 총 두 권으로 돼 있다.

1권은 퇴계를 추적하는 율곡과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퇴계의 관점서 한 장씩 교차 서술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로써 긴장감이 점점 고조돼 두 사람이 만나는 2권 앞부분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2권은 살인사건과 이단학문인 도교를 매개로 폐쇄된 도가 수련원인 소격서에서 퇴계와 율곡이 각자의 사상을 피력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조선시대 학문의 전성기를 연 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시 지식인의 고민과 학자로서의 역할, 선비의 도량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시대에 어떤 지식인이 필요한지, 참 교육의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일깨운다.

이 소설에서는 퇴계의 사랑도 한 축을 담당해 독서의 미각을 돋운다. 퇴계는 단양군수 재임 시절 두향이라는 기녀를 만나 매화를 매개로 애틋한 정담을 주고받으며 정분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정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교감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노학자인 퇴계와 젊은 기녀 두향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정사에서 외면한 인간 퇴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줘 자못 흥미롭다.

본래 진면목, 내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 · 배종훈 지음
민족사 펴냄
1만 6500원

월호 스님은 불교계의 힐링멘토다.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전교실, 시민강원, 시민선방을 운영하는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tvN의 3대 종교인이 만나 솔직담백한 토크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 마이 갓'에 출연하는 등 매체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현대불교신문〉 등 교계 언론을 통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툰, 일러스트, 페인팅 작업을 해 온 배종훈 작가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카투니스트다. 작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14 어포더블 아트 페어'에 처음 참여, 한국 불교를 소재로 한 회화 작품으로 유럽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이탈리아서 열리는

참선과 카툰의 신선한 만남 '눈길'
스토리텔링 기법… 참선과 수행일기

'2015 어포더블 아트 페어(Affordable art fair)'에서 우리의 불교문화와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선(禪)' 회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책 한권을 펴냈다. 월호 스님과 배종훈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책,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는 출간 전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는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냥의 수행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힐링선(禪)'을 주창한 월호 스님의 유쾌한 참선 이야기와 참선을 일상의 깨달음으로 승화시킨 카툰 '냥의 수행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참선과 카툰의 만남만으로도 의미와 재미를 더해 주는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라는 제목부터 다양한 차원의 사유와 궁금증 유발하듯 참선의 세계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총 6장으로 편집된 이 책은 일종의 잠언과 같이 읽혀진다.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옛 선사들의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던 일화에 얽힌 게송 이야기 또한 매우 편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와 읽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배 작가는 "'냥'은 고양이를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려는 마음과 그 수행의 과정에서도 늘 욕심과 욕망에 붙들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으로 늘 그 경계에서 갈등해야 하는 모습이 고양이 '냥'에게 들어 있습니다. 냥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라고 밝힌다.

배 작가의 말처럼 냥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뛰어넘고 본성을 깨우쳐가는 고양이 '냥'의 수행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일기인 것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는 '냥'의 모습, '냥'의 한마디 탄식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우리와 똑같은 '냥'의 모습을 통해 공허한 관념이 아닌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세계로 다가서게 된다.

월호 스님도 "무엇인가 밖에서 구한다는 것은 헐떡이는 겁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밖에서 구한다는 것은 아직 불지견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헐떡이면서 밖에서 구할 일이 없는 겁니다."라며 시종일관 우리에게 본래 갖춰진 부처님 성품을 자각하도록 이끌어준다. 자기 안의 불성(佛性)에 대해 인식하기만 해도 더 이상 헐떡이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참선을 견성법(見性法)이라 하는 것도 참선이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성품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월호 스님은 중국 선종을 꽃피우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6조 혜능 대사의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혜능 대사 개인의 천재적인 수행력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일자무식의 나무꾼도 불성을 깨달았다', '무식한 나무꾼도 깨닫는데 어찌 내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하는,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불성에 대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 자신감을 찾게 된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갑니다. 선악의 잣대로 재고 선악에 걸리는 것은 세속의 가치이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고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선악의 저 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이 불교요, 특히 선불교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동화선사는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 동화산에 있다. 6세기 인도의 고승 지약삼장선사께서 오셔서 영취사를 창건하셨고, 7세기에 육조혜능대사께서 수행 득도하시고 영취사를 동화선사로 바꾸고 흥성시켰지만 15세기 이후로 쇠퇴하였다. 1997년에 만행스님이 지약선사와 혜능대사께서 수련하셨던 동굴에서 3년동안 폐관수련을 하였고, 드디어 불성의 근원을 증득하고 출관하여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하였다. 만행스님은 동화선사를 선종의 도량으로 삼고, 대중들을 이끌어 해탈의 길을 전수하고자 서원하면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고, 부처님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노릇부터 잘하며, 도를 닦으려면 발심을 해야 한다."는 동화사 가풍을 세웠다. 현재는 5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거대 사찰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참선수행 정진하고 있다.

■ 구입처 : 02)2249-5630 대유학당 / 전국 유명서점 및 온라인 서점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 · 진 · 치 · 만 · 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기심무주 ▶ 2016년 출간예정!!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집착이 없어지면 뒤집혀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몽상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각조를 지닐 수 있다.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이 셋은 수행해서 득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뜻하면서,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할 때 항상 이 세 마음을 받들면, 마음과 몸에서 곧바로 명월(明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유, 사색, 성찰… 삶의 든든한 생존무기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 습관이 바뀌고 있다. 지하철이건 버스안이건 공공장소에서 검색하는 이들을 쉽게 목격한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단순 정보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사유의 능력은 저하된다. 사유를 잃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다독가, 따듯한 직설가, 공부하는 스님으로 통하는 법인 스님은 이 책에서 '검색'과 관련된 키워드인 경직, 고착된 생각서 벗어나 활발히 움직이는 내 머릿속 '사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펴낸 책이 바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다. 이 책에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한다.

'스님'은 사유 전문가다. 수행자로서 모든 일상이 사유와 공부에 맞춰져 있어서다. 법인 스님은 그 속에서 체득한 사유의 열매를 그동안 세상과 나눠 왔다. 세상의 고민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따뜻한 처방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병' 주고 '약' 주는 스님으로 통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자신의 '사(思) 생활'을 들려주며, 늘 생각하고 성찰해 '헛것'에 홀려 살지 말 것을 '직설'과 '공감'으로 변할 것을 권한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닌 내적인 성찰을 통해 마음을 돌보라고 한다. 사유, 사색, 성찰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생존의 무기임을 이 책에서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스님은 말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나(붓다)의 말도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유하며,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의 과거를 조사했더니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바로 '사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조직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지만, '사유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뇌당한 관습적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크게 봐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칼럼식 글들은 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연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논조는 합리적인 의심과 정직한 성찰로 모아진다. 우선, 지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하고 성찰해 보라고 스님은 조언 한다. 행복의 조건, 사랑의 기준, 성공의 개념…… 등등.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이런 첫 단추, '조건과 기준,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도와 성장을 목표로 개인을 도구화하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국가권력과 기업, 학교 등 사회 구조도 개인의 불행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회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방향타가 사회의 요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냉엄한 진단도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스님은 말한다. "내 삶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가? 나는 지금 남의 삶을 눈치 보며 흉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편에서는 SNS나 온갖 스마트폰이 발달한 현대사회는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점점 자기만의 생각법을 잃어간다고 충고하는 내용이다. 스님은 오히려 많이 아는 시대에 적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시대에 사고가 협소해지는 이른바, '검색의 시대', 사유가 중요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유, 만남, 반성, 삶 등 4주제 구성
사유전문가 사(思)생활 비법 10 소개
"삶 바꾸는 것 모두 '생각의 힘' 달려"

2장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라'에서는 〈안도현의 연어〉 〈비노바 바베 평전〉 〈김예슬 선언〉의 독후감을 소개한다. 화려한 삶을 버리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간 비노바 바베에게선 삶의 가치를, 대학을 거부하면서 수동적 삶과의 안녕을 고한 김예슬을 통해 서는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은 만남이 주제다. 이 장에서 스님은 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 길은 세상에 대한 연민과 자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스님의 전언이다.

마지막 4장 '스님의 반성문'을 읽다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수행자로서, 세속화된 종교에 대한 반성문들이다. 해탈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깨어 있는 사유와 성찰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깨달음이 먼저인가, 자비가 먼저인가'라는 물음에 새는 양 날개로 날아간다는 비유, 가톨릭의 성 프란치스코 기도문을 반야심경으로 치환해 모든 종교의 목적이 자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종교의 본질에 대한 스님의 마지막 말은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긴 여운을 남긴다. "종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의 위로처이다. 힘없는 사람들의 의지처이다. 종교는 아무 힘이 없음으로 해서 가장 특별한 힘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법인 스님의 사(思)생활 비법 10

1.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것, 모두가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뒤집어보라.
2. 삶의 변화는 익숙함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다.
3. 위로 받기 전에 냉엄하게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해 보라.
4.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5. 나의 말도 의심하고 한 번 더 헤아려 보라.
6. 만족과 감사의 기도만이 나의 최선인가?
7. 이미지와 감성에 속지 마라.
8. 물어라. 묻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9. 생각 그리고 사랑, 연습하면 무르익는다.
10. 해탈과 천국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부 관계는 남남 모인 '물과 기름' … 서로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야

붓다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타가미타이슈 지음 | 원영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 | 1만 2천원



불교의 여러 경전 중 특히 윤리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육방예경〉을 통해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 스승과 제자, 사업주와 직원 등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맺게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예의에 대해 깨달음의 지혜를 알려준다.

특히 저자는 부부 관계의 중요함과 특별함을 설명하면서, 원래 남남에서 시작된 부부 관계는 '물과 기름' 같아서 죽을 때까지 섞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친구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펼쳐진다.

현대사회의 노사관계에 대해 저자는 〈육방예경〉 속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식사와 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병이 났을 때 간병해야 하는 등 직원을 위해 애써야 한다. 그리고 직원 또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까.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매순간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 네트워크가 아닌 현실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쉽게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나 회사의 노사 갈등 등은 모두 타인과 관계 맺기가 서툴러 발생하는 일이다.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2600여 년 전 부처님도 일생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설법을 행했다. 열반에 드신 후 몇 천년이 지나 사람 사는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품는 고민은 부처님 생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관계 맺기에 대한 붓다의 지혜를 알려주며, 친구 관계에서부터 가족 관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맺기를 새롭게 시도해볼 차례다.

불교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으로 저술된 지 몇 천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아직 낡지 않았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평등과 자비라는 인류 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최고의 불교 연구 권위자인 저자가 다양한 자료를 연구해 참신한 시각으로 불경을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 타가미 타이슈 박사는 〈숫타니파타〉 같은 초기 불교 경전을 인용해 〈육방예경〉의 설명을 보충하며,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돼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오류들을 고대 인도어 원전과 비교해가며 꼼꼼하게 바로잡는다. 또한 저자가 NHK 라디오서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 이 책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와 간결한 문체로 서술된 점도 이 책만의 장점이다.

관계 두려운 시대, 佛法서 해답을
일본 불교학 권위자인 저자
불경 현대적 해석 진수 보여줘

한국어판 역시 일본 하나노조대학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BBS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풍경' 진행을 맡아 전문성은 물론 대중의 목소리에 익숙한 원영 스님이 번역을 함으로써 원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아직도 현대인의 삶에도 중요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평등이라는 보편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 부부, 스승과 제자, 경영자와 직원의 사이가 인간으로서 평등하지 않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길 것이고, 스승과 경영자는 제자와 직원을 함부로 대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실천의 화두를 던져준다.

고타마 붓다는 재가 신도 중 부유한 자산가의 자식이던 싱갈라 청년에게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육방예경〉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외워서 전승한 책으로 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실생활의 지침이 담긴 초기 불교 경전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가 방대하고 너무 어렵다고?

한권으로 읽는 불교이야기

성기용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사상 체계, 나아가 불교 역사와 불교 경전, 대승불교와 생활규범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알면 좋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불교 전공자가 아닌 저자가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 즉 불교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는 사실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일반 불자의 눈높이에서 불교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독실한 불자인 저자는 오랜 공직생활 후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 시발점은 능인선원 불교대학이다. 저자는 평생 반려자인 부인과 함께 그곳서 몇 년 동안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좀더 쉽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누누이 제기된 문제지만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불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덧붙여, 저자가 느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많이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는 불교를 처음 배우는 초심자 입장서 불교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출간을 준비하던 중에 저자는 세상과의 인연을 다했다. 이번 책은 도반이자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한 부인이 남은 원고를 정리해 출간한 것이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책 내용은 이렇다. 1장에서는 불교의 시작이자 그 자체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즉 탄생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간단히 정리했다. 2장에서는 '과연 불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불교는 인간의 종교이자 인간 평등의 종교,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장은 불교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는데, 근본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전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6장에서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대승불교에 대해 살펴보는데, 대승불교의 특징으로 불타관, 보살, 일불승 등을 고찰하고, 핵심 교리인 공과 실천덕목인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섭법 등에 대해 실었다.

또한 7장은 출가자나 재가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에 관한 내용인데 오계, 팔재계, 사미 및 사미니 십계, 십중금계, 사십팔경계, 참회 등 불자들의 생활규범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대승사상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다. 중관과 유식, 천태와 화엄, 선과 정토 사상 등 대승불교의 기본이 되는 주요 사상과 그 핵심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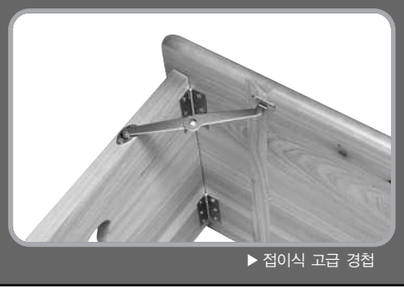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 60㎝ × D 40㎝ × H 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www.hyunbulshop.com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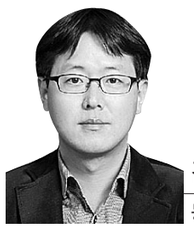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조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종교 난립한 근대… 불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불교로 읽는 古典

이능화의 〈백교회통〉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백교회통(百教會通)〉은 근대 한국학 연구의 초석을 닦은 상현(尙玄) 이능화(李能和, 1869-1943) 선생이 1912년에 펴낸 책이다. 이 책은 비교종교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으로 동서고금의 11개 종교와 불교의 교리를 비교 설명하면서 불교의 우수성과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는 기존의 유교, 불교, 민간신앙 등과 더불어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등 외래 서양종교와 신흥 민족종교가 혼재하면서 서로 각축을 벌여나가던 종교 경쟁의 시대였다. 더욱이 이 책이 나온 때는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종교적 염원과 바람을 통한 정신적 치유와 삶의 안정이 현실도피의 탈출구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저자인 이능화 선생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는 한편 불교에 큰 매력을 느꼈고 20세 때인 1889년에 고향 충청도 괴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 서양의 문물과 종교, 풍속 등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학 경험이었는데 타고난 어학 소질과 학습 능력 덕분에 여러 외국어를 마스터한 그는 한성 외국어학교의 교관이 되었고 1906년에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한성 법어학교의 교장, 1909년 한성 외국어학교 학감으로 부임하였다. 그가 특히 서양 언어와 종교, 신식 교육에 일찍부터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부친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부친인 이원긍은 유학자 관료 출신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부협판을 지내다가 독립협회에 가담하면서 옥고를 치렀다. 그때 미국 선교사의 교화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 성경의 〈마태복음〉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는 한편 애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인물이다. 이능화 선생은 기독교를 믿게 된 부친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하고 신앙했다는 점에서 종교의 선택지는 달랐지만 종교적 지향과 서양문명에 대한 관심은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능화 선생은 불교의 근대적 교육과 대중화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활발히 활동하였다. 1907년 명진학교의 교장이 되어 어학과 종교사를 강의하였는데 명진학교는 1906년 서울 동대문 밖 원흥사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불교학교로 현재 동국대의 기원이 된다.

또한 그는 1912년에는 불교 계통의 신식학교인 능인보통학교를 설립하여 3년간 교장을 맡았다. 이능화 선생은 일제의 강제병합이 있던 1910년 무렵부터 불교에 완전히 귀의하였고 이후 불교 잡지 간행과 학술연구에 전념하였다. 1910년대 중반부터 불교잡지 〈불교진흥회월보〉와 〈조선불교총보〉의 편집 및 발행을 맡았고 1918년에는 그의 대표작인 〈조선불교통사〉를 간행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도 학술연구 활동, 교육과 저술에 매진하였다. 우선 1922년부터 약 15년간 총독부가 조직한 조선사편수회에서 최남선 등과 함께 총35권의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원고를 집필하였다.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이 기간 동안 집필되었는데 조선사편수회를 통한 문헌기록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능화 선생은 1930년부터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조선종교사를 강의하였고 조선학연구 학회인 청구학회, 총독부의 보물고적보존회 등에서도 활동하였다.

그는 문헌자료의 집성과 불교를 비롯한 종교학, 한국학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였는데, 저술 또한 〈백교회통〉, 〈조선불교통사〉, 〈조선종교사〉, 〈조선무속고〉,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조선여속고〉, 〈조선해어화사〉 등 종교와 민속 관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이능화 선생은 근대기의 대표적 한국학자로서 한학과 외국어에도 능통하였고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민속 분야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많은 저작 가운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통사〉는 한국의 전통 사유이자 종교로서 일찍부터 자리 잡은 불교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집대성한 개설적 통사이자 방대한 자료집이다.

유교와 함께 한국적 전통의 주축을 형성한 불교의 지분과 위상을 고려할 때, 근대기 학술 영역에서 이루어진 인식으로서의 '전통의 형성' 과정에서 불교와 종교를 대상으로 한 이능화 선생의 연구 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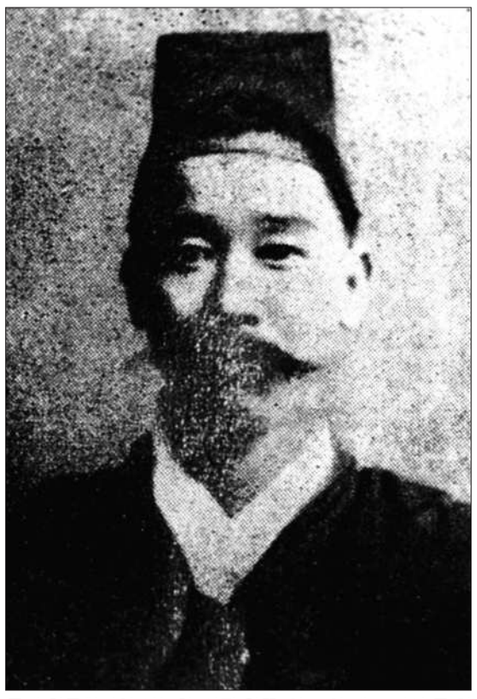
불교를 중심으로 그의 다종교 이해와 인식을 종합해 놓은 〈백교회통〉은 경성의 조선불교월보사에서 1912년에 98쪽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도교, 무교, 신선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브라만교, 태극교, 대종교, 천도교 등 한국과 세계의 11개 종교와 불교의 교리를 비교 설명하고 불교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책의 구성은 모두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2장은 각 종교를 불교와 비교 대조한 후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제1장 도교와 불교, 제2장 귀신술수의 교와 불교, 제3장 신선교와 불교, 제4장 유교와 불교, 제5장 기독교와 불교, 제6장 회회교와 불교, 제7장 바라문교와 불교, 제8장 태극교와 불교, 제9장 대종교(大倧敎)와 불교, 제10장 대종교(大宗敎)와 불교, 제11장 천도교와 불교에 이어 제12장은 총합 제교와 불교이다.

다음 제13장 불교요령은 불교의 교리를 요약, 소개한 것이고 제14장에서는 세간의 불교 비판론을 들어 그에 대한 변론을 서술하고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제14장은 다시 11개의 절로 구성하였는데, 불교를 허무적멸이나 염세적 종교로 비판하는 것부터 참선, 결혼과 육식, 우상숭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교를 비난하는 주장을 소개하고 반론을 펼치면서 이는 불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반박하였다.

끝의 제11절은 천국과 지옥, 세계와 우주, 중생이 곧 부처, 신통한 이적 등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의문이나 소박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 한국학자인 이능화<사진 왼쪽>와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백교회통(사진 오른쪽)〉. 이 책은 근대 서구 종교와 신종교의 도래가 빈번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종교들을 비교한 연구서이다. 불교 호교론적 입장이 주로 대변돼 있기도 하며 이를 통해 근대 종교로 불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 한학, 영어 능통한 근대학자 이능화
> 기독교 등 11개 韓·세계 종교 비교한
> 불교 호교론 중심 〈백교회통〉 저술
>
> 종교 진화, '무교-유교 기독교-불교'
> 다원주의·비교종교적 관점서 설파
>
> 근대종교로서 불교 책무 고민

이능화 선생은 당시 유행하던 진화론적 방법론에 의해 종교의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아래로부터 신교(무교)-도교-유교-기독교-불교의 순이었다. 그는 종교나 교리 면에서 불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본 반면 조선적 전통의 주류였던 유교에 대해서는 조선 몰락의 책임을 전가시켜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다.

한편 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종교를 다신교, 일신교, 무신교로 나누고 각각의 대표로 유교, 기독교, 불교를 들었고, 결혼양태를 기준으로 다처교, 일처교, 무처교로 구분하여 각각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의 교리와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 종교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늘(天)에 주목하였는데 하늘을 형체, 주재, 명운, 의리로 구별하여 유교는 넷 모두를 말하고 기독교, 이슬람교, 브라만교, 대종교, 천도교 등 대다수 종교는 두 번째 주재의 하늘에 해당하며 불교는 이 넷의 범주를 모두 뛰어 넘는 차원 높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능화 선생은 부친의 영향,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매개로 한 선교사 및 외교관과의 교류 때문인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기독교가 한국의 문명개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그의 인식은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도 보인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한국의 토착적 종교에 대해서도 신교(神敎)라고 이름 붙이면서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신교의 기원을 환웅과 단군으로 보았고 민족의 신앙과 사상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고유의 민간신앙에 많은 의미를 두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인이 근대에 새로 만든 신종교를 별도로 유형화하여 태극교, 대종교, 천도교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교리를 소개하였다. 즉 태극교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대종교(大倧敎)는 환인, 환웅, 단군에서 기원한 것이며 대종교(大宗敎)는 정역(正易)사상을 주창한 김일부가 창종한 것이었는데 동학과 대비하여 남학이라고도 칭해졌다. 천도교는 서학(천주교)에 대응해 일어난 동학의 후신으로 최제우가 유불도의 사상을 종합하여 가르침을 연 것인데, 천도교의 교리가 불교와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능화 선생은 당시의 종교 상황에 대해 다양한 세계종교와 민족종교가 공존하는 신교자유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유교는 형식만 남았고 신교와 구교의 기독교, 동학과 남학의 토산 종교, 대종교와 같은 고유의 신도가 수백만의 신자를 가졌지만 조선인 중 1천만 명은 무종교 상태이며 결국 미래에는 불교가 그 정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비록 호교론적 관점의 불교 우위론에서 있었지만 모든 종교를 회통한다는 본서의 제목처럼 종교의 자유와 공존을 인정하고 배타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 책에서도 각 종교는 하나의 근본에서 나뉜 것이며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으므로 회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여러 종교들의 교리와 경전 내용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개하였다.

〈백교회통〉은 동서 문명의 교차와 치열한 종교 경쟁의 각축기에 불교가 근대종교로서 살아남고 또 어떻게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배태된 지적 고뇌의 산물이다.

불교는 전통종교로서 지분을 가졌지만 서구문명의 후광을 등에 업은 기독교나 민족정서에 부합한 천도교 등의 약진에 맞서 종교적 존립을 모색해야 했다. 근대기 불교 지식인의 상당수는 문명개화의 신시대를 맞아 불교의 근대화와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호교론적 지향을 가졌다.

이 책도 당시 교세를 가졌던 제반 종교에 대한 관심과 비교종교학적 이해 수준을 잘 보여주며, 불교적 관점에서 여타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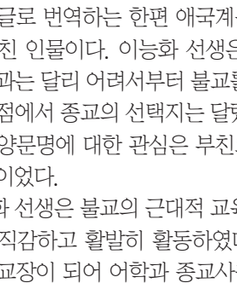
20세기 초는 근대성의 추구, 근대종교로의 존립이라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화두였다. 한용운의 유명한 〈조선불교유신론〉(1913) 또한 전통불교가 아닌 불교 안의 근대성을 지향한 것으로 철학과 종교를 겸비한 보편사유이자 평등주의와 대중주의를 포괄한 근대적 가치로서 불교를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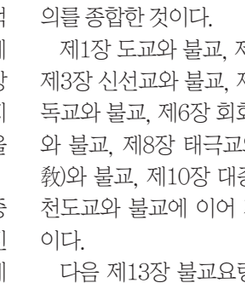
즉 불교야말로 근대문명의 특성에 부합하고 근대성을 담보하며 따라서 사회진화와 종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같은 시기 백용성의 〈귀원정종〉(1913)도 기독교와 같은 외래 종교에 대응하여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불교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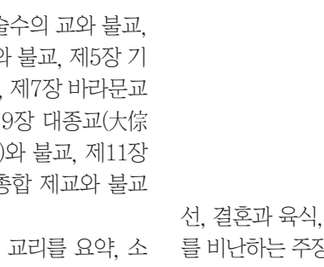
한용운과 백용성은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이들이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만큼 본서 〈백교회통〉과 함께 이들의 불교관과 종교 이해, 시대 인식 등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문제의식과 고뇌의 길을 탐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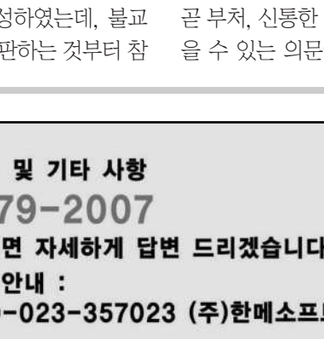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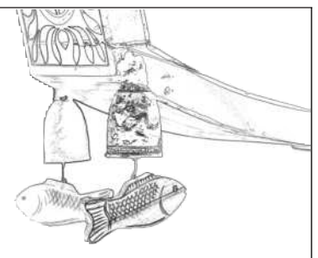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뜨리듯 이 욕망이 일어나면 잠시라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언제나 사색과 명상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 본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지도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주지 원합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불사가 어려운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스님 도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세요
(60대 비구승)
010-5699-484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조용한
비구니도량. 기도하며
공부하실 스님 환영!
010-9340-3921

공양주 보살님, 일 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65세이상)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학인스님 가능)
(경주)
010-3746-8887

비구니, 비구
평생을 같이 보내실 분
적은 보시금으로 계실 분
(세수 60-65세까지)
010-3499-3721

비구니 부전 스님
구합니다
(서울)
010-2748-3004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女, 유경험자 우대)
(도봉산 천축사)
010-6253-3873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물금)
010-3579-644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양산 물금)
010-3647-001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있는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 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 인연관법 특강반 수시 모집
(개강일 : 3월 23일 월요일)
특강내용 (8주 인연관법 전문 족집게 완성)
• 구성 명반 쉽게 작성하는 방법
• 구성학으로 개개인의 인연법에 맞는 조상 천도제, 칠성제, 젊은 영가 천도제, 태아령제, 빙의 등의 제(祭)를 한눈에 찾는 방법
• 1년 운세 및 한달 운 쉽게 통변하는 방법 • 각종 택일 쉽게 찾는 방법
• 강의시간및기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6시 30분 (3시간)씩 8주간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010-5116-9313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구성학 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미래의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를 당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 본생경 -

사 찰 안 내

▶ 바다조망 토굴 터 안내◀
- 위치 : 거제시 바다조망 최고
- 총부지 : 526㎡ • 가액 : 3800만원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순천시 낙안온천 부근
- 법당 : 61.8㎡ 석담조 기와지붕
- 총부지 : 5,000평(종교용지 186평)
- 가액 : 3,500만원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 15평
- 총부지 : 1,900여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여년 전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암 자 양 도

- 위치 : 단양 암자 양도
- 1층 건물 약 76㎡ 노천불
- 토지 6,000㎡. 과실수입 2천만
- 양도금액 : 3억 1천만원
- 조용함토굴로 적당, 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소재
- 종교용지 및 대지 약 59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9988-724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서울
◎ 부지 : 13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외전각2채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6억 5천 ◎ 양도 : 8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남 하동 지리산 사찰 양도
* 건물 97㎡, 요사채 79㎡. 총건물 3동
* 토지 5,500㎡ 계곡접한 조용한 사찰
* 양도가 : 15억 (분할 양도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20평 주차장 100평,
- 기도하기 좋은곳, 산세가 좋고 물 맑은곳. 송이, 능이 많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571-65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203-3368

도심 속 사찰 안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신고잔 로데오거리
- 5층 건물 중 5층
- 총 150평에 실평수 75평 마당에 조립식 건물 두동(2동)
- 현재는 부처님 모셔져있지않음 주위에 300전세대 아파트 입주
- 방4개, 화장실2개 엘리베이터, 복도 남녀화장실
- 양도가액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010-9000-2291화주보살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구포시장(역세권) 농협구포지점 ↔ 신협중간
- 건물: 50평, 2층 단독건물, 옥상단독사용
- 시설: 불상개금, 삼존, 지장(법당 올수리)
- 소불 200불, 좌대법고 대1, 중1
- 친견실 1, 객실2, 공양간 식당
- 주차장 30평, 주차수입전액 2층세 포함
- 가액: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상담 능통자 환영

010-5348-256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최적장소 (급) 안내

- 위치: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월리 110번지 양촌 IC에서 15분 거리
- 대지 : 500평, 전 · 답 : 3,000평
- 요사채:50평 방5개, 후원방1개 욕실완비(심야전기)
- 농가주택 1동(80M암반수)
-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이 잘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도량
- 가액: 9억 5천(절충가능)

010-3435-2356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대지1000평 임야 2000평 총 3000평
- 건물 5동 타종 1총 6채
- 양도가 : 15억

상담문의전화 :

010-9818-09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좋은자리 한옥토굴 암자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 대지 340평, 기격자 한옥 56평
- 대구 밀양 30분거리 선원 별장 암자
- 내부인테리어 양호, 에어컨 3대 태양광 전기, 수세식 화장실3개 대밭잔디 정원 양호
- 총가액 : 2억5천
- 대지 150평 건평 37평 1억5천 대지 190평 건평 19평 1억

010-7417-4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법당 : 목조 18평
- 요사채: 목조 30평
- 전각 : 목조 3동
- 기타 부속 건물 3동
- 부지: 전, 임야,대지-약 1890평
- 양도가액:4억5천만원

011-854-9559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분만 연락주세요

부산 온천장 중심 법당

- 2층 공양실, 방 2개(약 50평)
- 3층 법당, 방 1개(약 50평)
- 100% 살림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월세 : 일백십오만원
- 시설비는 거의 없음, 보시고 결정

010-4010-40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 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신비한 동굴 사찰 안내

- 전국 최대의 천연맥반석 동굴법당 3구
- 1동굴 120평, 2동굴 80평, 3동굴 3평
- 대웅전, 산신각, 돌탑 108기, 식당, 종무소 등
- 사찰벽을 타고 사철 계곡물 흐름
- 경산시 남천면 소재(총 10,500평)
- 가액 : 대출 3억3천만 안고 6억 7천만원

010-3809-74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상북도 청도읍
- 마당이 있는 독채 임법당
- 가액 :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366-14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천마산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자가용으로 송도 해수욕장 3분거리
- 2층 약 60평, 위치 환경 특 A급
-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용왕단, 산신각, 영가단, 포대화상
- 큰공양간, 방3, 샤워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1동 33평, 약사기도도량임
- 가액 : 2억 7천만원 (은행대출 6천 5백) (시설물 일체)

010-7183-011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장한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지장보살
- 소불 30불, 탱화(후불, 신중, 지장) 기타 불기용품
- 오피스텔 2층 15평(10층 건물 도시형 주택 및 사무실 약 170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000만원

010-9105-002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용왕, 신중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집기 일체 800백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스님 건강상)

010-9036-115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 지역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 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청 평 한 옥 안 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기가 막힌 명당터"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1. 623
- 가셔서 느껴 보신후 전화 주세요

010-3519-5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북구 도봉세무소 뒤 농협은행 옆
- 평수 : 약 25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1백만원, 조절가능

010-8648-4945

토굴법당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아미동
- 당산을 보유한 토굴법당 임대 평수 120평 건물 60평
- 텃밭 보유
- 가액: 보증금 1천 500만원 년세 600만원

010-2618-767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산중의 청정도량 명당의 사찰입니다
- 답사하시면 후회 안함
- 가액 : 3억 8천만원

011-9973-0836

참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연수로 44번길
- 건물 : 벽돌조 와즙 독채
- 법당, 극락전, 신중, 영가단, 산신, 용신, 기도, 시설완비, 방 2개, 접견실 외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오전 기도 관계로 정오 1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10-2064-050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합포구 진동면 태봉1길 349-13
- 평수 약 80평, 삼존불 및 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 공양간, 방1, 창고
- 가액 : 일년 일백이십만원

010-3386-166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 5대 소형차 주차 20대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곡성 3대명산 설산
- 산 42,566㎡(약 1만 3천평) 종교부지 2,161㎡(650평)
- 건물 : 72㎡(21평), 54㎡(17평), 41㎡(13평) 각각 경량 철골 판넬
- 식수 : 암반, 지하수
- 특징 : 사찰, 연수원, 별장, 전원주택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가액 : 3억 8천

010-7732-2378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시 중앙시장 풍물시장 중간
- 평수 38평, 3층 건물 3층 방 방1칸 옥상 40평 이용가
- 앰프 및 최신시설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주방
- 집기 TV일체 이부자리만 들고 오시면 됨
- 소승이 중앙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양도하게 되었음
- 가액:보증금 500만 시설비 2,700만 월 25만 소임 관계상 3시간 전에 전화요망

010-3813-617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3389-81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 소재
- 산사평수 2,000평, 대웅전, 지장각, 산신각 요사채 1, 주거공간 1, 창고 1
- 사찰옆 과수원 1,550평을 택지 부지로 조성해 놓았음
- 텃밭 300평, 시가 억대 되는 소나무 6그루 정도 있음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 경치 최고로 오셔서 보시면 대만족 하실 것입니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50-22(청용안 1길 4)
- 전통기와 한옥건물 대지106평, 건평52평,법당 22평,거실,방3, 후불탱화 4×8 1점
- 신중탱화 1점, 대리석 법단, 태양광 발전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705-7711
010-6252-7711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홍천강 상류, 경치 좋음. 경춘고속도로 경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종교부지 312평, 대지 200평, 목조법당 30평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6천

033-434-1365
010-2665-9978

명당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 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최적지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82-8 남포저수지 앞
- 옥마산 정기를 받은 사찰
- 법당 외 부속건물 3채
- 건평 52평, 토지 377평
- 가액 : 3억 2천만원(주인직)

010-6444-4252
041-934-8497

사찰하기 좋은 시골 한옥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구리
- 대지 80평
- 건물 25평
- 뒷편 아담한 야산 차 진입용이
- 가액 : 7천만원

010-5024-3937

사 찰 안 내

- 위치 : 도청 신도시 예천 물 좋고 공기좋은 상리
- 연꽃피는 아담한 사찰
- 대지포함 토지총1.000평
- 몽땅 1억 8천

011-861-6252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5〉 무희망의 풍요로움

‘희망 집착’ 버려야 온전히 자유로워져

학생1: 무희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되돌아가서 희망과 무희망 사이를 왔다갔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잡아당김이 있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트룽파: 중요한 것은 희망이나 그런 가망성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알고자 하는 탐구심입니다. 그것은 항상 탐구하지요.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에 대한 당황스러움, 자신의 광기와 혼란을 탐구합니다. 이런 탐구심은 희망의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와 망설임을 발견한 후에는 그런 고통과 혼란을 없애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망설임과 혼란과 광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치유법을 찾지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치유 쇼핑을 해보지만 근원적 치유법은 없음을 발견합니다. 잠시 동안은 몰라도 근본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시작하지요.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을 의심합니다. 각각의 브랜드를 검토하고 상표에 쓰여 있는 지시사항도 읽어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우리는 진저리가 나야 합니다. 이제 유일한 치유책, 최선의 치유책은 무희망이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무희망은 당신 자신이 만든 상품입니다. 돈이나 에너지가 들지 않지요. 슈퍼마켓에 갈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값싸고 질도 좋아요. 유기농제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슈퍼마켓도 돌아다니고 광고도 보았지요. 모든 것을 두루 다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희망을 포기할 때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겠다는 희망마저도 버려야만 해요.

학생2: 절망은 에너지와 고통의 관계에서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고통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절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트룽파: 에너지는 어떤 면으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100퍼센트 고통은 아니지요. 아마도 50대 50일 겁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와 지성입니다. 지성은 여기서 야망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느끼는 거지요.

학생3: 때로 저는 제가 고통을 찾아다닌다고, 고통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학적인 일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린포체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룽파: 그것은 매혹 또는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버리는 것 같군요. 지루함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큰 고통을,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이것의 존재’라는 더 큰 고통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무슨 수를 쓰든 작은 고통을 만듭니다.

학생4: 탄트라가 연속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연속되지 않고,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확실함이 에고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그는 자유롭게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트룽파: 탄트라는 분명 연속을 의미합니다. 이 연속은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속은 피상적 연속이나 비연속에 절대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연속입니다.

분명 깨달음의 체험은 고착을 가진 에고의 비연속 또는 중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미래에도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더욱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계속되는 깨달음의 맥이랄까, 그런게 있어요.

에고가 없다는 의식이 가장 큰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연속은 하나의 기준점에 연속해 결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완전히 외계 우주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 은하계도 항성도 없는 근원적인 곳입니다. 거기에는 별과 은하수와 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학생5: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무희망의 발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양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모든 평소의 자신을 벗어나야 하나요?

트룽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지요. 십중팔구는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루의 역할이지요.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해 줄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희망이 없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당신의 미래는 무(無)야.” 구루의 역할은 바로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해 주는 것, 또는 당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리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격을 주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갖 불평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학생7: 린포체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게 있어 고통이란 이를테면 제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느낌이 없을 때, 고통이 사라졌을 때 저는 “자, 이젠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제게 있어 고통이란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도 날카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린포체가 말씀하시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을 때조차도 여전히 거기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나로파 대학에서 강연중인 트룽파 린포체

에고 중단시킬 때 깨달음 체험
깨닫겠다는 희망마저 버려야 가능
스승은 제자에게 ‘희망 없음’
즉, ‘무희망’의 진리 전해주자

트룽파: 내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좀 더 큰 개념, 즉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당신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특징 지점에서 또 하나의 특정 지점까지 연장된 어떤 것으로 보려 하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어떤 경계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당신은 신경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 너머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애쓰지요. 이것이 바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는 않는 더 큰 것들입니다.

학생8: 그렇다면 작은 고통들은 이를테면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작은 것들인가요?잠시 동안은 정리를 해 주는….

트룽파: 그리고 그것은 좀 더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실용적인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학생8: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희망 아닌가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트룽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더 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학생8: 하지만 더 큰 상황을 깨닫기 위해 그런 일을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트룽파: 당신의 지성에 달린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지나치게 꾸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삶에 대해 현실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9: 우리가 만남의 그룹에 참여한다든지 함으로써 스스로 묘책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열리고 있고, 고통의 가면을 벗긴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희망 안에서는 그런 묘책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희망을 놓은 사람은 그런 묘책에 절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나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트룽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학생10: 린포체, 저는 그와 동시에 상황의 희망없음을 깨닫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도 결부돼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상반된 개념이 합쳐지는 것 같거든요.

트룽파: 그래서요?

학생10: 믿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고통이 합쳐진다는 것을요.

트룽파: 바로 그것입니다. 무희망은 당신이 특별히 어디가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풍성하지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기쁨이요. 하지만 기쁨이란 아마도 잘못 선택된 단어일 거예요. 그보다는 무희망으로 인해 오는 건강함, 건전함, 웰빙의 느낌이겠지요.

학생 10: 아무튼 에고는 없지요.

트룽파: 웰빙의 느낌이 반드시 에고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생10: 진화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무희망으로 진입하려는 단계인가요? 나로파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로파가 엄청난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트룽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무희망의 수준은 나로파의 삶의 시작 부분, 즉 그가 학자가 되기 전에 왔어요. 우리는 그가 틸로파를 만나려 하면서 겪게 되는 무희망의 수준, 즉 탄트라의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초보의 수준이고 나로파가 승려의 계를 받고 승원에 들어갈 때 경험한 것입니다.

학생10: 그로 하여금 승원에 들어가도록 만든 무희망의 의식은 별로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멸 같은데요. 제 말은 제가 부모님께 수행그룹에 들어가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일상생활의 환멸에 대해 말했을 것 같아요.

트룽파: 그래요. 하지만 승원에 들어간 후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노력을 하고 서두르고 그랬던 거지요. 무희망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10: 그래서 그는 결국 승원 밖으로 나가 구루를 찾았던 거군요.

트룽파: 아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던 거지요. 그리고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학생10: 그러니까 린포체께서 말씀하시는 무희망은 승원생활의 상황에 대한 그의 무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룽파: 그렇지요. 무언가가 교대로 일어났어요. 먼저 직감이 왔고, 다음에 지성이 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직감이 왔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지성이 왔어요. 그의 첫 번째 직감은 승원에 들어가겠다는 욕구였어요. 그래서 그는 승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무희망을 발견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방법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의 무희망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방법을요. 거기에 커다란 지성이 있었어요. 경 · 율 · 론 삼장을 안팎으로 다 알 만큼 철저하게 공부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틸로파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직감의 차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다시 그는 지성으로 돌아갔지요. 그 시점에서 그는 프라즈나(prajna: 초월적 지식, 제6바라밀인 프라즈나(반야)가 초월적이라 불리는 것은 이원적 혼란의 베일을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성 대신에 지나나(jnana: 모든 이원적 개념화를 다 초월한 깨달음의 지혜 활동) 즉 지혜가 된 거예요.

학생11: 지성과 직감 중 더 근거가 정당한 것이 있나요?

트룽파: 둘 다 확실하죠. 마치 당신의 머리와 팔이 다 정당한 것처럼요.

학생11: 그렇다면 차이는 뭔가요?

트룽파: 지성은 책에서 배운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특히 학자가 되는 것 하고는요. 그것은 분석적 마음으로서 사물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반면 직감은 고통과 즐거움의 차원에서 사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 011-543-2161
010-3123-3113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3월 6일(금) 오후 2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영가기초포함)
영 가 특 강 반(포교원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작은 양보에도 억울한가요?



나는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어요

I can go through challenges wisely.

임진왜란(1592~1598년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한 전쟁)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이나 옥에 갇혔다 풀려나며 백의종군(벼슬 없이 일반 병사로 군대에 나가는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1597년, 전쟁이 다급해지자 조선 조정은 두 번째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에게 삼도수군통제사(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벼슬을 다시 내렸습니다. 당시 수군의 사정은 매우 나빴습니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전투선은 겨우 열두 척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의 힘이 약해서 적을 막아내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수군을 해체할 테니 육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臣)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열두 척의 배로 적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이순신은 결코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 등을 활용하는 한편, 치밀한 작전과 죽기를 각오한 용기로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험난한 여행에 비유합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하자면 높은 산도 넘어야 하고 거친 파도와도 싸워야 하며 무서운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나 손해와 같은 일이 바로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고 친구와 다퉈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사회문제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겨우 열두 척의 배로 적과 슬기롭게 맞섰듯이 우리도 지혜와 슬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 여러분이 최근에 겪은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려운 일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 앞으로 커 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I will try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접착식 메모지는 실수에서 생겨난 발명품입니다. 문구회사의 직원이 풀을 만들 때 원료를 잘못 섞는 바람에 잘 붙지 않는 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못 만든 풀은 모두 버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때, 또 다른 직원이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표시를 할 일이 많은데 잘못 만든 풀을 메모지에 칠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면 어때요?"

회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잘 떨어지는 풀로 접착식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회사는 이 메모지를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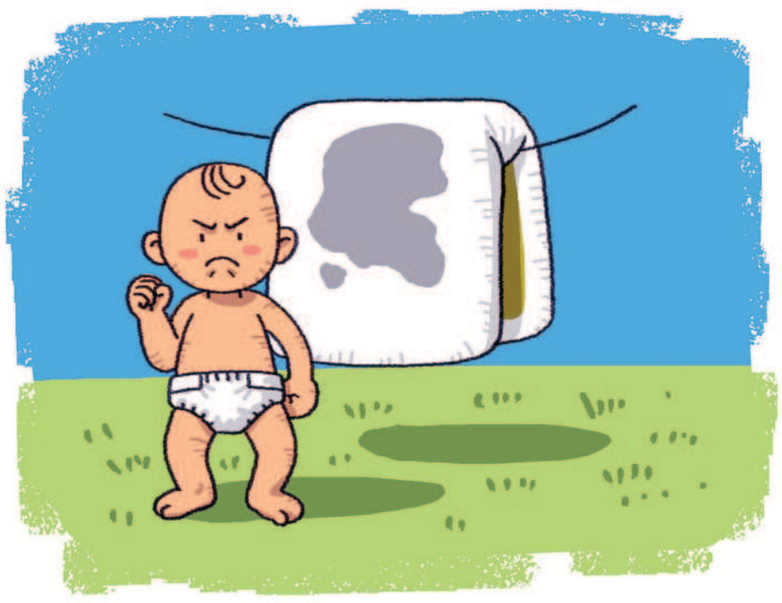
이처럼 일을 하다 벌어진 실수는 뜻밖의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수가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볼 때 많은 어린이가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틀렸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것입니다.

실수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가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 되풀이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억에 남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수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 반복해서 실수하는 일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아요.
* 반복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 혼자만 즐겁기 위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겠어요

I will not take other people's happiness just so that I can be happy.

몇 해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은 지 40년이 지난 낡고 위험한 건물 대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건물은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낡은 건물에서 공부하다가 새 건물이 지어지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운동장에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 때문에 아파트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아파트와 새로 들어설 건물의 거리가 멀어서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건물은 낡은 건물을 헐어낸 자리에 짓기로 했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질 1년 반 동안 학생들은 공부할 교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린이에게조차 양보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갈등을 불러옵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에게 양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양보를 하고도 억울해서 씩씩댄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사회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끊임없이 다투게 만듭니다. 오늘은 내가 이기심을 발휘해 조금 손해를 덜 봤더라도 내일은 남의 이기심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경험한 어른들의 이기주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나는 교실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 이기주의는 주변에 어떻게 피해를 줄까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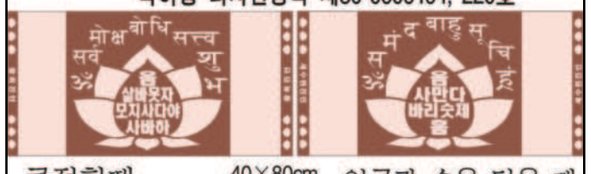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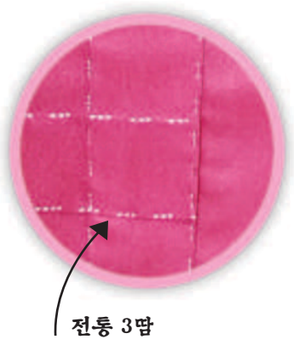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전통 3땀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대행 스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100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이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꼈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 보셨지요. 우리가 살면,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서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 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거는 '말씀' 입니다. 말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이죠. 그건 유의 법이죠. 그리고 말없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일부러 지어서 하기 보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 보는 거. 하나하나 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파될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 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리게 되고 자꾸 돌아가다 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라도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 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내가 콩씨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은 흘러나가고, 흘러나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음으로써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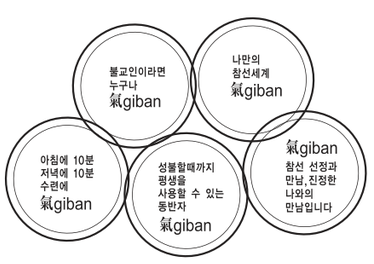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하죠.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을 시켜 놓으면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라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가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선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보거나 들어서 이것을 한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이 나는 게 있다면 물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막댕이만 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 말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람이니만큼 남이 잘된다면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셔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석인 겁니다. 목석! 생각을 좀 달리 해 보고 다녀야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 안 해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 봐야죠.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기자면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찍힌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그게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은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 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물색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 보지 않는 사람.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우리 유의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 봐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 가지고 그걸 방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봐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대로 못 박아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도 이익 되지만 남에게도 이익 되고 또 나라에도 이익 되고 모두에게 이익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복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흉보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 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줬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러고 해서 몹쓸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듯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 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으로나 중공으로나 유럽으로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마음을 던져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던져 놓게 되면은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데 아주 옥같이 해 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할래도 옥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꼭" 하고 죽더랍니다.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첫째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기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 분들은 나가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려면 미리 막아 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 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을, 옷을 벗기고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밑져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금 똑같을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생각 내면 윗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런 연후에 가서 말만 띄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 넣어 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떠 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떡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나는 아주 귀찮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 생긴다면 큰일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려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신념이 가게끔요.

여러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법문은 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려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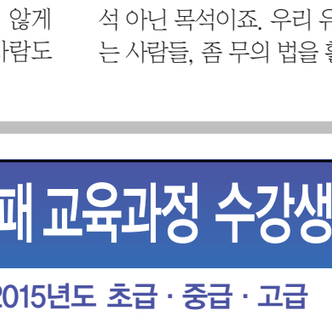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싸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법 논란

김영란법과 청백리 정신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후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위헌적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에 눌려 허겁지겁 통과시켰다니, 국회의원은 자신이 피해 나갈 구멍을 마련했다느니,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포함하여 물타기를 하였다니 말들도 많다. 나아가 이 법은 '검찰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언론의 자유와 서비스업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도 나온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고 국회의원에게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등 원안보다 약화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어쩌랴. 김영란법의 큰 줄기는 희미해지고 잔가지만 어지럽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 국민은 어지럽기만 하다.

지금도 국민은 어이없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검사가 벤츠를 선물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업무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의 등장과정과 그 논의들을 보면서, 한국의 공직 엘리트 계층의 부실함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시리다. 세월호 침몰이 한국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그대로 표출했듯이 김영란법은 공직 엘리트 계층의 비도덕성, 무도덕성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없어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영란법이 나왔는가? 그렇다면 공직 엘리트끼리 합작하여 그 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더 강한 법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항생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듯이. 수많은 격랑 속에서도 오백년 이상 이조왕조를 유지시켜온 여러 원인 가운데에 '청백리' 정신을 포함시키는 학자가 있다. 조선왕조는 청백리 선발을 제도화 하여 그 정신을 선양하였고, 청백리를 배출한 가문은 큰 명예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청백리 정신은 바로 공직윤리를 의미한다. 지금 무너진 공직윤리를 김영란법으로 세우려는 것인가? 바르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바탕을 두는 사회윤리적 차원이다. 이 둘의 관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보안적이다.

문제는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윤리적 차원을 어떻게 중도적 입장에서 통합시키느냐이다. 중도는 결코 가운데가 아니다. 양변을 잡고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사람의 행위를 점점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사람이 사람 가치를 못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가치를 올리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점점 죽어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하! 붓다는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았는가. 남을 탓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한국 불교는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교의 정토사상과 보살정신이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가? 화두는 선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리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로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가 3월 11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에 쓴소리를 했다. 그의 말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우승열패' 논리만 득실한 '격차왕국'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

한국은 적자생존,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사회다. 100년 전과 같은 구조다. 다음을 통해 이를 확실히 짚을 수 있다.

한국은 10대기업이 총국민생산의 약 84%를 차지하지만 유효 세율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6% 안팎이며 참고로 유럽연합의 평균 기업세율은 26%다. 2003년만 해도 10대 기업의 GNP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10대 재벌들의 총고용 비율은 약 6%에 불과하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착취를 강행한다.

재벌의 힘이 강해지면서 관료집단과 함께 지배 블록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관피아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세월호 학살 사건이지 않은가. 기업이 행정조직까지 움직여 공공이익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서열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서열이 사실상 '대입'에서 정해지며 그 뒤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즉 한국 사회는 초기선발형 사회에 속하며 초기 선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교육 비용을 대줄 부모의 경제력이다.

한국의 1%부자가 57%의 부동산 가치를 독점하는 반면 약 60%의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못해 실직 때 사실상 기본생계 보장조차 불가능하다. 소득상위 10분위와 하위 1분위의 일반소비 격차는 약 4배, 사교육비 소비 격차는 16배나 된다. 격차왕국 대한민국의 사회격차 수준은 이미 남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카스트 제도로의 퇴행을 의미할 뿐이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1.7명밖에 안돼 프랑스(3.4명) 등 유럽 복지 국가보다 약 2배 낮다. 공공의료기관 비율 역시 10%도 안 된다. OECD 평균 7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도 빈곤층과 중산층, 하위계층 등은 공공부문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전국 성인들의 미치료율은 34%에 달하며 치과의 경우 45%다. 즉 전국 총인구 약 20~40%는 의료소외층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살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은 하루 36명꼴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자살비율은 세계 3위에 육박한다. 시험, 성적, 취직, 실직, 경제적 불안, 미래 전망 부재가 원인이다. 노동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도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할인점 등으로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당한 영세업자는 생계 곤란, 자살위험에 빠지고 있다. 위험 사회로서의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산재 공화국 한국의 2008년 재해피해자는 20만명에 사망자는 2422명이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보다 4배나 많고 영국보다 21배나 많다. 그러나 이 통계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만을 한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 노동자 및 외국 노동자의 재해사고는 포함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약자층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노동에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 역사에서는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운동의 압박을 받아야 온건한 개혁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그랬고 2008년 촛불 집회 등이 그랬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망각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한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실패될 경우 이같은 사회적 대량 타살들은 앞으로도 재발될 우려가 크다.

변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파업투쟁과 중산층의 시위투쟁, 불매 운동 등이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 복지-공공성 위주 국가로의 전환 전제조건은 노동계급과 중산계층들의 강력한 진보연대와 공동투쟁이다.

불교의 원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을 뜻하는 말이다.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원력이 필요한 때다.

평등을 통한 이상적 사회를 강조한 〈아함경〉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곧 부의 재분배와 상통한다. 기업세를 비롯한 양도세, 종부세 등을 강화시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투자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부양책 역시 토건 예산이 아닌 복지 예산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社說

해인사·동국대는 한국불교의 '거울'

3월 9일부터 시작된 한주는 매일 사건이 이어졌다. 3월 9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정련 스님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직무대행으로 이사 영담 스님을 지명했다. 총장 선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던 이사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영담 스님은 스님대로 직무대행 역할을 할 것을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인수 요청을 해왔다. 여기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동문으로 구성된 범대위가 가세해 일면 스님의 출근 저지를 선언하고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일면 스님 측도 3월 12일 새벽 2시경 출근을 강행하며 범대위 측과 갈등을 빚었다.

3월 7일 원각 스님이 추대되며 마무리될 줄 알았던 해인총림 방장 선출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됐다. 해인사 선거관리위원장과 일부 스님들이 11일 "산중총회 구성원 중 미등록 법인 임직원과 도제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원각스님 추천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장 추대는 선거가 아닌 추대이기 때문에 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인사는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이 선풍을 드높이면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성지와 같은 곳이다. 동국대는 미래 한국불교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대 선지식들이 만든 종립대학이다. 해인사와 동국대, 두 곳은 한국불교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그 '거울'에 비친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떤가.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복잡한 정치적 프레임만 남아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갤럽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여론 조사가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의 신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관심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모습은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학 불교 동아리에 관심을

졸업 시즌이 끝난 3월은 각 대학마다 새내기 신입생을 맞느라 분주하다. 예전같으면 동아리 선배들이 캠퍼스 곳곳을 찾아가 신입회원들을 모집 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작금의 대학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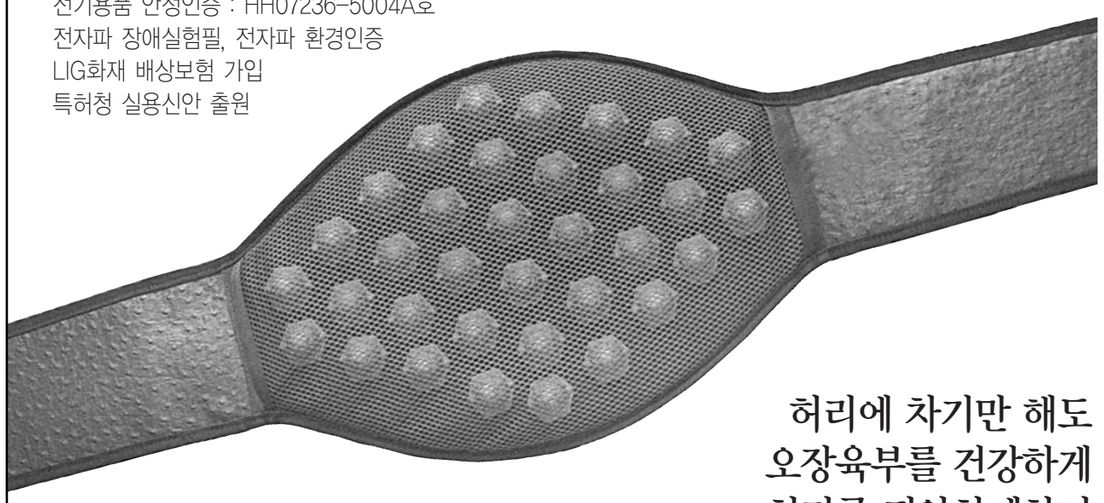
최근 대학생 동아리에 발길이 뚝 끊겼다 한다. 씁쓸한 일이다. 한때 동아리 활동은 대학입시의 중압감에 찌든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낭만의 마당이었다. 진정한 자아성취와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재미 또한 대학생들만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로 돌입한다고 한다. 서글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대학생들만 무작정 나무랄 수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정규직을 뚫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 아닌가.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건 이해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동아리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와 같은 종교 동아리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현실서 고군분투하는 대불련 회원들의 열정에 우선 등을 두드려 주고 싶다. 새학기 개강을 맞아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와 연합해 서강대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펼쳤다.

대학생 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좌절 말고 머리를 맞대 큰 꿈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대불련 산하에 있는 가톨릭대, 고려대, 광주대, 대전대, 동국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전국 40여개 지회가 3월 한 달 동안 캠퍼스 포교 ·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니 젊은 청년들의 포교 열정에 큰 기대를 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봉축리본


▶종이등표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종이주름등


▶세로거치형 현수막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공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봉축현수막


▶비닐만월등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가격 할인 예외 품목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